

바넷 흥신소

L'Agence Barnett et Cie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28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07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L'Agence Barnett et Cie » (1928)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Agence Barnett et Cie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7

번역 정책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웁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
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성 게르맹 거리 부근, 아세르만 남작 부인이 거느린 넓은 저택 아래
쪽에서 문종소리가 울렸다. 곧이어 하녀가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사시 정각에 모시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세르만 부인이 봉투를 뜯어 카드에 인쇄된 글자를 읽었다.

‘바넷 흥신소. 무료 상담.’

“그 분을 내 화장실로 모셔라.”

발레리. ‘아름다운 발레리’라고 불려온 지 이미 서른 해가 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풍만하고 중후한 여성이었다. 옷차림은 호화롭고, 화장은 꼼꼼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었다.

얼굴에는 자만이 드러나곤 했으며, 때로는 강박함도 보였다. 하지만 종종 매력적인 순진함도 풍겼다.

은행가 아세르만의 아내였던 그녀는 사치스러운 생활, 인맥, 저택,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사회계 열람에는 그녀의 다소 스캔들조인 연애사가 거론되기도 했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이 이혼을 원했다는 말까지 돌았다.

그녀는 먼저 아세르만 남작을 찾았다. 오래전부터 고혈압과 심장병으로 고생하던 그는 몇 주째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안부를 묻고는, 무심한 듯 그의 등을 받쳐 주는 베개를 고쳐 주었다. 남작이 나직이 중얼거렸다.

“방금 종소리가 났나?”

“네, 형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사건을 맡게 된 분이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합니다.”

남작이 말했다.

“좋아. 이 일이 나를 괴롭히고 있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군.”

발레리도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기묘한 남자를 만났다. 키는 잘 맞고 어깨는 넓으며, 몸은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그가 입은 검은색,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해 푸르스름한 코트는 비단 우산 천처럼 윤이 났다.

그의 얼굴은 힘차고 거칠게 조각된 듯했다. 나이는 젊었지만, 거칠고 거친 붉은 피부, 즉 벽돌빛 피부가 그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그는 한 쪽 안경을 오른쪽이나 왼쪽에 아무렇게나 끼우고 있었는데, 그 뒤의 차갑고 비웃는 듯한 눈빛은 오히려 젊은이의 활기로 빛나고 있었다.

“Barnett 씨?”

그가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가 손을 거둘 틈도 주지 않은 채, 그는 손을 잡고 입맞춤했다. 그 동작은 우아하게 원을 그리며 이어졌고, 그 직후 혀를 살짝 차는 소리도 들렸다. 마치 그가 그 향기로운 손의 맛을 음미하는 듯했다.

“집 배럿입니다. 바론 부인, 어서 오십시오. 편지 받으셨죠. 재킷도 살짝 빗고…”

그녀는 당황해 그 낯선 남자를 문밖으로 내보낼까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마치 귀족의 예의를 잘 아는 듯한 당당함으로 그녀를 압도했다. 결국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했다.

“들었습니다. 부인께서 복잡한 일을 잘 해결해 주신다고.”

그가 교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제 재능입니다. 사물을 명확히 보고 이해하는 재능이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조는 명령조였다. 전체적인 태도에는 은은한 조소와 가벼운 비꼴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너무도

확신하고 있어서, 듣는 사람도 저절로 그 확신에 끌릴 수밖에 없었다. 발레리 역시 첫눈에 이 낯선 남자의 영향력 아래 빠졌음을 느꼈다. 평범한 탐정, 사실 탐정 사무소장이었지만 말이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기세에 눌린 것을 만회하고 싶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사이에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Barnett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요.” 그녀 역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명성을 위해 일하는 건 아니죠?”

“바넷 탐정 사무소는 전액 무료입니다, 남작부인.”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적어도 보상금이나 상금 정도는 계약에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팁이라도 드리려는 겁니까?” 그가 비웃듯 말했다.

여자는 고집을 꺾지 못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빛을 진 채로 남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름다운 여성은 결코 누구에게도 빛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마도 이 농담이 너무 대담해 보인 것을 바로잡기라도 하듯 그는 덧붙였다.

“게다가, 바론 부인,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리든, 우리는 서로 완전히 빛이 없는 사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호한 말뜻은 무엇일까? 이 남자는 스스로 대가를 치르려는 것인가? 그리고 그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발레리는 부끄러움에 몸이 떨렸고, 얼굴이 붉어졌다. 바넷 씨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 감정은 도둑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비슷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신이시여, 맞다. 그녀는 아마도 그녀에게 접근한 연인이 그 특이한 방식으로 그녀 집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떤 경우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녀는 위축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신뢰하고 모든 상황에 순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탐정이 그녀에게 바넷 사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주저함 없이, 그리고 바넷 씨가 요구한 대로 솔직하게 말했다. 설명은 길지 않았다. 바넷 씨는 서두르고 있는 듯했다.

“마지막 주일이 지나간 다음 주일이었죠. 브리지를 하러 몇몇 친구를 모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 평소처럼 잠들었죠. 새벽 네 시, 정확히 네 시 십 분쯤에 나를 깨운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는 이어져서,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죠. 그 소리는 제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즉, 이 방이요?” 바넷 씨가 말했다.

“네, 이 방은 한쪽으로는 제 침실(바넷 씨가 그 방향을 향해 존경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과 이어져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계단실로 통하는 복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겁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잠시 기다린 후, 저는 일어났죠.”

바넷 씨는 이 여인이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광경을 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러니까, 일어나셨군요?”

나는 일어났다.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작은 진열장이 무너져 내렸고, 그 안에 있던 잡동사니와 작은 조각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중 몇 개는 깨져 있었다.

나는 남편 방으로 갔다. 그는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아무 것도 듣지 못했다.

나는 매우 불안했다. 그래서 호텔 매니저를 불렀다. 그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 조사는 다음 날 아침부터 경찰서장이 이어받았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넷 씨가 물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남자가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나갔는지. 의문투성이죠. 하지

만 쿠션 밑, 깨진 소품들 틈에서 반쯤 남은 양초와 나무 손잡이가 매우 더러운 뾰족한 공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날 오후 중반, 제 남편의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를 고치러 납땜공 한 명이 왔었다는 사실ைய요. 그 공장의 주인을 불러내자 그는 그 공구를 알아봤고, 우리는 그의 가게에서 나머지 반쪽 양초를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짐 바넷이 끊어 말하며 물었다. “이쪽은 확실한 단서가 있는 셈이군?”

“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확실한 사실에 의해 반박되었죠.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수사를 통해 그 노동자가 저녁 여섯 시 브뤼셀행 급행열차를 탔고, 자정에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사건이 일어난 세 시간 전에 이미 현장을 떠난 것이었죠.”

“세상에! 그리고 그 노동자는 돌아온 건가?”

“아니요. 안트베르펜에서 그의 흔적이 끊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낌없이 돈을 썼죠.”

“그게 다인가?”

“그게 전부입니다.”

“누가 이 사건을 맡았나?”

“베슈 형사입니다.”

바넷 씨는 극도의 기쁨을 드러냈다.

“베슈? 아, 그 훌륭한 베슈 말이오! 바론 부인, 저는 그분과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우리는 자주 함께 일을 했죠.”

“그분이 바로 제게 바넷 흥신소를 말해준 분입니다.”

“아마도 그가 해결하지 못해서였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참으로 착한 베슈oux군!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지 모른다. 당신, 자작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 주세요. 특히 당신께요!”

바넷 씨는 창가로 걸어가 이마를 유리에 댄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작은 춤곡 선율을 흥얼거렸다. 그리고 나서 아서먼 씨 곁으로 돌아와 다시 말을 이었다.

“베슈oux 씨의 의견, 그리고 당신 의견, 자작부인, 도난 미수가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실패한 시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치러 봅시다. 어쨌거나 그 시도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당신은 그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발레리가 잠시 주저하며 대답했다.

탐정이 미소 지었다.

“자작부인, 제가 공손히 어깨를 으쓱해 드려도 될까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아이에게 숨긴 물건을 캐물듯, 그는 아이러니한 미소로 방을 둘러싼 천 패널 중 하나를 가리켰다.

“이 패널 아래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론 부인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Barnett 씨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이건요, 이 천으로 된 사각형의 가장자리가 조금 닳았다는 걸 간단한 검사로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인, 일부에서는 나무 판자와 틈이 생겼을 정도예요. 그러니 여기 금고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발레리가 오싹 떨렸다.

이토록 모호한 단서들만으로 바넷 씨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아냈을까?

그녀는 급하게 손을 뻗어 그가 가리킨 패널을 밀어냈다. 그러자 작은 강철문이 드러났다. 그녀는 초조한 손길로 금고 자물쇠의 세 개의 버튼을 돌려댔다. 이유 없이 찾아온 불안감이 그녀를 뒤덮었다.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잠시 혼자 있게 된 사이 그 기묘한 인물이 자신을 털어냈을까 봐 두려웠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연 순간,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방치된 물건은 단 하나였다. 눈부신 진주 목걸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목걸이를 집어 들었다. 세 줄로 된 진주가 그녀의 손목에 감겼다.

바넷 씨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좀 안심하셨죠, 자작부인.”

“아, 도둑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대담한지 아시오? 조심해야 해요, 자작부인. 정말 예쁜 보석이에요. 그래서 누가 훔쳐갔는지 이해가 가요.”

부인이 항의했다.

“도둑맞은 게 아니에요. 만약 훔치려 했다면, 그 시도는 실패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작부인?”

“당연하죠! 여기 보시라고요! 제가 손에 쥐고 있잖아요. 도둑맞은 물건은 사라지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그가 평온하게 정정했다.

“여긴 목걸이가 있군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자작부인의 목걸이인지 확신하시나요? 이 목걸이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신하시나요?”

“뭐라고요?” 그녀가 격분했다. “보석상이 열흘 전에도 이걸 반백만 프랑이라고 평가했어요.”

“보름입니다. 즉, 그 밤이 오기 사흘 전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요?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감식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니 형사님, 그 확신 속에 혹시라도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까?”

발레리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가 말하는 그 의심은 무엇일까? 대체 무슨 일일까? 대화 상대의 집요함이 도무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고, 그로 인해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손바닥 위에 펴 놓은 진주 구슬 더미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무게를 재던 발레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구슬 더미가 점점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색다른 빛깔과 낮은 반사광이 보였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고른 크기,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수상한 완벽함. 그녀를 어지럽게 만드는 디테일들이 한데 모여 있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 어둠 속에서 진실이 빛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또렷하게, 그리고 점점 더 위협적으로 빛나며.

Barnett은 기쁨에 찬 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목소리를 조절했다.

“완벽합니다! 정말 훌륭하군요! 이제야 이해하시겠네요. 올바른 길로 접어든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작부인께선 곧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일 테니까요. 이 모든 게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상대는 흠치지 않아요. 대신 바꿔치기하는 거죠. 그러니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아요. 만약 그 성가신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없었다면, 모든 일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어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진짜 진주가 사라졌고, 하얀 어깨 위에 가짜 진주 목걸이를 걸친 채로 서 있다는 사실은 새 소식이라도 들어올 때까지 모른 채 계실 뻔했으니까요.”

그 표현이 다소 친밀해 보였지만, 그녀는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바넷 씨는 그녀 앞에 고개를 숙인 뒤,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자, 첫 번째 결론은 이렇습니다. 목걸이가 사라졌다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누가 훔쳤는지 찾아봅시다. 남작부인, 논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구성된 수사의 논리죠.

도둑을 알게 되면, 그에게서 훔친 물건을 되찾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협력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는 발레리의 손을 따뜻하게 두드려 주었다.

“신뢰하십시오, 여백작 부인. 우리는 이미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허락하신다면 작은 가설 하나를 세워보겠습니다. 가설은 훌륭한 수단이지요.”

“일단 남편이, 비록 병약하지만, 그날 밤 자택에서 이곳까지 기어올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촛불을 켜졌으며, 플룸버가 잇고 간 도구를 손에 쥐었다고요. 그 후 금고 문을 열었고, 실수로 유리를 깨뜨렸으며, 당신이 깨닫는 것을 두려워해 도망쳤다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환하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도착이나 퇴장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금고가 강제로 열리지 않은 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아서만 남작이 수년간 당신 방에 드나들 때, 자물쇠를 다루는 모습을 지켜보고, 잠금 장치가 딸깍거리는 소리와 간격을 외웠을 테니까요. 이동된 톱니바퀴의 수도 세었을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세 숫자를 알아냈을 가능성이 큼니다.”

짐 바넷이 말한 ‘작은 가설’이, 그가 단계별로 풀어놓을수록 아름다운 발레리의 얼굴을 점점 더 공포로 물들였다. 그녀는 그 장면들을 다시 목격하는 듯했고, 기억이 소환되는 듯했다.

당황한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미친 소리네요! 제 남편은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없어요… 만약 다른 날 밤 누군가 왔다면, 그건 절대 그 가 아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짐 바넷이 은근히 물었다.

“목걸이의 사본이 존재했나요?”

“네… 조심하려고, 구매 당시인 4년 전쯤에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 사본을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그가요,” 그녀가 아주 작은 소리로 답했다.

짐 바넷이 기쁜 듯 결론을 내렸다.

“손에 쥔 이 사본이 바로 그겁니다. 진짜 진주와 바뀐 것이 바로 이 사본입니다. 진짜 진주는 그가 가져갔죠.

그가 왜 그랬을까요? 아서만 남작의 부는 그를 절도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더 깊은, 개인적인 동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수일까요? 아니면 괴롭히려는 심정, 혹은 누군가를 벌하려는 의도일지도 모릅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가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엄격하게 판단하죠.

죄송합니다, 남작부인. 가정의 비밀에 침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당신과 함께 이 목걸이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뿐입니다.”

“아니요!” 발레리가 뒤로 물러서며 비명을 질렀다. “아니요! 아니요!”

그녀는 이제 그 견딜 수 없는 조수에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몇 분간의 대화, 때로는 장난기 섞인 가벼운 어조였지만, 모든 수사의 상식을 벗어난 방식이었다. 그는 악마처럼 손쉽게 그녀를 둘러싼 모든 신

비를 밝혀냈고,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가 운명적으로 빠져들게 될 심연까지 일러주었다.

이제 더 이상 그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아니요.”

그녀는 고집스럽게 반복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마담. 제가 귀찮게 드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도와드리기 위해 여기 있는 거고, 당신이 원하시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께서 외출할 수 없으셨으니, 진주 목걸이를 남에게 맡길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마도 아파트 어딘가에 숨겨두셨을 겁니다. 체계적으로 찾아보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작은 일은 제 친구 베슈가 딱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만약 제가 필요해지면, 오늘 밤 아홉시부터 열 시 사이에 본사에 전화해 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마담.”

그는 다시 한 번 그녀의 손을 입에 대었다. 그녀는 감히 조금도 저항하지 못했다.

그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엉덩이를 사랑거리며 걷는 그의 모습은 경쾌하기까지 했다.

곧 마당의 문이 닫혔다.

그날 밤, 발레리는 베슈 형사를 불렀다. 그가 아세르만 호텔에서 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베슈 형사는 신망 두터운 경찰이었다. 유명한 가니마르의 제자였으며, 일반적인 수사 방법을 따랐다. 그는 방, 세면실, 그리고 사적인 서재까지 영역을 나누어 차례로 뒤졌다.

3줄 진주 목걸이는 숨기기 힘든 덩치였다. 특히 베슈처럼 베테랑 경찰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8일간의 치열한 노력 끝에, 그리고 밤새도록 수사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베슈 형사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그는 아세르만 남작이 수면제를 먹는 습관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침대와 침대 밑까지 직접 뒤져보았다.

결국 목걸이는 호텔 안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가시적인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발레리에겐 바넷 흥신소와 다시 연락해 이 참을 수 없는 인물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남자가 자신의 손을 입맞추고 ‘친애하는 남작부인’이라 부르든 말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쯤이야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징후가 경고했음에도, 도무지 그렇게 가까이 있을 것 같지 않던 사건이 상황을 급박하게 몰아갔다. 오후 늦은 시간, 급히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 심각한 발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화장실 문턱에 놓인 소파에 주저앉아 있던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뒤틀린 얼굴은 극심한 고통을 드러내고 있었다.

겹에 질린 발레리는 즉시 의사를 불렀다. 남작은 중얼거렸다.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아니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가 일어나려 애썼다.

“물… 주세요.”

“하지만 물병에 물이 있잖아, 친구.”

“아니… 아니… 그런 물은 마시고 싶지 않아…”

“왜 갑자기 그런 고집을 부리는 거야?”

“나 다른 물이 필요해… 저기 있는 거.”

그는 힘없이 다시 쓰러졌다. 그녀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빠르게 열었다. 그리고는 잔을 가져와 물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옆에서 물이 살랑살랑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죽어가는 남자의 얼굴은 점점 오목해져 갔다.

그가 무언가 말하고 싶다는 듯 손짓했다. 그녀는 몸을 숙였다. 하지만 하인들이 들을까 봐 두려웠는지, 그는 다시 명령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녀는 망설였다. 그가 하려던 말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남편의 시선은 너무나도 위압적이어서, 그녀는 순식간에 굴복해 무릎을 꿇고 그의 귀에 거의 자신의 귀를 댔다.

속삭임이 이어졌다. 말이 꼬이고 어설퍼, 그녀는 그 뜻의 일부를 겨우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진주들…… 목걸이…… 내가 떠나기 전에, 너는 알아야 해……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네가 나와 결혼한 건…… 내 재산 때문이었지……”

그녀는 그토록 잔인한 비난을, 이 엄숙한 순간에 받아들여야 한다며 격분하여 항변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목을 짊 잡았고, 혼돈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을 되풀이했다.

“내 부 때문에 그래. 네 행동으로 이미 그건 증명됐지… 너는 좋은 아내가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벌하려 했던 거야… 지금 당장, 내가 너를 벌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끔찍한 쾌감을 느끼고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진주가 사라지는 걸 보면, 나는 죽음을 받아들

일 수밖에... 진주들이 떨어지는 소리, 강물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 들리지 않아? 아, 발레리, 어떤 형벌이라... 떨어지는 물방울들... 떨어지는 물방울들...”

그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다. 하인들이 그를 안아 침대로 옮겼다. 곧이어 의사가 도착했고, 미리 연락을 받은 두 노모도 찾아와서는 방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발레리의 사소한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서랍이나 서장장 같은 가재도구가 함부로 만져지는 것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죽음은 오래도록 고통스럽게 이어졌다.

바론 아세르만은 새벽녘에 숨을 거뒀다. 마지막까지 단 한 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은 채였다.

두 사촌 자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방 안의 모든 가구에 즉시 인장 봉인이 찍혔다. 그리고 긴 장례식의 밤이 시작되었다.

이틀 후, 장례가 끝난 뒤 발레리는 시골 남편의 공증인을 맞았다. 그는 특별한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무겁고 슬픈 표정을 짓고서는 곧바로 입을 열었다.

“바론느, 제가 수행해야 할 임무는 고통스럽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 일을 끝내고 싶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귀하에게 해를 끼친 그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완고한 의지 앞

에 부딪혔습니다. 아세르망 씨의 고집을 잘 아시죠.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발요, 선생님. 설명해 주십시오.” 발레리가 간청했다.

“이렇습니다, 바론느. 제가 손에 쥔 것은 아세르망 씨가 스무 해쯤 전에 작성한 첫 번째 유언장입니다. 그 유언장에는 귀하를 전 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아세르망 씨는 저에게 자신이 새로운 유언장을 만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유언장에서는 그의 두 사촌 여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다른 유언장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제가 읽은 뒤, 그는 이 서랍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유언장은 그의 사후 일주일 뒤에야 공개하길 원했죠. 그 날짜가 되어야 봉인을 뜯 수 있습니다.”

아세르망 남작부는 그때서야 남편이 몇 해 전, 둘 사이에 격렬한 갈등이 있던 시절 자신에게 한 충고가 무슨 뜻이었는지 깨달았다. 모든 보석을 팔고, 그 돈으로 진주 목걸이를 사라는 것이었다.

목걸이는 가짜였고, 발레리는 상속에서 배제되었으며, 그녀가 가진 재산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그녀는 생계를 이어갈 길이 막혀버린 셈이었다.

봉인을 뜯 낱짜 하루 전날, 한 대의 자동차가 라보르드 거리의 작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가게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내리며 문을 두드렸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쪽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섰다.

“누구십니까?”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알아듣는 것이었다. 커튼으로 가려진 별실, 즉 흥신소와 분리된 공간에서 나온 소리였다.

“아제르만 남작부인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남작부인님. 앉으시죠. 곧 달려오겠습니다.”

발레리 아제르만은 기다리며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사무실은 마치 완전히 비워진 듯했다. 책상 하나, 낡은 안락의자 두 개, 벽은 텅 비었고, 서류도, 종잇조각 하나 없었다. 유일한 장식이자 유일한 업무 도구 라곤 전화기뿐이었다.

다만 재떨이 안에는 고급 담배꽂초들이 쌓여 있었고, 방 전체에서는 섬세하고 은은한 향기가 풍겨 나왔다.

배경에 드리운 커튼이 걷히더니, 짐 바네티가 경쾌하고 미소 띤 얼굴로 튀어나왔다. 여전히 낡은 롱코트를 입고 있었고, 넥타이 매듭은 공

장에서 찍어낸 듯, 그것도 영성하게 매어져 있었다. 검은 끈에 매달린 단안경이 그의 얼굴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는 곧장 내밀린 손으로 달려가, 장갑을 낀 그 손을 입맞춤했다.

“바론느, 안녕하세요? 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상복을 입으셨네요. 큰일 아니길 바랍니다. 아, 신참인 제가 실수했군요! 기억나네요. 아서만 남작이셨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매력적인 분이시다니.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이야기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춰보았다.

“아서만 바론느…… 완벽하군요. 기억나요. 가짜 진주. 도둑질하는 남편…… 아름다운 여성. 정말 아름다운 여성……. 그녀가 저에게 전화할 거예요.”

“자, 친애하는 부인.” 그는 점점 더 친근한 어조로 말을 맺었다. “저는 여전히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발레리에겐 그 인물이 당황스러울 뿐이었다. 그녀는 과장되게 남편의 죽음에 절망한 여인 체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밀려왔다. 앞날에 대한 불안과 빈곤에 대한 혐오감까지 더해져 그녀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지난 보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파산과 궁핍의 환상, 악몽, 죄책감, 공포, 그리고 절망이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한 작은 남자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행복해 보였고, 거만하며, 가볍게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어수선했다. 그의 표정에는 현재 그녀의 처지가 무엇인지 조금도 이해하려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대화의 분위기를 적절히 맞추기 위해, 많은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사건을 이야기했다. 남편을 비난하는 말은 피하면서도, 유언장의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했다.

“완벽해! 정말 잘됐어…”

탐정이 승낙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완벽해…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잘 이어져 있어. 이 흥미진진한 비극이 어떤 순서로 펼쳐지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일품이야!”

“일품이라고요?” 발레리가 점점 당황하며 물었다.

“그래, 일품이지. 내 친구인 베슈 형사도 분명히 그 기분을 느꼈을 거야… 그가 당신에게 설명해 줬겠지?”

“무슨 말어요?”

“무슨 말이라고? 바로 사건의 핵심, 이 극의 주된 동력이야! 하하,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른다. 베슈가 얼마나 웃었을지 상상해 봐!”

짐 바넷은 적어도 자신은 큰 소리로 웃었다.

“아, 세면대 소동이라니! 정말 걸작이군. 비극보다는 희극에 가깝지만, 그 구성이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

“저는 곧장 그 함정을 눈치챈습니다. 그리고 납땜공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면대 수리가 바론 아세르만의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단번에 보았죠. ‘세상에, 모든 게 다 여기에 있군!’ 하고 생각했어요. 바론이 목걸이 위조를 꾀하는 동시에, 진주 진주를 숨길 완벽한 은신처도 준비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만약 그가 진주를 단순히 빼앗아 센 강에 던져 버렸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수에 불과했을 겁니다. 완전하고도 장엄한 복수를 원했기에, 그는 진주를 손에 넣은 채 가까이 두어야 했죠.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 하지만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숨긴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렇게 했어요.”

짐 바넷은 매우 재미있어하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미리 지시를 내렸기에 그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제 플랑드르 출신의 배관공과 은행가의 대화를 상상해 보라.

“봐, 친구. 내 세면대 아래 배수관을 좀 봐. 거의 기울기가 느껴지지 않게 화장실을 거쳐 내 방으로 내려가잖아.”

“맞아요.”

“그 기울기를 더 완만하게 만들어 줘. 그리고 어두운 구석에서 배관 일부를 살짝 올려서, 필요하면 물건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공간을 만들어 줘.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흐르고, 곧바로 그 공간에 고인 뒤 물건을 밀어낼 거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배관 옆면, 벽 쪽에 지름 1센티미터 정도 되는 구멍을 하나 뚫어 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안쪽에.”

“바로 여기인가요?”

“그곳이야. 훌륭해! 잘됐어. 이제 이 고무 마개로 구멍을 막아 줘. 다 됐나?”

“네, 완료했습니다.”

“완벽해, 친구. 이제 할 일은 고마움을 전하고, 우리 사이의 작은 문제를 정리하는 것뿐이야. 서로 동의했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지?”

침묵.

“자, 오늘 밤 여섯 시 브뤼셀행 기차표를 끊을 돈이 있어. 그리고 저기서 받을 수 있는 수표 세 장도 준비했어. 한 달에 한 장씩. 삼 달 뒤면 자유가 돼 돌아올 수 있어. 잘 가, 친구.”

그리곤 악수한 뒤, 바로 그날 밤—당신이 안락의자에서 소음을 들었던 그 밤—진주와 바뀐 진주가 준비된 은신처, 즉 배관 속으로 숨겨졌다.

이제 이해가 가는가?

자신이 패배한 줄 알았던 남작은 당신을 불렀다.

“물 한 잔 가져다 줘. 제발. 수저병에 있는 물 말고, 저기에 있는 물로.”

당신은 순종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이 수도꼭지를 돌릴 때, 끔찍한 형벌이 시작되었다.

물이 흐르고 진주는 밀려났다. 남작은 흥분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들리나? 저기 사라지는 게…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거야.”

남작부인은 말없이, 그러나 심란한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의 원한과 증오가 잔인하게 드러난 그 사건 자체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이 있었다. 그것은 사실들 사이에서 또렷하게 떠오르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단서였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나요?” 그녀가 속삭였다. “사실을?”

“글쎄요. 제 일이라서요.” 그가 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히려 당신, 남작부인께서 제가 알고 있던 사실, 혹은 알고자 하던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막으셨죠. 그리고는 다소 무례

하게도 저를 쫓아내셨잖아요. 저는 조용한 성품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하셨나요?” 발레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 그냥 호기심일 뿐이죠.”

“언제요?”

“바로 그날 밤이었습시다.”

“그날 밤? 그 집에,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조용히 행동하는 습관이랄까. 아서만 남작도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 그런데도 말이지…”

“그런데도?”

“정확히 파악하려고 배수관 구멍을 조금 더 넓혔어. 아시죠? 그 구멍으로 진주들이 들어왔던 곳 말이야.”

그녀가 몸을 떨었다.

“그럼? 그럼? 당신은 봤어?”

“봤지.”

“진주들을?”

“진주가 그대로 있었어.”

발레리는 목소리가 메어지며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럼, 진주가 있었다면, 당신은…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는 솔직하게 시인했다.

“세상에, 만약 제가 없었다면, 짐 바넷 씨, 그 두 분은 아세르만 씨가 정해둔 최후의 날, 곧 그의 죽음과 함께 찾아올 운명을 겪었을 겁니다. 그가 묘사했던 그 운명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들은 사라진다…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 떨어지는 물방울들…’ 그의 복수가 성공했을 텐데, 정말 아까웠을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목걸이었으니까요. 수집가라면 손에 넣지 못할 수 없는 명품이었죠.”

발레리는 격렬한 충동이나 폭발적인 분노로 자신의 단정함을 해치는 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그녀를 격분시켰다. 그녀는 바넷 씨를 향해 달려가 그의 옷깃을 잡으려 했다.

“이건 도둑질이에요! 당신은 그저 방탕한 모험가일 뿐이에요… 제가 이미 눈치챈어요… 모험가! 사기꾼!”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젊은 남자를 기쁘게 했다.

“아그레팡!… 참으로 매력적이군…”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발레리는 멈추지 않았다. 분노로 몸이 떨리는 그녀는 방 안을 오가며 소리쳤다.

“저는 당신에게 당하지 않겠소! 그걸 돌려주세요. 지금 당장!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요.”

“오, 참으로 추악한 생각입니다!” 그가 외쳤다. “당신 같은 아름다운 여성이,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정직하게 행동한 남자에게 이렇게 예의가 없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명령했다.

“내 목걸이를!”

“하지만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신이여! 짐 바넷트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털어먹을 것 같습니까? 하필이면요! 바넷트 흥신소는 정직함과 무사육이라는 명성 덕분에 이토록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고객에게 단 한 푼도, 아니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진주를 가로챘다면, 나는 도둑이자 사기꾼이 되겠지요. 하지만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기, 자네 목걸이입니다, 자네 바론네!”

그는 주머니에서 진주들을 수습해 담은 천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충격에 빠진 ‘귀여운 남작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귀중한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눈이 믿겨지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 남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돌려준다는 게 가능할 리가 없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이것이 잠시 동안의 선의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다.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문 쪽으로 달아났다. 자비 따위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정말 급하시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아직 세지 않았군요. 총 삼백사십오 개입니다. 모두 다 여기 있죠. 이번엔 진짜입니다.”

“네, 네... 알아요.” 발레리가 말했다.

“확신하시죠? 바로 그 보석상에서 오십만 프랑으로 평가했던 것 맞습니까?”

“네. 맞아요.”

“확실합니까?”

“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사요? 무슨 뜻이죠?”

“결국 재산이 없으신 당신은 그 목걸이를 팔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맡기시는 게 좋겠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높은 값을 드리니까요.”

보통 가격의 스무 배요. 오십만 프랑이 아니라, 천만 프랑을 드리지요. 어때요, 깜짝 놀라셨죠? 천만 프랑. 그 숫자만 봐도 알 만하지 않습니까.”

“천만 프랑!”

“바로 아세르망 씨의 상속금으로 알려진 액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발레리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제 남편의 상속금이라니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않아요. 설명해주시겠어요?”

짐 바넷은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설명이라니요. 말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주 목걸이를 받을지, 아니면 상속금을 받을지.”

“진주 목걸이…… 상속금?”

그녀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주님, 맞습니다. 그 유산은 두 개의 유언장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크레스스처럼 부유하고 마녀처럼 악랄한 두 명의 친척 자매를 위한 것이죠. 두 번째 유언장을 찾지 못하면, 첫 번째가 유효해집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내일 봉인을 떼고 서랍장을 열 예정입니다. 유언장은 거기에 있죠.”

“거기에 있거나, 혹은 이미 없거나죠.” Barnett이 비웃었다. “솔직히 제 생각엔 이미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리가요?”

“아주 가능합니다. 거의 확실하죠. 사실 기억나는데, 우리 대화하던 날 밤, 세면대 배관을 만지러 갔다가 남편 방을 살짝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너무 잘 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언장까지 가져왔습니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 같군요. 바로 그潦草한 글씨체가 맞죠?”

그는 세금 스탬프가 붙은 종이 한 장을 펼쳤다. 그녀는 거기서 아세르만 부인의 글씨를 알아봤다. 그리고 이 문장들을 읽을 수 있었다.

“나, 서명자 레옹-조셉 아세르만, 은행가. 그녀가 잊지 않은 몇 가지 사실에 따라, 내 아내가 내 재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또한……”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혔다. 온몸에 힘이 빠진 그녀는 비틀거리며 안락의자에 주저앉으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그 종이를 훔쳤군요!…… 저는 동범이 되고 싶지 않아요!…… 가엾은 남편의 뜻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해요!…… 그래야만 해요!”

짐 배렷은 흥분한 듯 몸을 움직였다.

“아, 정말 훌륭하십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의무란 바로 그 희생 속에 있는 법이고, 저는 당신을 완전히 지지합니다… 오히려 그 의무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그 두 노모는 그 누구의 관심도 받을 가치가 없으며, 사실 당신은 아제르만 씨의 사소한 원한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젊은 시절의 작은 잘못 몇 가지 때문에, 당신은 이런 불의를 감수하는 겁니까? 아름다운 발레리는 마땅히 누려야 할 사치를 박탈당하고, 극심한 빈궁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자작부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목걸이를 선택한다면, 즉 우리 사이에 오해가 없도록 말하자면, 그 목걸이가 이 방을 나온다면, 공증인은 당연한 일로 내일 그 두 번째 유언장을 받을 것이고, 당신은 상속에서 배제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 채 끝이 납니다. 두 번째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당신은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죠. 짐 덕분에 천만 프랑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목소리에는 냉소가 서려 있었다. 발레리에 에워싸인 듯, 목이 조여 오는 듯, 그녀는 이 악마 같은 남자의 손아귀에 잡힌 먹이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저항할 길은 전혀 없었다. 만약 그녀가 목걸이를 건네지 않는다면, 유언장은 곧바로 공개될 테니까. 이런 상대에게 빌어봐야 소용없었다. 그는 결코 물려서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짐 바넷이 커튼 뒤로 숨겨진 뒷공간을 잠시 지나쳤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다시 돌아왔는데, 얼굴에 바른 기름을 한참씩 닦아내며 마치 배우가 분을 지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더 젊어 보였고, 피부는 건강하고 윤기가 돌았다. 이미 매듭이 잡힌 넥타이 대신 유행하는 스타일의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빛바랜 오래된 코트 대신 잘 재단된 조끼를 입었다. 그는 침착하게 움직였다. 누구도 그를 고발하거나 배신할 수 없는 남자의 태도였다.

그는 확신했다. 발레리가 이 모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가니마르 형사에게조차도 말이다. 그 비밀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는 웃으며 말했다.

“자, 보세요. 이제 사물이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다행입니다. 결국 누가 부유한 아서만 부인이 가짜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당신의 친구도 모를 테고, 지인도 모를 겁니다. 당신은 두 가지 승리를 거두는 셈입니다. 정당한 재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모두가 진짜라고 믿을 가짜 목걸이도 손에 넣을 수 있죠. 참으로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삶이 다시금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채롭고 흥미진진하며, 재미있고 온화한 삶. 당신의 나이라면 누구나 저지르는 작은 망나니짓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요.”

발레리는 지금 당장 그 어떤 무모한 짓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짐 바넷을 향해 증오와 분노가 담긴 한 방울의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적대감으로 가득 찬 거실을 빠져나가는 대모의 위엄을 갖춘 채, 그녀는 곧게 서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진주 목걸이 주머니를 그대로 남겨두고 떠났다.

“이것이 바로 정숙한 여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군.” 바넷은 팔짱을 끼며 위엄 있는 분노를 표했다. “그의 남편이 그녀의 방탕한 행동을 벌인 탓에 유산에서 제외시켰는데도, 그녀는 남편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유언장이 있는데도 그녀는 그것을 속이고, 공증인이 있는데도 그를 조롱한다. 오랜 사촌들까지도 그녀가 착복하다니.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고 진실을 되찾는 심판자의 역할이야말로 얼마나 멋진가!”

짐 바넷은 재빨리 목걸이를 원래 자리, 즉 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돌려 넣었다.

그리고 옷을 다 입은 뒤, 입에는 시가, 눈에는 모노클을 끼고 바넷
흥신소를 나섰다.

제2장

문이 두드려졌다.

바넷 흥신소의 바넷 씨는 손님을 기다리며 안락의자에서 졸고 있었다. 그는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방문객을 본 바넷 씨는 곧장 외쳤다.

“아! 베슈 형사군요!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친애하는 친구?”

베슈 형사는 일반적인 수경국 요원들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차림새와 태도 모두에서 우아함을 추구했다. 바지 주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넥타이 매듭을 꼼꼼히 다듬으며, 가짜 칼라도 꼭꼭 열려 입었다.

그는 창백하고 길쭉하며, 마르고 여위었다. 하지만 두 팔은 유난히 거대했다. 돌출된 이두근이 돋보일 정도였다. 마치 권투 챔피언의 팔

을 훔쳐다가, 제 박스러 체격에 억지로 붙여 넣은 듯했다. 그는 그 팔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다.

젊은 얼굴에는 큰 만족감이 가득 차 있었다. 눈빛도 지능과 날카로움을 잃지 않았다.

“그냥 지나다가요. 형님의 습관을 잘 알기에 생각했죠. ‘이제 짐 바넷을 만날 시간인데, 잠시 들러볼까?’ 하고요.”

“자문을 구하러요.” 짐 바넷이 말을 이었다.

“아마도 그럴지도요.” 가니마르 형사가 인정했다. Barnett의 선견지명이 늘 그를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망설였다. Barnett이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상담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베슈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의 주먹 힘은 팔이 거대한 지렛대처럼 작용하는 데서 오는 위력이었다.

“그래, 나도 좀 망설이고 있네. Barnett, 우리 세 번이나 함께 어려운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지. 당신은 사립 탐정으로, 나는 경찰 형사로. 세 번 모두 내가 느낀 건, 당신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들이 당신과 헤어질 때 약간의 원한을 품고 간다는 거였어. 예를 들어 아세르만 남작부인 같은 경우 말이야.”

“내가 그 기회를 이용해 그들을 협박했기 때문이겠지.” Barnett이 끼어들었다.

“아니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넷이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베슈 형사, 우리 사무소의 기본 원칙을 아시죠. ‘무료 정보 제공’.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단 한 번도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단 한 푼도, 한 닢도 받지 않습니다.”

베슈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안도의 한숨을 내뿔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제 직업적 양심상,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묻겠습니다. 부디 실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흥신소의 자금 사정은 어떻습니까?”

“익명을 원하는 여러 자선가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베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바넷이 다시 입을 열었다.

“자, 베슈.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마르리 근처 일이야. 보슈렐이라는 놈이 피살된 사건이지. 들었나?”

“어렴풋이.”

“그렇겠지. 아직 신문에서도 별로 다루지 않거든. 이 사건이 얼마나 기이한지 알면 놀랄 텐데.”

“칼에 찔린 거지?”

“그래. 등 뒤 두 어깨 사이로 찔렸지.”

“칼에 지문이 남아 있었나?”

“없었어. 칼자루는 아마 종이에 싸여 있었을 거야. 그 종이는 재가 되어 발견됐지.”

“다른 단서는 없었나?”

“전혀 없어. 그저 어수선하기만 했어. 가구가 뒤집어졌고, 서랍 하나도 망가졌더군. 하지만 왜 서랍을 부셨고, 무엇을 가져갔는지는 알 수 없었지.”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지금 현재는 퇴직 공무원 르보 씨를 고드 세 형제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저질 무리인 그 세 형제는 도둑질과 밀렵을 일삼는 놈들이죠. 양쪽 모두 증거 하나 없이 서로를 살인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현장을 가시겠습니까? 심문 현장의 생생한 현장은 그 어떤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넷 씨.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포르메리 판사는 자신에게 주목을 받아 파리로 승진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성격이라, 사법 기관 대표들을 대할 때 가끔 보이시는 그 작은 비꼼 같은 태도를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마땅한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베슈 씨.”

폰틴 마을과 마를리 숲 사이 중간 지점, 숲과 분리된 좁은 땅 너머로 이어지는 수풀 속에는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작은 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다. 집은 단층으로, 작은 채소밭이 곁들여져 있었다.

‘샤미에르’라 불리던 이 집은 여덟 날 전까지만 해도 전직 서점 주인인 보슈렐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꽃과 채소 가꾸는 작은 정원을 벗어나지 않다가 가끔 파리 강변에서 낚은 책을 뒤적일 때만 밖으로 나섰다.

그는 매우 인색했지만, 초라하게 살면서도 부자로 여겨졌다. 그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다만 폰틴에 사는 친구 레보 씨만 예외였다.

사건 재연과 레보 씨의 심문이 이미 끝난 뒤였다. 판사들이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짐 바넷과 가니마르 형사가 차에서 내려 도착했다.

베슈는 ‘샤미에르’ 입구를 지키는 경관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바넷을 따라 판사와 검찰부장관에게로 다가가, 두 사람이 벽의 한쪽 구석에서 멈춰 서 있는 순간에 합류했다.

고두 세 형제가 증언을 시작했다. 이들은 농장 일꾼 세 형제로, 나이는 거의 같았지만 외모는 제각각 달랐다. 다만 얼굴 전체에 스민 교활하고 완고한 표정만큼은 공통적이었다.

장남이 이렇게 말했다.

“네, 판사님. 바로 그곳에서 뛰어내려 구조하러 왔습니다.”

“당신은 폰틴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폰틴에서 왔고, 두 시쯤 일이 시작될 무렵, 여기 숲 가장자리 근처 데니스 아줌마와 수다를 떨고 있었어. 그때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군, 샤미에르 쪽에서.’ 보슈렐 아저씨를 아시죠, 판사님? 정말 잘 아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갔어요. 담장을 넘었죠… 유리 조각이 박힌 담장이어서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원을 가로질러…”

“집 문이 열리던 그 순간, 정확히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가두 형제 중 맏이가 말했다. 그는 사람들을 한 화단 쪽으로 이끌었다.

“결국 현관 계단 두 계단에서 약 15미터 떨어진 곳이군요.” 판사가 현관으로 올라가는 두 계단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곳에서 당신이 본 것은…”

“……레보크 씨本人……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그는 도망치듯 밖으로 뛰어나왔고,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가 맞다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을 두고 확신합니다!”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가 다른 두 사람에게 물었다.

그들은 단언했다.

“하나님을 두고 확신합니다.”

“실수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그는 5년 전부터 우리 근처, 폴틴 입구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에게 우유를 배달한 적도 있습니다.”

판사는 지시를 내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안쪽에서 한 노인이 나왔다. 육십 전후의 나이로, 갈색 두루마기를 입고 폴모자 쓴 얼굴은 붉고 미소가 가득했다.

“레보크 씨……” 세 사촌이 동시에 입을 열었다.

보좌 검사는 속삭였다.

“이 거리에서 실수할 리가 없어. 가두 부부가 도주자의 정체를 잘못 봤을 리 없지. 즉, 살인자를 잘못 봤다는 말이야.”

“물론이지.” 판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정말로 레보 씨를 본 것인가? 계속해 보자고.”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다. 벽이 책으로 가득한 넓은 방이었다. 가구는 몇 개 없었고, 큰 테이블 하나만 놓여 있었다. 그중 한 서랍이 강제로 뜯겨진 그 테이블이었다. 벽에는 액자 없이 걸린 바슈렐 씨의 전신 초상화가 있었는데, 색칠된 스케치 같은 느낌이었다. 아마도 실루엣을 강조하려다 보니 그런 화풍이 된 듯했다.

바닥에는 피해자를 형상화한 인형이 놓여 있었다.

판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가두, 도착했을 때 레보 씨를 다시 본 적이 있는가?”

“아니요. 여기에서 신음 소리가 들려서 바로 달려왔어요.”

“즉, 오종 드 바세렐 씨는 살아 있었던 말인가?”

“아, 그다지 크지는 않았죠. 그는 옆드린 채로 있었고, 칼이 등 사이에 꽂혀 있었어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앉았죠. 그 불쌍한 신사는 무슨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셨다고?”

“아니요. 한 마디, 많아야 한 마디만 들렸어요. ‘르보’라는 이름이었죠. 그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르보 씨… 르보 씨…’. 그러다 그는 몸을 비틀며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뛰어갔죠. 하지만 르보

씨는 이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열린 부엌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을 테고, 그의 집 뒤쪽까지 가려지는 자갈길을 따라 도망갔겠죠. 그래서 우리 세 명은 모두 헌병대에 가서… 그 일을 말했어요.”

판사는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조카들이 르보 씨에게 제기한, 이미 매우 명확했던 비난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 후 그는 르보 씨를 향해 몸을 돌렸다.

르보 씨는 아무 말 없이, 또한 조금의 분개도 보이지 않는 평온한 태도로 끝까지 경청하고 있었다. 가두 가문의 일화가 그에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는지, 그 우스꽝스러움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사법 부에게도 똑같이 선명하게 비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는 변명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르보 씨, 할 말씀이 없습니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판사님, 제가 굳게 주장하는 바는 당신도 잘 아시는 바, 즉 진리입니다. 당신이_FONTINES_ 마을 사람들을 심문하거나 심문하게 한 모든 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르보 씨가 낮 동안에는 절대 집을 나가지 않는다. 정오가 되면 여관으로부터 점심을 배달해 준다. 오후 한 시부터 네 시까지는 창가에서 책을 읽으며 파이프를 피운다.’”

“그런데 그날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제 창문도 열려 있었고, 다섯 명의 행인이 저를 보았습니다. 다섯 명, 정확히 다섯 명 말입니다. 사실 매일 오후마다 그들은 제 정원 철망을 통해 저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들을 오늘 저녁까지 소환해 두었습니다.”

“좋아요. 그들이 증언을 확증해 줄 테니까요. 제가 어디든 동시에 있을 수는 없고, 여기와 저 집에 동시에 있을 수도 없으니, 판사님, 제발 제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발요.”

“샤미에르에서 제가 나가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

“바세르가 죽는 순간 제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는 것도.”

“결국 고두 세 형제는 끔찍한 악당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살인 혐의를 뒤집어씌우시려는 거죠?”

“아니요, 단순한 가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노파 데니스가 증언했습니다. 비명이 들리던 순간, 그녀가 그들과交談하고 있었다고요.”

“그녀는 그중 두 명과交談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있었나요?”

“조금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보았나요?”

“보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못 하죠.”

“판사님, 정말로 세 번째 고두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리고 근처에 숨어 있던 나머지 두 명이 담장을 넘어 온 것도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비명을 짓밟고 끝장내기 위함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당신 개인을 지목해 고발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사냥을 합니다. 고두 일가 식구는 완고한 밀렵꾼들이죠. 제 제보로 두 번이나 현행범으로 잡혀 징역살이를 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자신들이 고발당하지 않기 위해, 어쨌든 남을 고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는 거죠.”

“당신이 말한 대로 단순한 추측일 뿐이군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서랍에서 무엇이 훔쳐졌을지 짐작이라도 가십니까?”

“아니요, 판사님. 제 친구 보셔렐은 뭐라 하든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저축을 증권 중개인에게 맡겨 두었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죠.”

“소중히 여기는 물건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책은요?”

“가치가 없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게 그의 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희귀 판본이나 오래된 제본을 사 보고 싶었지만, 돈이 부족했죠.”

“그가 고두 사촌들에 대해 말한 적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비록 저의 불쌍한 친구의 죽음을 갚고 싶다는 마음이 크지만, 진실이 아닌 것은 결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심문은 계속되었다. 판사는 세 사촌들에게 줄줄이 질문을 퍼부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면 심문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몇 가지 부수적인 점들이 명확해지자, 법관들은 폰틴으로 향했다.

르보 씨의 소유지는 마을 경계선에 자리 잡고 있었다. 크기는 ‘초가집’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잘 다듬은 높은 수풀이 정원을 둘러쌌다. 철제 대문을 통해 들여다보면, 동그란 잔디밭 너머로 하얗게 칠한 벽돌집이 보였다. ‘초가집’에서 그랬듯, 거리는 약 15~20미터 정도였다.

판사는 르보 씨에게 살인 사건 당일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으라고 요청했다. 르보 씨는 따라서 창가 의자에 앉았다. 무릎 위에는 책을 올리고, 입에는 파이프를 물었다.

이 점에서도 실수할 여지는 없었다. 울타리 너머로 집을 힐끗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르보 씨의 모습을 또렷이 확인했기 때문이다. 폰틴에서 소환한 다섯 증인, 농부든 상인이든 모두 같은 진술을 되풀이

했다. 그들의 증언은 너무도 확고해, 르보 씨가 사건 당일 정오부터 오후 네 시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법정에서 있는 그의 모습만큼이나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사실을 눈앞에 둔 법관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배슈가 Barnett을 ‘뛰어난 통찰력을 지닌 탐정’이라 소개하자, 심판관은 어쩔 수 없이 중얼거렸다.

“이 사건은 도무지 꼬여 있군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슈가 물었다. 그는 Barnett에게 손짓으로 예의를 지키라는 재차 주의를 주었다.

짐 Barnett은 샤미에르의 모든 수사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배슈가 여러 번 그에게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감탄사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가 친절하게 대답했다.

“매우 복잡합니다, 검사님.”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양측의 주장은 팽팽합니다. 한편으로는 르보 씨의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그는 오후 내내 집을 떠나지 못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 사촌의 증언이 꽤 신뢰할 만해 보입니다.”

“분명히 거짓이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반드시 추잡한 음모와 비열한 연기가 숨어 있을 거야. 하지만 도대체 어느 쪽이 문제일까? 세명의 고두 형제는 의심스러운 인물이고 얼굴은 야수 같으니, 그들 중 무고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미소 짓는 레보크 씨가 범인일까? 그의 얼굴은 순진하고 평온한데 말이야. 아니면 연극 속 배우들처럼, 모든 등장인물의 얼굴이 그들이 맡은 역할과 일치한다고 봐야 할까? 즉, 레보크 씨는 무고하고 고두 형제가 범인이라는 뜻이지.”

“요약하자면,” 포메리에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도 우리만큼이나 답이 없군요.”

“아니요, 훨씬 낫습니다.” 짐 바넷이 단호하게 말했다.

포메리에 씨가 입술을 짹 다물었다.

“그렇다면,” 그가 말했다. “당신의 발견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필요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은 검사장님, 새로운 증인 한 명을 불러주실 수 있나요?”

“새로운 증인?”

포메리 판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증인의 이름과 주소는요?”

“모릅니다.”

“뭐라고요?”

포메리 판사는 이제 이 ‘경이로운’ 형사가 자신을 장난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베통도 심란한 기색이 역력했다.

짐 바넷은 마침내 포메리 판사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열 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성실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르보 씨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르보 씨 지갑의 숨겨진 주머니 안에는 네 개의 작은 구멍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뚫린 명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명함이 바로 그 이름과 주소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 기묘한 보고는 포르메리 씨의 당당함을 되찾아 주지 못했다. 하지만 베슈 형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별다른 변명 없이, 그는 르보 씨의 지갑을 받아 들고는 안을 열었다. 그리고 네 개의 마름모 구멍이 뚫린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스 엘리자베스 로벤데일’

그리고 파란 연필로 이렇게 주소가 적혀 있었다.

‘파리, 방돔 그랜드 호텔’

두 법관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베슈는 환하게 웃었지만, 르보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듯 외쳤다.

“세상에, 그 명분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가엾은 친구 보세를 위해서요.”

“그가 그 명함을 찾았습니까?”

“아, 그건 판사님께선 너무 많이 묻는군요. 아마도 위 주소가 필요했을 테죠.”

“그렇다면 이 네 개의 구멍은요?”

“제 손으로 찍은 네 개의 구멍입니다. 제가 이긴 에카르테 게임의 네 점을 표시하기 위해 펀치로 뚫은 거죠. 우리 둘은 에카르테를 자주 했거든요. 실수로 이 명함을 지갑에 넣은 게 분명합니다.”

설명은 매우 합리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늘어놓았다. 포메리 씨는 그 설명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남았다. 짐 바넷은 자신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의 주머니 속 숨겨진 공간에 명함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짐 바넷은 그 질문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그는 다정하게 미소 지을 뿐, 엘리자베스 로브데일의 소환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결국 그는 그 소환장을 받아들였다.

로브데일 씨는 파리에 없었고, 일주일 후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주 동안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포메리 씨는 짐 바넷의 불쾌한 기억에 부채질받아, 그야말로 집요하게 수사를 이어갔다.

“당신을 아주 화나게 했군요.”

‘샤미에르’에서 모인 날 오후, 베슈 형사는 바넷에게 말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 당신의 도움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물러나야 합니까?”

“아니요. 새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가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틀림없이 잘못된 입장일 테니, 재미있겠네요.”

“바넷, 존중하는 태도를 좀 가져주십시오.”

“존경과 무사히 끝내는 일입니다. 약속합니다, 베슈 씨. 기관은 무료입니다. 손에 하나도 없고, 주머니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포메리 씨가 제 신경을 건드린다는 건 확실합니다.”

르보 씨가 이미 한 시간 반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로브테일 여사가 자동차에서 내려왔다. 이어 포메리 씨가 나타나, 매우 기쁜 기색으로 즉시 외쳤다.

“안녕하세요, 바넷 씨. 좋은 소식이라도 가져오셨나요?”

“아마도요, 검사장님.”

“그래, 나도… 나도! 하지만 먼저 당신의 증인을 처리해야 합니다. 빨리요. 당신의 증인은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할 뿐이죠. 결국…”

엘리자베스 로벤데일은 회색 머리를 멋대로 풀어헤친 노년 영국 여성이었다. 기이한 행동을 하고, 차림새도 소박했다. 프랑스어를 프랑스인처럼 구사했지만, 말이 너무 빨라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녀는 들어서는 순간, 질문도 하기 전에 말을 쏟아냈다.

“불쌍한 보셰르 씨! 살해당하셨다니! 참으로 착하고 호기심 많은 분이셨는데. 제가 그분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그리 깊지는 않았습시다. 단 한 번만 이곳을 찾았습시다. 용건을 가지고요. 그분께 무언가를 사려고 했죠. 하지만 가격에서 합의가 안 됐습시다. 나중에 형제들과 상의한 뒤 다시 만나려 했어요. 제 형제들은 유명한 분들이죠. 가장 큰… 뭐라고 하지? 런던에서 가장 큰 식료품 상인들이죠.”

포르메리 씨는 이 말의 흐름을 잡으려 애썼다.

“무엇을 사려 하십니까, 미스?”

“작은 종이 한 장이요. 아주 작아요. 오늘날로 치면 양파 껍질 같은 거요.”

“그것에 가치가 있는 건가요?”

저에게 있어서는 지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제가 그에게 해버린 게 실수였죠.

“바슈렐 씨, 잘 들어주십시오. 제 할머니의 어머니, 아름다운 도로테이의 구혼자 중 한 명이 바로 조지 4세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열여덟 통의 연애편지를 보냈고, 그녀는 이를 리처슨의 전집 열여덟 권에 한 권당 한 통씩 넣어서 소중히 간직했죠.”

“도로테이가 죽은 후 우리 가족은 그 책들을 모두 찾았지만, 열네 번째 권만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열네 번째 편지가 들어있었죠. 가장 흥미로운 편지였는데, 그 편지가 바로 도로테이가 맏아들을 낳기 아홉 달 전, 그 동안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바슈렐 씨,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그 편지를 되찾으면 얼마나 기쁠지. 우리는 로브데일 가문이 됩니다. 현 국왕의 사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광과 작위를 얻게 되는 거죠!”

엘리자베스 로브데일이 숨을 고르며, 보나르 바셰르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어가 말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서른 해 동안의 검색과 광고 끝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개 경매에서 리처슨의 열네 번째 권이 포함된 책 묶음이 팔렸다는 것이었죠. 저는 곧장 그 책을 산 사람에게 달려갔습니다. 볼테르 강변의 중고서점 주인이었죠. 그는 그 책이 어제부터 제게 속해 있다며, 제게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바셰르 씨가 말했다. 그는 리처슨의 제14권을 내보이며 말했다.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14번 편지가 장정 뒤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는 책을 살펴보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물었다.

“얼마에 사셨습니까?”

“그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소. 그 편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 책은 오십 프랑에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오. 나는 천 프랑을 제안했지. 좋은 바쉐렐 씨는 떨기 시작했고, 만 프랑을 요구했소. 나는 흔쾌히 승낙했고, 그는 정신을 잃었소. 나도 마찬가지였지. 마치 경매장 같았으니까. 이십만… 삼만… 결국 그는 오만 프랑을 요구했고, 눈이 충혈된 채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소.”

“오만 프랑!… 단 한 수프도 깎지 못해! 내가 원하는 모든 책을 살 수 있는 돈이오!… 가장 아름다운 책들을!… 오만 프랑!”

그는 즉시 선금으로 수표를 요구했소. 나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고, 그는 그 책을 이 서랍에 던져 넣은 뒤 열쇠로 잠그고 나를 보내주었소.”

엘리자베스 로벤데일은 쓸데없는 디테일을 덧붙이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지임 바넷과 바슈 형사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폼리에 씨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과도한 기쁨에 몸이 떨릴 지경이었다.

마침내 그는 낮고도 걱정적인 어조로 속삭였다.

“결국, 미스, 리처슨 전집 열네 권째를 찾아오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극적인 제스처로 주머니에서 작은 책을 꺼냈다. 소가죽으로 제본된 작은 책이었다.

“말도 안 돼!”

영국 여성이 열광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조지 왕의 연서 따위는 여기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 보았다면 눈치챌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천 년 동안 찾아 헤매던 그 책을 찾아냈으니까요. 그리고 한 권을 훔친 도둑은 다른 한 권도 훔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포르메리 씨는 한동안 등을 뒤로 짚고 거닐며 자신의 승리를 만끽했다. 그러다 갑자기 작은 소리로 탁자를 툭툭 두드리며 결론을 내렸다.

드디어 살인 사건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어느 남자가 은밀히 귀를 기울여 보셰르와 미스 로브데일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셰르가 책을 숨긴 장소까지 기록해 두었죠. 며칠 후, 그 남자는 그 책을 훔치고 훗날 팔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열네 번째 편지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농가 하인 고두입니다. 저는 줄곧 그를 범인으로 의심해 왔습니다.

어제 수색을 하다가, 그의 벽난로 부러진 벽돌 사이로 이상한 틈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멍을 넓혀 보니,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보셰르 서고에서 가져온 책이었죠.

미스 로브데일의 뜻밖의 증언은 제 추리가 정확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저는 세 형제 고두를 체포명령으로 잡으려 합니다. 그들은 완고한 도둑질꾼이자, 착한 보셰르를 죽인 살인자이며, 레보 씨를 누명한 가증한 범죄자들입니다.

포메리에는 늘 진지한 표정을 짓고, 레보에게 존경의 의미로 손을 내밀었다. 레보는 열렬히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정중한 신사답게 엘리자베스 로벤데일을 자신의 자동차까지 배웅했다. 다시 다른 이들에게로 돌아온 그는 손을 비비며 외쳤다.

“자, 이번 일은 소문이 자자할 거야. 포메리先生的 귀는 달콤하게 울릴 거야. 어쩔 수 없지. 포메리에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는 파리의 매력을 느끼고 싶어 하거든.”

그들은 고두의 집으로 향했다. 포메리에는 엄중한 호위 아래 세 사촌들을 그곳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해 둔 상태였다. 날씨는 맑았다.

레보의 뒤를 따르며, 베슈 형사와 짐 바넷이 그를 양옆에서 에워싼 채, 포메리에는 자신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장난기 어린 어조로 말했다.

“헤이, 바넷 형님, 이번 일은 깔끔하게 처리됐지? 게다가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잖아. 어쨌든 당신은 레보크 씨를 싫어했잖아.”

“판사님, 인정합니다. 저는 그 불쌍한 명함에 현혹되었음을 시인합니다.”

바넷이 고개를 숙였다.

“대조 당시 그 명함이 샤미에르의 바닥에 놓여 있었죠. 르보 씨가 다가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오른발로 그 위를 밟았어요. 그리고는 떠나면서 신발에 달라붙은 명함을 떼어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젖은 땅에 남은 그의 오른쪽 밑창 자국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네 개의 송곳니가 달린 신발임을 보여줬습니다.”

“르보 씨는 자신이 명함을 바닥에 두고 왔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로브데일의 이름과 주소를 들키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런 계락을 꾸민 겁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그 명함 덕분에…”

포르메리 씨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들 장난이요, 바넷 씨! 불필요한 복잡함이라니요!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잃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넷, 제 원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사물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받아들입시다. 굳이 선입견에 맞춰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가두 부부네 집으로 가는 길목, 르보 씨의 집 옆을 지나고 있었다. 포르메리 씨는 바넷의 팔을 끼며 심리학 강의, 아니 형사 심리 수업의 일부를 계속했다.

“바넷 씨,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요.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레보크 씨는 창가

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니, 그 순간 샤미에르에서 살인을 저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레보크 씨가 우리 뒤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에 십 보쯤 떨어진 곳에 그의 집 철문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레보크 씨가 동시에 우리 뒤에 있고 창가에 있을 수 있다는 기적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형사 재판관 포르메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악의 외침을 터뜨렸다.

“무슨 일이십니까?” 베슈가 물었다.

포르메리가 집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켰다.

“저기…… 저기……”

철창 너머, 잔디밭 반대편에서 스무 미터쯤 떨어진 곳. 열린 창문 배경으로 파이프를 피우며 앉아 있는 르보 씨가 보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르보 씨는 실제로는 바로 그 근처, 인도에 서 있는 무리 곁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끔찍한 광경이었다. 환각일까, 무서운 유령일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똑같은 얼굴. 저쪽에서 진짜 르보 씨를 팔짱 끼고 붙잡고 있는 포메리 씨와 함께 연기하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베슈가 철문을 열고 달리기 시작했다. 포메리 씨도 레보 씨의 악마 같은 초상화 쪽으로 돌진했다. 그는 그 그림을 향해 소리쳤고, 위협까지 했다.

하지만 그 초상화는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찌 동요하겠으며, 어찌 움직이겠는가.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가 확인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림일 뿐이었다. 창문 틈에 딱 맞게 채워진 한 점의 캔버스였다.

그 위에는 깊이감 있게 그려져 있었다. 같은 붓질로, 분명히 같은 화가가 그린 것이었다. 샤미에르의 바셰르 씨 초상화와 같은 손길로, 레보 씨가 파이프를 피우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다.

포메리 씨가 돌아섰다. 곁에는 미소 띤, 평온하고 흥조가 돈 레보 씨가 있었다. 그는 뜻밖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울면서 어리석게도 자백하고 있었다.

“미친 듯이 화가 났어요… 실수로 때린 거예요. 그와 절반씩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정신을 잃고… 실수로 때렸어요…”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짐 바넷트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악의적이며 거친 어조로 울려 퍼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판사 각하? 당신의 protégé인 레보크가 정말 재미있는 놈이군요. 알리바이 준비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보셨습니까?

매일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멀리서 진짜 레보크를 본 줄 믿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첫날부터 의심을 했습니다. 보셔라, 화가 보세렐이 캔버스에 그린 그림을요. 혹시 그 친구가 친구 레보크의 실루엣을 그렸을까요?”

“저는 금방 찾아냈습니다. 레보크가 우리 같은 바보들이 그의 속임을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너무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캔버스는 창고 구석, 사용하지 않는 도구 더미 밑에 말려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못박은 건, 그가 소환장에 응하러 가는 사이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가시죠? 샤미에르에서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집에서 파이프를 피울 수 있다는 사실어요.”

짐 바넷은 사나웠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불쌍한 포르메리 씨를 찢어 놓았다.

“정직한 사람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질렀을까! 그 카드 한 장을 두고 벌인 수작, 네 개의 구멍으로 네 명의 배신자를 표시한 그 기교라니! 그리고 다른 날 오후, 내가 쫓아갔던 그 굴뚝에다 숨겨둔 서적까지! 그리고 당신에게 보낸 익명 편지 말이지! 당신이 이 사건을 일으킨 게 바로 그 편지 때문이겠지, 검사님! 레보, 넌 그 깨끗해 보이는 노인의 얼굴로 나를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까불이더군!”

포르메리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참았다. 그는 레보 씨를 주시했다. 그러다 끝내 속삭였다.

“당연하지… 눈빛이 거짓투성이고, 태도가 너무 과하게 굴종하잖아. 정말 도적 같은 놈이야!”

갑작스러운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다.

“네, 도둑이야! 그리고 내가 작은 길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먼저 그 편지, 열네 번째 편지, 어디 있니?”

저항할 수 없었던 레보크 씨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방 왼쪽 벽에 걸어둔 파이프 속이에요… 이 파이프는 재를 털지 않았어요… 편지가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다. 베슈는 곧장 파이프를 찾아 재를 털었다. 하지만 파이프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편지는커녕 아무것도 없었다. 이 사실은 레보크 씨를 당황하게 했고, 포르메리 씨의 격분을 극에 달하게 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비열한 놈! 아, 네가 말할 거라는 건 확신해. 이 더러운 놈, 그 편지를 내놓을 거야!”

그러나 베슈와 바넷의 시선이 마주쳤다. 바넷이 미소 지었다. 베슈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바넷 협회가 ‘무료’라는 것을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수행하는지 깨달았다. 또한 짐 바넷이 고객에게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정당한

이유로 맹세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안락한 사립 탐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바넷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당신은 정말 교묘하군요. 아르센 뤼팽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바넷이 무심한 표정으로 물었다.

“편지 속임수 말입니다.”

“아, 눈치채셨군요?”

“물론이지.”

“무엇보다도, 저는 영국 왕들의 친필 수집을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삼 개월 후,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로브데일은 매우 격식 있는 신사의 방문을 받았다. 그 신사는 조지 왕의 연서 한 통을 구해 주겠다고 큰소쳤다.

그가 요구한 보수는 천만 프랑.

협상은 쉽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런던에서 가장 큰 식료품 상인인 형제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형제들은 처음에는 발버둥쳤고, 거절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양보했다.

그 격식 있는 신사는 천만 프랑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고급 식료품 한 열차 분량까지 가로챘다. 그 열차는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제3장

역에서 나온 지미 배넷은 베슈 형사를 만났다. 형사는 그의 팔을 잡더니 재빨리 데리고 갔다.

“시간을 아까워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언제든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상황이 뭔지 알면 더 큰 불행일 것 같군요.” 지미 배넷이 논리적으로 말했다. “당신의 전보만 받고 아무 정보 없이 왔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형사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건가요, 베슈?”

“항상 의심하고 있습니다, 배넷. 그리고 Barnett 흥신소 고객들의 계산을 처리하는 당신의 방식ைய요. 하지만 이번에는 소용없습니다, 내 친구. 이번엔 눈으로 보고 일해야 하니까요.”

짐 바넷이 입술을 찰싹 차며 소리를 냈다. 그 광경은 그를 괴롭히는 듯 보이지 않았다.

베슈는 의아한 듯 그를 흘겨보았다. 이미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속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 자식아, 네 도움 같은 거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은 마당으로 들어섰다. 한쪽 구석에는 주인을 모시는 고급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넷은 차 안에서 극적인 얼굴을 한 한 여자를 보았다. 그녀의 창백함은 놀라울 정도였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입술은 불안에 떨며 굳어 있었다. 그녀는 곧장 차 문을 열었고, 베슈가 두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짐 바넷입니다. 여보시게, 제가 당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푸제레 부인입니다. 곧 기소될 예정인 푸제레 기술자의 아내입니다.”

“무슨 죄로요?”

“살인죄입니다.”

짐 바넷이 혀를 차며 작은 소리를 냈다. 베슈는 경악했다.

“바넷 친구를 용서해 주시오, 마담. 일이 클수록 그는 더 여유가 생기는 법이요.”

자동차는 이미 루앙의 부두 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왼쪽으로 꺾어 넓은 집 앞까지 이르러 멈췄다. 그곳 3층은 노르망디 센터의 사무실로 쓰이고 있었다.

“바로 여기요.” 베슈가 말했다. “루앙과 그 주변의 큰 상인들과 공장 주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수요일마다 모여 신문을 읽고, 브리지를 하거나 포커를 즐기곤 합니다. 특히 금요일은 증시 날이라 더 붐비죠. 정오 전에는 청소부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 여기서 벌어진 사건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수 있겠소.”

건물 정면에는 세 개의 큰 방이 이어져 있었다. 방은 안락한 가구로 차려졌고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다.

세 번째 방은 훨씬 작은 원형의 방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창문이 하나뿐이었지만, 넓은 발코니로 통했다. 발코니에서는 센 강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다. 푸제라이 경은 조금 떨어진 창가 근처에 앉았고, 베쿠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몇 주 전,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서클 회원 네 명이 든든하게 저녁을 먹고 포커를 시작했죠. 이들은 마로름에 사는 네 명의 친구이자, 루앙 근처에 공장이 모여 있는 공업 도시의 주요 섬유 상인이었습니다. 세 명은 기혼에 자녀가 있었고 훈장을 달고 있었죠. 알프레드 오바르, 라울 뒤팡, 루이 바티네가 그들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미혼이고 더 젊은 맥심 뤼리에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울 무렵, 또 다른 젊은이 한 명이 합류했습니다. 폴 에르슈타인이라는 부유한 사내였죠. 그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는 부자였습니다. 다섯 명은 하나둘씩 빈 방을 남긴 채 바카라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폴 에르슈타인은 도박을 사랑하고 익숙한 사내였기에, 그는 은행을 맡았습니다.”

베슈는 테이블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들은 이 테이블에서 이 게임을 했어요. 초반에는 아주 평온한 게임이었죠. 그냥 심심해서, 별 생각 없이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폴 에르스타인이가 샴페인 병 두 개를 가져오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운은 은행가를 향해 기울기 시작했죠. 잔인하고 불공평하며, 짜증 나는 운이었어요. 폴 에르스타인이는 필요할 때마다 9를 뒤집어 내고, 적절한 순간에 ‘통나무’를 던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고, 공격을 더 강화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상식 밖의 행보가 결국 낳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오후 4시가 되자, 마로름의 산업가들은 루앙에서 가져온 모든 돈을 잃었어요. 그 돈은 바로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었던 거죠.

게다가 막심 토이에는 폴 에르스타인에게 구두 약속으로 8만 프랑을 더 진 상태였어요.”

베슈 형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다. 인정해야 할 사실이지만, 그 반전은 폴 에르스타인이 지나친 친절과 무사안일함으로 조장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거둔 총수익을 네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액수는 그가 공언한 손실액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그 네 덩어리를 다시 세 등분으로 갈라, 상대방들에게 마지막 세 부분을 제안했다.

개별적으로 보면, 세 뭉치 각각에 대해 전액 걸거나 모두 잃거나, 즉 ‘quitte ou double’의 상태였다. 그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폴 에르스타인은 세 번 모두 졌다. 행운이 돌아선 것이다. 온 밤을 싸우며 고군분투한 끝에, 더 이상 승자도 패자도 남지 않았다.”

“좋아, 내가 나가볼게.” 폴 에르스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좀 창피하긴 했지만,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 발코니에서 담배 한 대 피울 사람 없나?”

그는 로통드로 나갔다. 몇 분 동안 네 친구는 테이블을 둘러싸고, 끝난 경기를 둘러싼 소동들을 가볍게 수다 떨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드디어 떠날 결심을 했다. 두 번째 방과 첫 번째 방을 지나며, 현관에서 졸고 있던 하인에게 알렸다.

“에르스타인 씨가 아직 계십니다, 요제프. 하지만 곧 떠나실 거예요.”

그들은 정확히 오후 네 시 삼십오 분에 밖으로 나왔다. 알프레드 오바르의 차가 그들을 태워 주었다. 금요일 저녁마다 그랬듯, 마로름으로 돌아갔다. 한편 하인 조셉은 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 그러자 밤새 서

있는 게 지친 그는 폴 에르슈타인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는 회전식 문 안의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몸을 비틀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베크수 형사는 잠시 멈춰 섰다. 무게라이 씨는 고개를 숙였다. 짐 바넷은 형사와 함께 외딴 곳으로 가서, 시신을 살피며 말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소?”

“그곳에 있던 네 사람이 한 설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수할 수 없었소?”

“아니요. 두 사람의 증언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들은 저명한 산업계 인사들이며, 신중하고 말에 책임을 아는 분들입니다.”

“좋아. 이제 본론으로 가자, 베슈. 수사 결과가 뭐야?”

“수사 결과, 폴 에르스타인이 둔기로 관자놀이를 맞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는 단숨에 쓰러졌죠. 현장에는 싸움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폴 에르스타인의 시계가 오전 4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는 플레이어들이 떠난 지 20분 후의 시간입니다. 도난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반지도 지폐도 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격자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제가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격자는 현관 앞 복도를 통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단서 하나도 없단 말인가?” 바넷이 물었다.

베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단서 말입니다. 오후에 루앙의 제 동료가 판사에게 지적했습니다. 이 방의 발코니가 바로 옆 건물 3층 발코니와 아주 가깝다는 것이었죠. 검찰청 측에서 그 건물로 향했고, 3층에는 푸제라이 공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푸제라이 부인은 법관들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고, 그곳 발코니는 로타nda의 발코니와 바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보세요, 바넷.”

바넷이 다가가서 말했다.

“대략 1미터 20센티미터 정도입니다. 건너기 쉽죠. 하지만 실제로 건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맞아요.” 베슈가 단호하게 말했다.

“계단 난간을 따라 꽃을 심을 나무 상자들이 있죠. 지난여름 흙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요. 그 상자들을 모두 파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상자에서, 표면 바로 아래, 새로 뒤섞인 흙 층 밑에서 미국식 주먹봉을 찾아냈어요.”

“법의학자가 확인했죠. 피해자의 상처가 그 무기의 형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요. 금속에는 지문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그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증거만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루네트 안을 비추는 조명 아래에서 폴 에르슈타인을 본 푸제레 공학자가 발코니를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죄를 저지른 뒤 무기를 숨겼겠지요.”

“하지만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는 폴 에르슈타인을 알고 있었나요?”

“그럼요?”

베슈가 손짓했다. 푸제레 여사가 다가와 바넷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잠을 설쳐 주름진 눈꺼풀 아래로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답변은 제 몫입니다, 선생님. 몇 마디로 짧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공포가 이해되실 겁니다. 아니요, 제 남편은 폴 에르슈테인 씨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알고 있었죠. 저는 그와 파리에서 몇 번 만났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 집에서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곧장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아내로서의 의무에 대한 강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폴 에르슈테인에게 끌리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가 여러 차례 주변, 특히 시골에서 만나자고 할 때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그리고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 그리고 그 편지는 그의 가족 손에 들어갔습니까?

— 그의 아버지 손에 들어갔습니다.

—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무엇이든 간에 아들을 갇아주려 합니다.
이 편지를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당신을 위협합니까?”

“네. 그 편지들은 우리 관계가 순결했음을 증명하죠. 하지만 결국 그건 제가 남편 밖에서 그를 만났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중 한 통에는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파울, 제발 이성적이 되어 주세요. 남편은 극도로 질투심이 강하고 폭력적이에요. 제 무분별함을 눈치챌다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고요.’”

그녀가 물었다.

“그러면 이 편지는 검찰에게 새로운 힘을 실어주지 않나요? 질투, 그것이 바로 찾고 있던 동기이자, 남편 방 바로 앞에서 살인 사건의 용의가 된 총이 발견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나요?”

“하지만 당신, 푸제레 씨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전혀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분이 무죄라고 생각되나요?”

“물론이죠!” 그녀가 열정을 담아 말했다.

바넷은 그 여자의 눈동자 깊숙이까지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여자의 확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만약 그 확신이 베슈에게 닿는다면, 그는 비록 사실이 그러하고 검찰의 의견이 그러하며 전문적인 비

밀유지 의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도와주려 할 것이라는 점을.

바넷은 몇 가지 더 질문을 던졌다.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뒤, 그는 결론을 내렸다.

“저는 당신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당신의 남편이 유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논리를 무너뜨려 보겠습니다.”

“제 남편을 만나보십시오. 간청합니다. 그의 설명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용없습니다, 마담. 제 도움이 의미가 있으려면, 제가 처음부터 당신의 남편을 용의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모든 노력을 당신의 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대화는 끝이 났다. 바넷은 주저 없이 싸움을 시작했다. 그는 베슈 형사를 동반하고 피해자의 아버지 댁을 방문했다. 그는 주저 없이 이렇게 말했다.

“에르슈테인 씨, 푸제라이 씨가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당신은 아들에게 쓴 편지를 검찰에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오늘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희생시키며, 그녀를 망치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여자의 남편이 제 아들을 죽였다면, 저는 그녀를 위해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복수될 것입니다.”

“다섯 날만 기다려 주십시오, 선생님. 다음 화요일, 살인자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 사흘 동안 짐 바넷은 형사 베슈를 당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는 평소와 다른 행보를 보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행동을 하도록 지시했다. 여러 하급 직원들을 동원해 조사를 벌이고,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없었다. 평소와 달리 말이 없고, 기분이 나빠 보였다.

화요일 아침, 그는 푸제르 씨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베슈가 검찰청의 허락을 받아 오늘 저녁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기로 했소. 당신의 남편이 소환될 거요. 당신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차분하게, 거의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속삭였다.

“기대를 가져도 될까요?...”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당신의 확신’에 기반해, 즉 푸제라 씨의 무죄를 믿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저는 가능한 가설 하나를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제가 진실을 찾아냈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진실이 도망갈 수도 있겠죠? 베쿠, 그렇지 않습니까?”

공판 검사장과 수사 판사는 수사를 이어받은 유능한 법관들이었다. 그들은 오직 사실에만 의존했고, 사건을 정해놓고 사실을 해석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자들과는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바넷.” 베슈 형사가 말했다. “당신이 쉽게 비꿈을 날릴 일도 없을 테니까. 그들은 저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아주 친절하게도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뜻대로 하라고 했죠. 그 점 잊지 마십시오.”

“베슈 형사,” 바넷이 반박했다. “저는 승리가 확실할 때만 비꿈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요.”

제3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법관들은 로통드 입구 근처에서 수군거렸다. 그들은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

산업가들은 한곳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들과 수사관들이 오가며 분주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에르슈테인 씨는 혼자 떨어져 서 있었고, 하인 조제프도 그 곁에 있었다.

푸제라 부부는 한 구석에 서 있었다. 남편은 어두운 표정으로 불안해했고, 아내는 평소보다 더 창백했다.

엔지니어의 체포가 이미 결정났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관 중 한 명이 네 명의 플레이어를 향해 말했다.

“선생님들, 이번에는 금요일 밤의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탁자 주변으로 자리를 다시 잡으시고, 그때의 바카라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려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슈 형사, 폴 에르슈틴 씨가 그랬던 것처럼 은행을 맡아 주시오. 그날 가지고 왔던 지폐와 같은 수량을 모두 가져왔습니까?”

베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는 탁자 한가운데에 앉았다. 알프레 오바르와 라울 뒤팽이 그의 왼쪽에, 루이 바티네와 막심 투이리에가 오른쪽에 자리 잡았다. 탁자 위에는 카드 덱 여섯 벌이 놓여 있었다. 베슈가 카드를 섞고 나누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비극적인 그 밤과 똑같이, 운은 은행 쪽에 기울었다. 은행가 폴 에르슈타인만큼이나 쉽게, 은행가 베슈도 이겼다.

그가 8이나 9을 내자, 두 판의 나무조각들이 규칙적으로 번갈아 떨어졌다. 한 번의 행운이 끈질기게 이어진 듯했다. 첫 번째 국면에서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일은 없었다.

이렇게 기계적인 연속성은 마술 때문인 듯했다. 플레이어들이 이미 겪었던 충격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당혹스럽게 느껴졌다. 당황한 막심 투이리에 실수까지 두 번이나 했다. 짐 배넷은 화가 치밀어 올랐고, 권위를 내세워 베슈의 오른쪽 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십 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사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친구들이 지갑에서 꺼낸 지폐의 절반 이상이 베크슈 앞의 초록색 테이블을 가득 메웠다. 막심 투이에는 짐 배넷을 통해 말로만 해도 이미 패배하기 시작했다. 역시나, 그 비극적인 밤에 일어났던 일의 정확한 반복이었다.

게임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한창 절정의 순간이 찾아왔다. 그리고 갑자기 베크슈는 폴 에르슈타인처럼 자신의 이득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각자의 손실액에 비례하게 세 묶음의 지폐를 내놓았다. 이는 마지막 승부를 건 'quitte ou double(전액 걸기)' 제안이었다.

상대방들은 그를 주시했다. 비극적인 그 밤의 기억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크슈는 세 번이나 두 개의 패를 내밀었다.

세 번이나 그랬다. 폴 에르슈타인이 패배한 것과 정반대로, 베슈가 이겼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당혹감이 일었다. 기적적인 연승이 끝까지 이어지려면 운이 바뀌어야 했는데, 왜 하필이면 은행을 맡은 자에게만 운이 따랐을까?

만약 우리가 익숙한 현실을 벗어나 다른 차원의 진실로 들어선 것이라면, 그 새로운 버전이 바로 맞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이 반전이 Barnett과 베슈가 꾸민 술수였을까? 다섯 명의 선수들이 벌인 진짜 승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었을까?

베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폴 에르슈타인이 일어났을 때와 똑같은 동작이었다.

승자 은행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듯, 그는 지폐 뭉치 네 묶음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폴 에르슈타인과 마찬가지로 두통을 호소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어 발코니로 나갔다.

로타nda의 문 너머로 멀리서 그를 볼 수 있었다.

나머지 네 사람은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얼굴이 굳어가고 있었다. 아우바르, 뒤팽, 바티네…… 그리고 막심 뤼이리에 자리를 대신한 짐 바넷까지.

그리고 짐 바넷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얼굴과 몸매를, 막 게임에서 제외하고 자리를 대신하게 된 막심 투이리의 모습 그대로 바꿔냈을까?

막심 투이리는 서른 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재킷을 꼭 조여 입고, 턱은 면도한 상태였으며, 코 위에는 금테 안경을 걸쳤다. 병약하고 불안한 인상이었다.

짐 바넷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는 로봇처럼 느린 걸음으로 로타yh드로 다가가며, 때로는 단호하고 용감한 표정을, 때로는 주저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아마도 끔찍한 행위를 저지를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직 행하기 전에 도망쳐 버릴지도 모르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담은 표정이었다.

선수들은 그와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판사들은 그를 보았다. 그들은 짐 바넷, 즉 그들의 힘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통역사의 존재는 잊은 채, 오직 막대한 빚을 지고 있는 선수 막심 투이리에만 집중했다.

투이리는 승리를 거둔 상대를 따라갔고, 그 상대는 다시 파울 에르 슈타인을 찾았다. 곧 네 다발의 지폐를 든 자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가 그토록 쫓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자신의 표정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마음속의 혼란은 얼굴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다. 그는 기도할 것인가, 명령할 것인가, 아니면 위협할 것인가.

그가 로톤드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평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가 문을 닫았다.

드라마의 재연은 상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재구성된 것인지. 어쨌든 그 장면은 생생하기 그지없었다. 모두들 침묵을 지키며 기다렸다.

나머지 세 명의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시선은 닫힌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문 뒤에서, 비극적인 저녁에 벌어졌던 일들이 재현되고 있었다.

문 뒤에는 살인자와 희생자 역할을 맡은 바넷과 베슈가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마크심 루이와 폴 에르슈타인이 마주 서 있었다.

그리고 몇 분의 긴 침묵이 흐른 뒤, 살인자가 로타nda(원형 구조물) 밖으로 나섰다. 그에게 다른 호칭이 가능했을까? 그는 정말로 막시미 튀이리에 틀림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눈빛은 황홀한 듯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친구들 쪽으로 돌아섰다. 손에는 네 몽치의 돈이 쥐여 있었다. 그는 그중 한 몽치를 테이블 위에 던져 놓고, 나머지 세 몽치를 세 플레이어의 주머니에 억지로 밀어넣으며 말했다.

“방금 전 제가 설명을 나눈 폴 에르스타인 씨가 이 돈을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는 이 돈을 원치 않습니다. 함께 떠나시죠.”

그 장면은 막을 내리고 있었다. 짐 바넷은 몸을 일으켰고, 다시 짐 바넷으로 돌아왔다. 불과 네 발자국 떨어진 곳, 진짜 막시미 튀이리는 창백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서 있었다. 짐 바넷이 그에게 말했다.

“사실 그대로죠, 튀리에 씨. 그 장면을 핵심 부분까지 그대로 재현한 거 맞습니까? 제가 다른 밤에 당신이 했던 역할을 그대로 연기한 건가요? 그 범죄, 당신의 범죄를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다는 말씀이죠?”

튀리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듯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팔을 축 늘어뜨린 채, 그는 마치 바람 한 점에도 쓰러질 것 같은 인형처럼 보였다. 그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고, 무릎이 풀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바넷이 그에게 덤벼들며 목덜미를 잡아챘다.

“인정하겠지, 그렇지? 다른 해석은 불가능해. 내가 모든 증거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미식가드의 주먹 같은 거요? 당신이 항상 지니고 다녔다는 걸 내가 증명할 수 있어.”

“게다가 당신의 게임에서의 패배는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었어. 그 래, 내 조사를 통해 당신이 재정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지. 월말의 지급일이 다가올 때마다 돈이 없었어. 파산 직전이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때렸어. 그리고 무엇을 할지 몰라 그 무언가를 발코니를 넘어 던졌고, 땅속에 묻었지.”

바넷이 애쓸 필요는 없었다. 막시무스 튀리예가 저항할 기색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너무 무거운 죄의 무게에 눌려 있었다. 그 짐을 수주 동안이나 짊어지고 있던 터라, 그는 의식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진 임종자가 헛소리를 하듯, 자백이라는 무서운 말을 뱉어냈다.

방 안은 소란으로 가득 찼다. 심판관은 범인 위에 몸을 기울이며 자백을 기록했다. 폴 에르슈테인의 아버지는 살인자에게 달려들려 했다. 공학자 푸제레는 분노를 외쳤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격분한 이들은 막시무스 튀리예의 친구들이었다. 특히 그중 가장 연로하고 명망 높은 알프레드 오바르드가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너는 정말 비열한 놈이야! 그 불쌍한 자가 우리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속였고, 그 돈은 네가 살인까지 저지르고서 훔친 거잖아.”

그는 지폐 더미를 막시무스 튀리예 향해 던졌다. 다른 두 사람도 분노에 찬 나머지, 자신들이 혐오하던 그 돈을 발로 구르기 시작했다.

조금씩 평정이 돌아왔다. 막시무스 튀리예는 의식을 잃을 듯이 신음하며 다른 방으로 끌려갔다. 한 형사가 지폐 더미를 주위 검사들에게 건넸다. 검사들은 푸제레 부부와 폴 에르슈타인의 아버지를 물러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짐 바넷의 통찰력을 치하했다.

“이 모든 것, 즉 막심 투이리에의 몰락은 드라마의 평범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사건 사고로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신비로움과 독창성을 지닌 드라마처럼 보이는 이유는 전혀 다른 데서 비롯됩니다. 비록 제가 이 일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허락하신다면...”

짐 바넷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세 명의 산업자들과 마주 보며 돌아섰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바르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알프레드 오바르가 물었다.

“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친구들이 이 일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역할은 아니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불길한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아침부터 당신은 바카라 게임이 당신에게 유리한 세 번의 승부로 끝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승리로 인해 당신의 손실은 상쇄되었고, 덕분에 당신은 평온하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진술은 사실과 모순됩니다.”

오바르 씨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다.

“사실 거기엔 오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세 판은 오히려 우리의 손실을 불렀을 뿐입니다.”

폴 에르슈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마치 모든 것을 완벽히掌控한 듯 보이던 막심은 그를 따라 로통데로 나가 담배를 피우러 갔습니다. 우리 셋은 그대로 남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일곱여덟 분쯤 뒤에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폴 에르슈타인이 이 게임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으며, 샴페인 기운에 휩싸여 벌인 가짜 게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었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이 일에 대해 이야기가 오간다면, 게임의 마지막은 우리가 입은 손실을 정확히 상쇄하는 것이라고 간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다니!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을 말입니다!” Barnett이 외쳤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Paul Erstein에게 감사의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게다가 Erstein이 숙련된 도박꾼으로서, 승리와 패배 모두에 익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운이 계속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불일치입니다!”

“그건 새벽 네 시쯤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머리가 혼란스러웠죠. Maxime Tuillier는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가 살인과 강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니, 왜 그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음 날, Paul Erstein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떠난 후에 살해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건 그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Maxime Tuillier를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어떤 권리로요? 그건 우리 측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 친구였고, 저는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말 확신하시나요?”

바넷은 즉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분이 불러일으켰던 ‘신뢰’라는 심리적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물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범죄는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저질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초기 수사는 곧장 외부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네 명의 부유한 산업가들은 모두 훈장을 받았고, 흠잡을

데 없는 명성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도덕성과 정직함의 텅어리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크스 위이엘이 폴 에르슈타인과 단 둘이 에카르테 게임을 했다면, 그는 의심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네 명이 함께 했으니깐요. 그 순간, 마크스는 세 친구의 침묵 덕분에 잠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인물 세 명이 공범이 될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직감했습니다.

알프레드 오바르가 벌떡 일어났다.

“당신 미쳤소! 공범이라니?”

“아니, 그건 아니지. 당신이 로타리에 들어가는 그의 뒤를 따라가던 폴 에르슈타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리 없었겠지. 하지만 그가 특별한 심정으로 그곳으로 향했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뭔가 일이 생겼다는 것도.”

“우린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 너 같은 비겁한 친구는 얼굴에 놀람과 광기의 자국 없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

“우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야.”

“왜?”

“그가 잃은 돈을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너희 세 명 다 부자잖아. 하지만 그 바카라 게임은 너희의 심리를 무너뜨렸어. 가끔씩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을 느끼거든.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돌아왔을 때, 친구가 어떻게 그 돈을 손에 넣었는지 묻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지. 너희는 침묵을 붙들고 떨어지지 않으려 애썼어. 그리고 다음 날, 그리고 그 이후의 날들, 범죄가 확인된 뒤에는 서로를 피했어. 서로의 마음을 알까 봐 너무 무서웠거든.”

“추측일 뿐이야!”

“확실합니다. 당신의 주변을 철저히 조사해서 얻은 결론이죠. 당신의 친구를 비난하는 것은, 곧 당신의 초기 실수를 폭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고, 당신을 오랫동안 지켜온 명예와 정직의 역사에 먹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스캔들이었죠. 그래서 당신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을 속이고, 당신의 친구 막시미를 사법으로부터 지켜낸 거죠.”

그 비난은 격렬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된 드라마는 극적인 긴장감을 더해 갔다. 오바르 씨는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짐 바넷은 뜻밖에도 그 기회를 더 이상 밀고 나가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진정하십시오, 선생님. 방금 전에 조작한 게임과 그 친구의 범죄 현장을 목격하게 만든 덕분에, 맥시프라는 친구를 완전히 무너뜨렸소. 하지만 당신에게도, 그리고 그 친구에게도 똑같이 증거가 없소. 당신들은 좌절하지 않을 사람들이니까요. 게다가 당신의 연루성은 모호하고 불분명하며, 시선이 잘 닿지 않는 어두운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죠. 그러니 걱정할 것은 없소. 다만…”

그는 대화 상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정면으로 마주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건 너무 편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침묵과 술수로 세 분은 스스로를 어둠에 감싸고, 그들 스스로도 그들 사이의 공범 관계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안 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친구 막심에게 폴 에르스타인을 로통다에서 쫓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더라면, 즉 여러분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했더라면, 폴 에르스타인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건 사법부의 몫입니다, 각하.”

짐 바넷은 모자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적들의 항의를 무시한 채, 심리 판사에게 말했다.

“푸제레 씨에게는 그의 남편을 구해주겠다고, 폴 에르스타인의 아버지에게는 범인을 밝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일은 끝났습니다. 제 임무는 완료되었습니다.”

법관들의 악수는 냉담했다. 바넷의 기소가 그들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고, 따라서 그들이 바넷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음은 자명했다.

복도에서 바넷은 가니마르 형사의 동료인 베통 형사를 만났다.

“제 세 명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요. 천만다행으로 그들은 명성과 재산을 두둑이 갖춘 대부호들이고, 사회의 기둥이죠.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제 추론의 날카로움뿐입니다. 진심으로, 사법부가 감히 ‘진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이 사건을 훌륭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요,” 베통이 동의했다.

“정직하게?”

“물론이죠. 당신이라면 길에서 손쉽게 지폐 뭉치를 거둬들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잠시 동안 저는 그런 점을 걱정했습니다.”

“형사 베슈, 나를 누구로 보시나요?” Barnett이 위엄 있게 말했다.

그는 베슈를 떠나 집 밖으로 나와, 이웃 건물의 Fougeraie 부부 집으로 향했다. 부부는 그를 열렬히 환영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Barnett은 여전히 위엄을 잃지 않고, 어떤 보상도 거절했다. 그는 Paul Erstein의 아버지를 방문했을 때도 같은 무사불사의 정신을 보였다.

“Barnett 흥신소는 무료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자 고결함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위해 일합니다.”

Jim Barnett은 호텔에서 계산을 마치고, 짐을 역으로 가져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Béchoux가 자신과 함께 파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그는 항구 쪽으로 길을 돌려 Cercle 건물의 안으로 들어
섰다. 1층에서 그는 멈춰 섰다. 형사가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급히 계단을 내려가다가 Barnett을 보고는 분노에 찬 목소리
로 외쳤다.

“아, 너 있네!”

그는 계단 몇 단을 한 번에 뛰어 내려가 Barnett의 재킷 깃을 잡아
챘다.

“지폐는 어떻게 했어?”

“어떤 지폐요?” Barnett은 무죄를 주장하며 반문했다.

“당신이 로통드에서 Maxime Tuillier 역할을 하던 때, 손에 쥐고
있던 지폐 말이야.”

“뭐라고요? 네 다발은 모두 돌려줬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도 저를 칭
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친애하는 친구여.”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전에는 몰랐어,” Béchoux가 소리쳤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지?”

“당신이 돌려준 지폐는 가짜였어.”

그리고 Béchoux의 분노가 폭발하며 그는 외쳤다.

“너는 그냥 도둑일 뿐이야! 아! 우리가 여기서 끝날 줄 알아? 진짜 지폐를 당장 돌려줘! 다른 건 위조지폐고, 너도 그걸 잘 알고 있지, 도둑놈!”

그의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는 전율을 일으킬 만큼 격분한 채 짐 바넷을 흔들었다. 바넷은 웃음을 터뜨리며 더듬거렸다.

“아, 이 도둑들… 그들의 수법에 놀랄 일은 아니군. 그러니까 막시메에게 던진 지폐들이 위조지폐였다는 말이야? 정말 개쌍놈들이다. 뭉치 돈은 들고 오면서 정작 지폐는 가짜로 가져오다니!”

“너는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베푸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돈은 희생자의 상속자들에게 속한 돈이야! 폴 에르슈타인이 번 돈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돌려줘야 해!”

바넷의 웃음은 더 이상 멈출 줄 몰랐다.

“아, 이건 정말 스캔들이다! 드디어 그들도 당했다!”

“네가 그랬지!” 베푸가 이를 갈며 말했다. “맞아, 네가 바꿨잖아… 네가 돈을 챙겼지… 찌꺼기야! 사기꾼!”

법관들이 서클을 나오자, 그들은 놀라운 흥분 상태로 목소리도 못 내며 팔을 휘두르는 베슈 형사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맞은편, 벽에 기대어 갈비뼈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는 짐 바넷이 있었다. 웃고 있었다. 계속 웃고 있었다.

제4장

짐 바넷이 사무실 입구를 가리던 창문 커튼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그는 터져 나오는 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에 다리가 풀려서 결국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하, 이건 정말 재미있군!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베슈가 나를 찾아오다니! 세상에, 너무 웃겨!”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소?” 베슈 형사가 도착하자마자 물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작은 감탄사를 터뜨리던 이 남자를 바라보며, 초라한 목소리로 반복해서 물었다.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다는 거요?”

“당신의 방문이요, 천만에! 루앙 서클 사건 이후에도, 당신이 여기서 나를 다시 찾다니. 대견하군, 베슈!”

베슈는 너무 당황한 표정이라 바넷은 참으려 애썼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웃음에 목이 메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미안해, 베슈 형님… 너무 웃겨!”

“그래, 그래서 뭐야. 너, 사법부의 정통 대표잖아. 또 새를 잡았네? 털어먹으러 온 거지? 백만장자? 아니면 장관?”

“너 참 친절하네. 나도 너처럼 해. 그날부터 너를 ‘너’라고 부르고 있어. 우리 둘이 친구 아닌가? 자, 그런 표정 짓지 마. 젖은 고양이 같은 얼굴 하지 말고. 자네 이야기 좀 해봐. 무슨 일이야?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건가?”

베슈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네, 파리 근교의 한 신부입니다.”

“그 신부가 누구를 죽였다고? 양 중 한 마리라도?”

“아니, 정반대야.”

“뭐라고? 그 양 중 한 명이 목사를 죽였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아니, 아니야… 그저…”

“이봐, 베슈! 오늘따라 말이 많네. 됐어. 말은 접고, 근처 그 훌륭한 신부님께 데려다줘. 너를 따라갈 준비는 언제나 돼 있어.”

바뉴이라는 작은 마을은 세 개의 언덕이 만든 골짜기와 경사면에 흠어져 있었다. 그 옛 로망스 양식 성당 주변은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성당 뒤편에는 아름다운 시골 묘지가 있었는데, 오른쪽에는 저택이 우뚝 선 큰 농장의 울타리가, 왼쪽에는 신부 집 담장이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베슈는 그 교구 사제의 식당에서 짐 바넷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를 데솔 신부에게 소개했다.

“이분은 불가능이라는 말을 모르는 형사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 같았다. 데솔 신부는 외모나 성격이나 모두 착한 사제였다. 살이 많이 찌서 통통하고, 얼굴은 붉고 윤기가 났다. 나이는 중년쯤 되어 보였다. 평소라면 평온하기 그없을 그 얼굴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서려 있었다.

바넷은 신부의 부어오른 손과 손목의 살찐 주름, 그리고 빛바랜 가난한 제복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뚱뚱한 배를 유심히 살피었다.

“신부님, 바넷이 말씀드립니다. 신부님의 고민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 친구인 베슈 형사가, 예전에 신부님을 아셨다 고만 말씀하셨을 뿐이죠. 이제부터라도 불필요한 디테일에 얽매이지 않고, 핵심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데솔 신부는 이미 자신의 이야기를 준비해 둔 듯했다. 망설임 없이, 즉석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턱 밑의 주름에서 우렁차고 깊은 바리톤 음성을 끌어올리며 말을 시작했다.

“바넷 씨, 이 작은 교회의 신부들은 동시에 한 가지 종교적 보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보물은 18세기, 바뇌이 성의 영주들이 우리 교회에 기증한 것이지요. 금으로 만든 두 개의 성체현양대, 두 개의 십자가, 촛대 하나, 그리고 성막. 모두 여덟 점의 귀중한 유물입니다. 아, 제가 잘못 말했군요. ‘있었습니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전에는 이 일대 이십 리 밖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데슬 신부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요, 이 경계 임무가 늘 위험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계를 서면서도 경계심과 두려움이 반반이었죠.

지금 이 창문으로 내다보시면 교회 본당 뒤쪽과 두꺼운 벽으로 된 성물고가 보입니다. 그곳에 성물들이 보관되어 있죠. 성물실에는 단단한 참나무로 만든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은 제단 주변으로 통합니다.

그 문 열쇠는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 금고 열쇠도 저 혼자만 가지고 있죠. 방문객을 안내하는 일도 저만 담당합니다.

매밤마다요. 제 방 창문은 성물실 천장에 있는 작은 창문에서 불과 15미터도 떨어지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남들이 모르게 방울이 달린 밧줄을 설치해 뒀습니다. 누군가 침입을 시도하면 방울 소리로 깨어나도록 말이죠.

게다가 저는 매일 밤 가장 귀중한 보물인 보석으로 장식된 성유물을 제 방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데솔 신부는 두 번째로 이마의 땀을 손수건으로 닦았다. 비극적인 사건이 unfolding될수록 이마에는 땀방울이 점점 더 굵어지고 많아졌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시쯤 되었을 때, 제게는 종소리 같은 소리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마루바닥에 떨어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수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어둠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성유물함이 떠올랐습니다. 도둑맞은 것은 아닌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대꾸는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 내 앞이나 옆에 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창문을 넘어 들어왔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밖에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더듬어 전등불을 집어 들었다. 팔을 들어 올리며 불을 켜 순간, 나는 단 한 번의 스쳐 지나가는 형상을 보았다. 회색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갈색 칼라가 세워진 옷을 입은 얼굴이었다. 그 얼굴은 찌푸린 표정이었고,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그 입안, 왼쪽에는 금니 두 개가 또렷이 보였다.

순간, 그 남자가 내 팔을 강하게 후렷했다. 전등불이 손에서 떨어졌다. 나는 그를 향해 돌진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내가 제자리에서 몸을 돌렸던 걸까?

어쨌든 나는 창문과 정반대편 벽에 있는 벽난로의 대리석에 부딪혔다. 성냥을 찾아 켜고 보니, 내 방은 이미 비어 있었다.

발코니 난간에는 사다리가 기대어 있었다. 그 사다리는 내 창고 밑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유물함은 더 이상 숨겨진 곳에 없었다.

서둘러 옷을 입은 나는 성당 사무실로 달려갔다. 보물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드레슬 신부는 세 번째로 이마의 땀을 훔쳤다.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땀방울이 폭포수처럼 줄줄 흐르고 있었다.

“당연히, 바넷이 말했다. ‘그 작은 창문은 깨졌고, 경비용 끈도 끊겼겠군요. 이는 범인이 이 곳 사정과 당신의 생활 패턴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 신부님은 범인을 쫓아나셨습니까?’”

“더 나쁜 짓은 도둑이라고 소리친 거야. 그건 후회했지. 상사들은 소동을 싫어하니까, 이 사건으로 벌어질 소문에 대해 나를 나무랐거든. 다행히 내 옆집 사람만 내 외침을 들었어. 묘지 건너편 농장을 스무 해째 직접 경영해 온 그라비에르 남작도 내 의견에 동의했지.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기 전에, 먼저 도난당한 물건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이야. 그는 차가 있었으니, 나는 그에게 파리에 가서 베슈 형사를 불러오라고 부탁했지.”

“그리고 저는 아침 여덟 시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베슈가 자신만만하게 어깨를 펴며 말했다. “열 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죠.”

“뭐라고? 네가 범인을 잡았다고?” Barnett이 놀라며 외쳤다.

베슈가 장엄한 제스처로 천장을 가리켰다.

“그 위, 다락방에 가두어 놓고, 그라비에르 남작이 지키고 있더군.”

“헛! 명수다. 빨리 말해 봐, 베슈. 간절하게!”

“간단한 보고서일 뿐입니다.” 형사는 칭찬을 갈구하며 말했다. 그는 거의 ‘원시어’에 가까운 말투로 보고를 시작했다.

“1. 교회와 사제관에서 습한 바닥에 발자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 발자국 분석 결과, 범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귀중품을 어느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옮긴 뒤, 다시 사제관으로 돌아와 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3. 이후 그는 다시 약탈품을 거두어 들고 큰길을 따라 도망쳤습니다. 히폴리트 여관 근처에서 발자국은 끊깁니다.”

“그럼 즉시, 바넷이 말했다. ‘여관 주인을 심문했겠군...’”

베슈가 말을 이었다.

“여관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회색 모자에 갈색 코트를 입은 남자, 이가 금으로 된 두 개? 그건 바로 바늘 영업사원인 베르니송 씨입니다. 매년 3월 4일 이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사트마르’라고 부르죠. 어제 정오에 말의 천천한 걸음으로 도착해 마차를 말구간에 넣고 점심을 먹은 뒤, 고객들을 돌보러 나갔습니다.’”

“그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매번 그렇듯 새벽 두 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떠났습니까?”

“사십 분 전, 샹티이 방면으로요.”

“그런데 바넷이 말했다. “그래서 너는 그를 쫓아갔지?”

“남작이 저를 운전하는 차를 몰고 갔습니다. 우리는 베르니송 씨를 따라잡았고, 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말의 고삐를 돌려 세웠습니다.”

“아, 자백은 안 하는군요?” 바넷이 물었다.

“반쯤은 합니다. ‘제 아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내한테는 알리지 마십시오……’라고만 하더군요.”

“그런데 보물은요?”

“차의 트렁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증거는 확실한가요?”

“물론이지요. 그의 신발 자국이 묘지의 발자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게다가 교구 신부님도 오후 늦게 묘지에서 그 남자를 만났다고 단언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 문제 삼는 건가요? 왜 저를 불러모은 거죠?”

“그건 신부님 사정이지요……” 베슈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린 부수적인 문제 하나를 두고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부수적이라니…… 당신이 그렇게 말하죠.” 물에 젖은 손수건처럼 축 처진 표정의 데솔 신부가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신부님?” 바넷이 물었다.

“자, 그런 겁니다.” 데솔 신부가 말했다. “그건… 금니와 관련된 일입니다.”

“금니라니요?”

“베르니송 씨에게 금니가 두 개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 치아들이 오른쪽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본 것은 왼쪽에 있었거든요.”

짐 바넷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데솔 신부는 당황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바넷이 외쳤다.

“오른쪽? 이건 대참사입니다. 정말 실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를 만나셨다는 말씀이군요?”

“묘지에서요. 분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그 사람이 맞을 수 없었습니다. 금니가 왼쪽에 있어야 하는데, 그 치아들은 오른쪽에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방향을 바꾼 게 아닐까요.” Barnett은 더 크게 웃으며 말했다. “Béchoux, 그 인간을 데려오시오.”

두 분 후, 비참한 모습으로 Vernisson이 들어왔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처진 수염에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견고한 체격에 어깨가 넓은 귀족 Baron de Gravières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손목에 권총을 차고 있었다.

곧바로 Vernisson은 어리둥절해하며 신음하기 시작했다.

“이 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귀중품, 부서진 자물쇠라니… 대체 무슨 뜻인가요?”

“수근거리지 말고 시인하십시오.” Béchoux가 명령했다.

“무엇이든 시인하겠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아라스 근처 우리 집으로 가야 합니다.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공포가 그의 입을 비틀어놓았다. 입술이 뼈죽 벌어지며 금속 이빨 두 개가 드러났다. 짐 바넷이 다가가 손가락 두 개를 그 틈새에 집어넣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른쪽 이빨이죠. 그리고 신부님은 왼쪽 이빨을 보셨다고 하셨으니깐요.”

베슈 형사는 화가 난 상태였다.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도둑을 잡았습니다. 수년 동안 이 마을에 와서 계획을 세운 자가 바로 그놈입니다. 맞아요. 신부님은 잘못 보셨을 뿐이죠.”

데솔 신부는 장엄하게 팔을 벌렸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말하건대, 이빨은 왼쪽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자, 싸움은 그만합시다.” 바넷이 두 사람을 따로 불러내며 말했다.
“결국 신부님은 무엇을 원하시죠?”

“저에게 확실한 해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요. 저는 당초부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즉, 이 사안을 사법부에 넘긴 것이죠. 만약 그 남자가 무죄라면, 우리가 그를 억류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공격자의 금니는 왼쪽에 있었어요.”

“오른쪽입니다!” 베슈가 외쳤다.

“왼쪽입니다!” 신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어느 쪽도 아닙니다.” Barnett이 크게 웃으며 선언했다. “신부님, 내일 아침 아홉 시에 이 곳에서 용자를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남자가 직접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요. 밤새신 부님은 이 안락의자에, 남작님은 저 안락의자에, 그리고 베르니송 씨는 여기에 묶어두겠습니다. 여덟 시 사십오 분에 나를 깨워주시오, 베슈. 구운 빵과 초콜릿, 삶은 계란 등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게.”

저녁 무렵, 짐 바넷의 그림자가 마을 곳곳에 나타났다. 그는 묘지 묘비를 하나하나 살피고, 신부님의 방을 찾아갔다. 우체국에서는 전화를 걸었고, 이폴트 여관에서는 주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는 길 위를 거닐고, 들판을 누볐다.

그가 돌아온 때는 새벽 두 시나 되어 있었다.

바론과 가니마르 형사는 금니 남자의 양옆에 붙어 코를 골고 있었다. 서로의 코골이 소리를 더 크게 내며 이기려든 듯했다. 바네트를 본 베르니송 씨는 비명을 지르듯 중얼거렸다.

“제 아내한테는 알리지 마십시오……”

짐 바넷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곧바로 잠들어 버렸다.

8시 45분, 베슈가 그를 깨웠다.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바넷은 토스트 네 장과 초콜릿, 계란을 거뜰히 먹어 치우고는 청중들을 둘레에 앉혔다.

“목사님, 약속한 시간입니다. 약속을 지켰죠.”

그가 베슈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 베슈. 너는 보자. 모든 전문적인 수법, 지문이나 담배꽂초 같은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명쾌한 이성과 직관,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즉각적인 단서 앞에서는 아무런 무게도 못 가져.”

“먼저 버니송 씨부터 시작하지.”

“아무 일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십시오.”

버니송 씨는 잠 못 이루고 초조해 얼굴이 일그러진 채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짐 바넷이 입을 열었다.

“18년 전, 이미 핀 공장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알렉상드르 베르니송은 바뉴이에서 재봉사 앙젤리크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서로 첫눈에 반했죠.

베르니송 씨는 몇 주간의 휴가를 받아 앙젤리크를 구애했고, 결국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앙젤리크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를 보살

피며 행복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해 후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르니송 씨는 그녀의 죽음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온순하지 못하고 질투심 강한 오노리느라는 소녀의 유혹에 넘어가 그녀와 결혼했지만, 앙젤리크에 대한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오노리느는 그가 과거에 가졌던 연애 관계를 하나도 모를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그를 괴롭히며, 과거의 연애사 전체를 들추어내며 그를 탓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르니송 씨가 바뉴이로 떠나는, 감동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순례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르니송 씨, 제가 말한 내용과 맞습니까?”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하죠. 다만 ……”

짐 배트넷이 말을 이었다.

“매년 베르니송 씨는 카브리올레를 타고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오노리느 아줌마가 모르게 하기 위해, 바뉴이를 들르는 거죠. 그는 앙젤리크의 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가 죽은 날, 그녀가 묻혀 달라고 부탁한 그 묘지에서요. 두 사람이 처음 마주했던 곳도 거닐며 산책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각에 여관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작은 십자가가 하나 있습니다. 묘비에 적힌 글귀가 베르니송 씨의 습관을 알려주었죠.”

“지금 왜 베르니송 씨가 그 사건을 아내가 알게 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아시겠지요. 화가 많은 베르니송 부인이, 사랑하던 아내의 잘못으로 남편이 도둑질嫌疑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베르니송 씨는 묘비에 새겨진 글귀가 요구하듯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아내의 보복을 상상하며 미리부터 울고 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그의 관심 밖에 있었다.

베슈, 그라비에르 남작, 그리고 데솔 신부는 열정적인 관심으로 그들을 경청하고 있었다.

“이제 하나 해결했군요.” Barnett이 계속 말했다. “베르니송 신부가 바뉴이에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이유 말입니다. 이 해답은 자연스럽게 ‘보물’ 수수께끼를 풀게 해줍니다. 두 사실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토록 막대한 보물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탐욕을 부추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흠치려는 마음이 많은 방문객이나 현지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싹트기 마련입니다. 신부가 세심한 경계로 인해 도난은 어렵지만, 경계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년간 현장을 관찰하고 계획을 세우며, 오해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니까요. 핵심은 바로 ‘의심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

고 의심받지 않으려면, 다른 이에게 혐의를 돌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 남자를 보세요. 매달 정해진 날에 묘지로 몰래 찾아와 숨어 지냅니다. 그의 수상한 습관은 가장 먼저 의심을 사는 데 딱입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음모가 꾸려집니다. 회색 모자, 갈색 코트, 신발 자국, 금니까지. 모든 단서가 철저히 기록됩니다. 범인은 이 미지의 인물로 낙인찍히고, 진정한 도둑은 그림자 속에서, 아마도 사제관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해를 거듭하며 자신의 음모를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넷은 잠시 침묵했다. 진리의 단서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다. 베르니송 씨는 이제야 피해자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바넷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베르니송 씨는 당신의 순례를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베르니송 씨, 지난 이틀 동안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던 점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카브리올레를 뒤져서 서랍 속 이중 바닥에 숨겨둔 앙젤리크 부인의 편지와 당신의 사적인 고백을 찾아낸 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베르니송 씨,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베르니송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베슈가 항의했다. 이런 결말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말해 봐, 베슈.”

“그럼 금니는요?” 가니마르 형사가 외쳤다. “이 질문은 피할 수 없소. 신부님은 도둑의 입에 금니가 두 개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소. 그리고 베르니송 씨도 오른쪽에 금니가 하나 있소. 이건 확실한 사실이라고요.”

“제가 본 것은 왼쪽이었소.” 신부님이 바로잡았다.

“오른쪽일 수도 있죠, 신부님.”

“왼쪽이라고 단언합니다.”

짐 바넷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잠잠해라, 천하장사들! 사소한 문제로 싸우지 말자. 보슈, 너는 안 전국 형사인데 아직도 이런 초보적인 문제 앞에서 놀라고 있다니! 이건 유치원 수준의 문제야. 중학생도 풀 수 있는 미문제지. 신부님, 이 방은 신부님의 방과 정확히 똑같은 구조죠?”

“맞습니다. 신부님의 방은 바로 위층에 있죠.”

“신부님, 커튼을 닫고 커튼을 겹쳐 주세요. 그리고 베르니송 씨, 모자와 코트를 빌려주세요.”

짐 바넷은 끝이 접힌 회색 모자를 쓰고, 칼라가 올라간 갈색 코트를 입었다. 그리고 방 안이 완전히 어두워지자,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

내 신부 앞에 섰다. 그리고는 빗줄기를 벌린 신부의 입속으로 쏘아 보냈다.

“그 사람! 금니가 있는 그 사람!”

바넷을 바라보며 아베 드솔레가 더듬거렸다.

“금니가 어느 쪽에 있죠, 신부님?”

“오른쪽입니다. 제가 본 이빨은 왼쪽에 있었어요.”

짐 바넷은 전등을 끄고, 사제를 어깨로 잡아 돌려서 팽이처럼 몇 바퀴 돌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불을 켜며 명령조로 말했다.

“정면으로 똑바로 보세요. 금니가 보이죠? 어느 쪽에 있나요?”

“왼쪽입니다.” 놀란 사제가 대답했다.

짐 바넷은 커튼을 치우고 창문을 열었다.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확신이 없으셨죠. 바로 그 일이 지난밤에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벌떡 일어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채로 서 있을 때, 창문 쪽을 등지고 벽난로 앞에 섰다는 사실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는 당신 정면에 있던 게 아니라 옆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램프를 켜자 빛은 그 남자가 아니라 거울에 비친 그의 상을 비추었습니다. 제가 몇 번의 회전으로 당신을 어지럽게 만들었을 때 일어난 바로 그 현상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거울은 물체의 오른쪽을 왼쪽으로, 왼쪽을 오른쪽으로 비추는 법이라는 점도 기억나시죠?

그 결과, 오른쪽에 있던 금니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니마르 형사가 승리를 자축하듯 외쳤다. “하지만 제가 맞다면, 신부님이 금니를 보았다고 단정하신 것도 틀리지 않은 셈입니다. 그러니 바니슨 씨 대신, 금니가 있는 사람을 한 명 데려와야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도둑은 금니를 하고 있었어요!”

“나도 금니가 있다고요?” 바니슨이 물었다.

그는 입에서 금박이 입혀진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그의 두 치아 모양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자, 여기 증거입니다.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신발 자국에 회색 모자, 갈색 코트, 그리고 금니 두 개만 있으면, 베르니송 씨라는 인물은 단단히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금박지 조금만 구하면 됩니다. 바로 이거요. 이 종이는 바뉴엘의 같은 가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 그 가게에서 그라비에르 남작이 세 달 전 금박지 한 장을 산 곳이지요.”

그 말은 대수롭지 않게 던져졌지만, 놀란 침묵이 이어졌다. 사실, 바넥스의 논리가 바슈를 차근차근 목적지로 이끌었기 때문에, 바슈는 그리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신부는 숨이 턱 막혔다. 그는 눈치를 보며 자신의 존경받는 신도인 그라비에르 남작을 지켜보았다. 남작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바넷은 베르니송 씨에게 모자와 코트를 건네주었다. 베르니송 씨는 중얼거리며 물러났다.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장담하는 거죠? 그녀가 알게 되면 정말 끔찍할 텐데… 생각만 해도…”

바넷은 그를 배웅한 뒤, 기쁜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손바닥을 비비며 만족해했다.

“훌륭한 수였군. 재빠르게 끝냈고, 나도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낀다. 어떻게 하는지 보았는가, 베슈? 항상 같은 방법을 쓴다. 우리가 함께 일할 때 그랬던 것처럼요. 의심하는 대상에게 바로 비난을 가하지 않는다. 해명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아예 그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경계를 풀었을 때, 그의 눈앞에서 사건을 하나씩 재구성해 나간다. 그는 자신이 맡았던 역할을 다시 살아내는 것이다. 자신이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빛을 보게 되는 과정을, 점점 더 당황하며 지켜본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포위당했고, 무력하며,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자신에 대해 필요한 모든 증거가 모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신경은 극한의 시험에 처해져, 방어하거나 항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맞지 않나요, 남작님? 우리 의견이 일치하죠? 제가 증거를 모두 꺼내놓을 필요도 없겠죠?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그라비에르 남작은 바넷이 묘사한 바로 그 심정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공격을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곤란함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만약 현장에서 체포된 듯한 태도를 취했을 때와 다를 바가 없었다.

짐 바넷이 그에게 다가가, 매우 정중하게 그를 안심시켰다.

“남작님, 당신에게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캔들을 피하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술 신부는, 당신에게 단순히 보물들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라비에르 씨는 고개를 들고, 잠시 그 무서운 적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승자의 냉혹한 시선 아래서, 그는 속삭였다.

“고소하지는 않겠지요? … 아무 말도 하지 않겠지요? … 신부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까?”

“전 괜찮습니다. 이 일을 맡겠습니다.” 데술 신부가 말했다. “보물이 제자리를 찾으면, 저는 모든 걸 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자작님? 바로 당신께서, 제가 그렇게 믿었던 분께서, 제 충실한 신도이신 분이 그런 짓을 저지르시다니요!”

그라비에르 자작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그 사실을 털어놓으며 안도하는 아이처럼, 겸손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님. 그 보물이 바로 내 손끝에 닿아 있는 곳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저항했습니다. 원하지 않았죠. 하지만 결국 그 일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가능할 리가 없지!” 신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반복했다. “세상에, 가능할 리가 없지!”

“네… 투기에서 돈을 다 잃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목사님, 두 달 전부터 차고 구석에 있던 옛 가구를 모았어요. 아름다운 벽시계도 있고, 태피스트리도 있고요. 팔아서 살려 했죠. 그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3월 4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그러다 유혹이 왔어요. 제가 꾀했던 대로 범행에 나서자는 생각. 결국 저는 굴복하고 말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데솔 신부가 말했다. “하느님이 당신을 너무 가혹하게 벌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남작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갑시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들은 산책하듯 큰길을 따라 걸었다. 드소레 신부는 땀을 닦았다. 남작은 무거운 걸음으로, 굽은 등을 하고 걸었다. 베슈는 초조했다.

Barnett이 그 일을 순식간에 해결한 만큼, 귀중품도 거뜰히 압수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 옆에서 짐 Barnett은 여유 있게 수군거렸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베슈? 진범을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눈먼 자식이여! 나는 처음부터 베르니송 씨가 일 년에 한 번씩 여행하는 이 유만으로 저런 음모를 꾸밀 수 없다고 생각했어. 반드시 현지 사람, 특히 이웃이 필요했지. 그런데 그 이웃이라니, 바로 남작이잖아. 그의 집은 교회와 사제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거든. 사제가 취한 모든 대비책을 남작은 다 알고 있었어. 베르니송 씨가 정해진 날짜에 참여하는 모든 순례에도 남작은 항상 모습을 드러냈고. 그러니까…”

베슈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색에 잠긴 나머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두려움은 생각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졌다. 반면 바넷은 농담조로 말했다.

“그럼 나는 확신에 차서 고발장을 던졌다.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아니, 증거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선명해질수록 그 남자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랐다. 아, 베슈! 나는 그런 쾌감보다 더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결과, 네가 보듯이.”

“네, 보고 있습니다… 아니, 곧 보게 될 겁니다.” 베슈가 말했다. 그는 반전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라비에르 씨는 자신의 토지 외곽을 돌아서 초목이 우거진 작은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300미터쯤 더 가니, 참나무 숲 뒤에서 그는 멈춰 섰다.

“여기,” 그는 간헐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들판 한가운데… 이더 속에.”

베슈는 쓴웃음을 터뜨리며 내뱉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다는 조급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돌진했다.

밀짚 더미는 그리 크지 않았다. 뤼팽은 단숨에 그 위를 헤치고 들어갔다. 일본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밀짚더미를 뒤져 흘뜨렸다.

그리고 갑자기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찾았어요! 성체현양대가 있네요. 그리고 촛대, 등불…… 여섯 점! 아, 일곱 점!”

“아홉 점이 있어야 합니다.” 사제가 외쳤다.

“아홉 개…… 다 찾았군요! 잘했어요, 바넷! 정말 멋지다. 아, 이 바넷이라는 자는……”

사제는 기쁨에 겨워 몸이 풀릴 지경이었다. 그는 되찾은 물건들을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다.

“바넷 씨, 정말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반드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백슈 형사는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했던 만큼, 그 반전이 조금 늦게 찾아왔을 뿐 틀리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그라비에르 백작과 동행자들은 다시 저택 앞을 지나쳤다. 그때 과수원 쪽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그라비에르 백작은 즉시 차고 쪽으로 달려갔다. 차고 앞에는 하인들과 농부들이 허둥지둥 손짓하며 서 있었다.

그는 곧장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직감했다. 그리고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차고 옆에 붙은 작은 창고 문이 강제로 깨져 있었다. 그 창고에 넣어두었던 골동품 가구나 아름다운 벽시계, 태피스트리들이 모두 사라진 뒤였다. 그것들은 그 백작이 가진 마지막 재산이었다.

“끔찍하다……!” 백작은 비틀거리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언제 훔쳐간 거지?”

“오늘 밤입니다.” 하인이 말했다. “열한 시쯤이었어요. 개들이 짖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요? 도대체 어떻게?”

“바론 님의 자동차를 이용했습니다.”

“내 차도요? 그것도 훔쳐간 거예요?”

바론은 깜짝 놀라 쓰러지듯 쓰러졌다. 데솔 신부가 그를 받으며, 자상하고 아버지 같은 제스처로 그를 달랬다.

“벌은 곧장 내려졌군요, 불쌍한 선생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베슈는 주먹을 짝 쥐고 짐 바넷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바넷은 몸을 웅크린 채, 언제든 튀어나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바론 각하? 제가 장담하건대, 가구는 절대 잃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이죠. 잃지 않죠.” 바넷이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고소하는 건 바론 각하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베슈가 한 발 더 다가섰다. 그의 눈은 점점 더 차갑게 식었고, 태도는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다. 그러나 바넷이 먼저 다가가 그를 끌어냈다.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신부님은 보물을 찾지 못했을 거야. 무고한 베르니송은 감옥에 갇혔고, 베르니송 부인은 남편의 행실을 알게 되었겠지. 결국, 당신은 자살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베슈는 베어 낸 나무 그루터기에 주저앉았다. 분노가 목을 조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빨리, 남작님. 베슈를 위해 코르디알을 한 잔 주세요. 그가 편치 않아 보입니다.”

바넷이 외쳤다.

드 그라비에르 남작이 지시를 내렸다. 낡은 와인 병이 하나 열렸다.
베슈가 한 잔 마셨고, 신부님도 한 잔 마셨다. 드 그라비에르 남작은 남
은 와인을 모두 비웠다.

제5장

가시르 씨가 눈을 뜨자마자 한 일은 어제 저녁 가지고 온 증권 봉치가 이불 옆 탁자 위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안심이 된 그는 일어나 세수를 했다.

신사적인 외모와는 달리 몸은 통통하고 얼굴은 야위었던 니콜라 가시르는 인발리드 지구에서 사업 대리인을 하고 있었다. 그는 주변에 성실한 고객들을 모아놓았고, 이들은 그에게 자신의 저축을 맡겼다. 가시르는 성공적인 주식 투기와 비밀리에 이루어진 고리대금 사업 덕분에 그들에게 훌륭한 이자를 돌려주었다.

그는 자신의 소유인 좁고 오래된 집의 1층에 살았다. 집 안은 앞쪽부터 대기실, 침실, 상담실 겸 식당, 세 명의 직원이 일하는 방, 그리고 끝 부분에 부엌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지출을 매우 아꼈다. 하녀도 두지 않았다.

매일 아침 8시면, 활기차고 명랑한 대팻배를 한 여관주가 우편물을 들고 올라와 집안일을 치웠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는 크루아상과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그날 아침, 그 여자는 여덟 시 삼십 분에 떠났다. 가시르 씨도 평소처럼 직원들이 출근하기를 기다리며 차분히 아침을 먹고, 편지를 뜯고, 신문을 읽었다.

그런데 정확히 아홉 시 오 분쯤, 갑자기 그의 방에서 소리가 나는 듯했다. 그는 그곳에 놔둔 증권 더미를 떠올리며 재빨리 뛰어들었다.

하지만 증권 더미는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동시에 복도 쪽 현관문이 세계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열쇠로만 잠글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열쇠는 가시르 씨가 책상 위에 그대로 두고 온 상태였다.

‘내가 열쇠를 찾으러 가면, 도둑이 눈치도 채지 못하고 도망칠 거야.’

가스씨르 씨는 안마당의 창문을 열었다.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곳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집을 빠져나갈 시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실제로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니콜라 가스씨르르는 당황한 나머지 도움을 부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몇 초 후, 그는 근처 대로에서 집 쪽으로 걸어오는 자신의 수석 직원인 샤를나를 발견했다. 그는 그에게 신호를 보냈다.

“빨리! 사를나, 빨리!”

그가 몸을 굽으며 말했다. “들어와. 문을 닫고 아무도 지나가지 못하게 해. 내가 도둑맞았어.”

명령이 즉시 실행되자, 그는 숨을 헐떡이며 초조하게 계단을 내려왔다.

“자, 사를나.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습니다, 가스씨르 씨.”

그는 계단 아래쪽과 어두운 안마당 사이에 있는 경비실로 뛰어가며 소리쳤다. 경비 아가씨는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제 방이 털렸어요, 알랭 부인! 여기 숨어 있던 사람은 없나요?”

“아니요, 가시르 씨. 그런 분은 없어요.” 통통한 여자는 깜짝 놀라 더듬거렸다.

“제 아파트 열쇠는 어디에 두시나요?”

“여기요, 시계 뒤에요. 더구나 제가 반 시간 동안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니, 누가 열쇠를 가져갈 수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도둑은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갔다는 뜻이군. 끔찍해!”

니콜라 가시르가 입구 쪽으로 다시 다가갔다. 다른 두 직원도 이때쯤 도착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그들에게 재촉하듯 명령을 내렸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는 어느 쪽에서도 절대 지나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알겠지, 살로나?”

그는 곧장 계단을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섰다.

“여보세요!” 그는 전화기를 쥐고 소리를 질렀다. “여보세요! 경찰청으로 연결해 주세요…… 아니, 여보시죠, 경찰청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건 경찰청 앞 카페예요. 번호를요? 모르겠어요…… 빨리요. 안내원에게 물어봐요. 서두르세요, 여보시죠.”

드디어 카페 사장을 연결받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

“베슈 형사 계신가요? 불러 주세요… 당장… 서둘러요. 제 의뢰인 중 한 분이예요. 시간을 한 치도 허비할 수 없어요. 여보세요, 베슈 형사? 가시르 씨입니다. 형사님, 잘 지내시죠? 음, 잘 지내지는 않군요… 제가 증권 몇 개, 한 뭉치를 도둑맞았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요? 안 된다고요? 휴가라니요? 형사님 휴가는 상관없어요! 서둘러 오세요, 베슈 형사… 서둘러요! 형사님이 가지고 계신 아프리카 광산 주식 12주가 그 뭉치 안에 있었거든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거친 욕설은 가시르 씨에게 베슈 형사의 의지와 속도에 대한 확실한 안심을 안겨주었다. 실제로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베슈 형사가 돌풍처럼 도착해, 얼굴이 일그러진 채 사업가에게로 돌진했다.

“내 아프리카 주식들이여! … 내 모든 재산이여!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도둑맞았소! 고객들의 증서와 함께요. 내 증서들도 모두요.”

“도둑맞았다고?”

“네, 방금 반 시간 전 제 방에서요.”

“세상에! 대체 내 아프리카 주식들이 당신의 방에서 뭘 하고 있었던 말이지요?”

“어제 크레디 리오네 은행에서 그 봉투를 꺼냈거든요. 다른 은행으로 이관하려고요. 더 편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군요…”

베슈는 가시레의 어깨를 철렁한 손으로 쥐었다.

“당신은 책임자요, 가시레. 갚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갚아요? 저는 파산했습니다.”

“파산? 그런데 이 집은?”

“담보로 잡혀서 빚더미에 앉았소.”

두 남자는 서로를 향해 뛰어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관리인 아줌마와 직원 세 명도 정신이 나가서, 세 번째 층에 사는 두 젊은 여자 세입자들이 무조건 밖으로 나가려 할 때 그 길을 막아섰다.

“아무도 나가면 안 돼!” 백슈가 화가 난 나머지 소리쳤다. “내 아프리카 여우 열두 마리를 찾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아마도 도움이 필요할 거야.” 가시르가 제안했다. “도살장 소년이나 식료품 가게 주인을 불러보자.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나는 그런 사람 원해.” 백슈가 힘주어 말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라보르드 거리에 있는 바넷 흥신소에 전화할 거야. 그리고 고소도 해야지. 하지만 그건 시간 낭비일 뿐이야. 당장은 행동을 취해야 해.”

그는 본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되새기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하지만 손끝의 떨림과 굳게 다문 입술이 그의 극심한 당혹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냉정해, 가시르.”

그가 말했다.

“어쨌든 우리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 그러니 누군가가 그들을 몰래 내보내기 전에 내 아프리카 여종 열두 명을 반드시 붙잡아야 해. 그게 핵심이야.”

그는 두 젊은 여성에게 질문을 던졌다. 한 명은 타자기로 사무실 서한과 보고서를 집에서 베껴 쓰던 비서였다. 다른 한 명은 집에서 플루트 레슨을 하던 음악 강사였다. 두 사람 모두 점심 장보기로 바빴다.

“아주 유감입니다!” 베슈가 단호하게 내뱉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거리 쪽 문을 절대 열지 않을 겁니다. 가시르 씨, 당신의 직원 두 명이 그 문을 지키겠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세입자들의 물건을 받아오는 일을 맡고요.”

“오후에는 세입자들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허락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모든 소포나 상자, 식료품 봉투, 수상한 꾸러미는 철저히 검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시사항입니다.”

베슈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자, 가시르 씨. 이제 일할 시간입니다. 하녀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물 구조가 수사를 쉽게 해 주었다. 세 층이었다. 각 층마다 아파트가 하나씩 있어, 빈 채로 있는 지상층을 합치면 총 네 곳이었다.

일층에는 가시르 씨가 살았다. 이층에는 의원이자 전 장관인 투페몽 씨가 있었다. 그리고 세 층은 두 개의 작은 아파트로 나뉘어 있었다. 한 쪽에는 타자기로 일하는 레고피에 씨가, 다른 한쪽에는 플루트 강사 하벨린 씨가 살고 있었다.

그날 아침, 의회 의원 뫼페몽은 여덟 시 삼십 분에 의회로 나갔다. 그는 위원회를 주재하러 가는 길이었다. 집안일은 점심시간에만 찾아오는 이웃 아줌마가 봐주고 있었기에, 뫼페몽의 귀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두 자매의 방은 철저히 수색되었다. 그다음에는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다락방 구석구석을 뒤졌다. 작은 안마당도 살펴보고, 니콜라 가시르 씨의 방까지 모두 뒤졌다.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베슈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아프리카 여인 열두 명’ 계획을 떠올렸다.

정오쯤, 의회 의원 투페몽이 도착했다. 그는 신중하고 단호한 의회 원이자, 전직 장관 시절의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든 채로, 모든 정파로부터 존경받는 근면가였다. 드물게 하지만 결정적인 질의를 통해 정부를 떨게 만들던 인물이었다.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계단 아래 경비실로 내려가 우편물을 챙겼다. 가시르가 그곳에서 그를 따라가, 자신이 당한 도난 사정을 설명했다.

투페몽 의원은 가장 사소한 말에도 경청하듯, 깊이 생각하며 경청했다. 가시르가 고소하기로 결정하면 협력을 약속했고, 자신의 아파트를 수색할 것을 강력히 권했다.

“누군가 가짜 열쇠를 만들어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수색을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음을 자각한 두 사람은 서로 위안을 주려고 애썼지만, 그 말은 모두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두 사람은 집 앞 맞은편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눈을 떼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베슈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프리카 여인 열두

명이 그의 위에 올라탄 듯 속이 메스꺼웠다. 가시르도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둘은 그날의 일을 끝없이 되새기며 안도할 구석을 찾았다.

“간단한 일입니다.” 베슈가 말했다. “누군가 집에 숨어들어 서류를 훔쳐갔죠. 그런데 도둑이 도망가지 못했다면, 지금도 이 집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가시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 물건이 집 안에 있다면, 우리 아프리카 여인 열두 명도 당연히 그곳에 있을 거야. 도대체 아프리카 여인 열두 명이 천장을 뚫고 날아갈 리가 없잖아!”

“그리고 증권 묶음도 마찬가지죠!” 니콜라 가시르가 덧붙였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확신에 다다르게 됩니다. 튼튼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확신이죠. 즉……”

그는 말을 마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갑작스러운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거리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내가 경쾌한 걸음걸이로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바넷……” 그가 속삭였다. “누가 그에게 알린 거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라보르드 거리에 있는 바넷 흥신소에 관해서요.” 가시르가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고백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는 전화 한 통이 무용지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보 같은 소리야.” 베슈가 헛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거야? 나야, 아니면 너야? 바넷은 이 일에
관여할 게 하나도 없어! 바넷은 경계해야 할 외부자일 뿐이야. 아니, 절
대 안 돼. 바넷은 필요 없어!”

바넷의 협력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처럼 느껴졌다. 짐
바넷이 집에 있고, 짐 바넷이 이 사건에 관여한다면, 만약 수사가 결실
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건 바로 증권 묶음, 특히 열두 장의 ‘아프리카’
지분 증권을 가로채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거리를 건넜다. 바넷이 문 두드리려고 하
던 찰나, 그는 그 앞에 쭈욱 들어섰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사라져. 너는 필요 없어. 너를 부른 건 실수였어. 우리한테는
간섭하지 말고, 얼른 꺼져.”

바넷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 그 늙은 베슈! 대체 뭐야?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

« 되돌아가! »

« 전화로 들은 말이 정말로 심각한 일이야? 네 돈이 날아갔다는 거
지? 그럼 작은 도움이라도 줄까? »

« 꺼져, 베슈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네가 말하는 작은 도움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난 잘 알아! 남의 주머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

« 네 아프리카 여인들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야? »

« 응, 네가 간섭하면 그렇겠지. »

« 그럼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알아서 해. »

« 넌 가려는 거야? »

« 아니야. 이 집안에서 할 일이 있어. »

그리고 그들을 따라오며 문을 살짝 열어젖힌 가시르에게 말을 건넸다.

«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기 하벨린 선생님이 사시는 집이 맞습니까? 플루트 교수이시고, 파리 음악원 제2위 수상자이신 분요? »

베슈는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 응, 네가 간판에 적힌 주소를 보고 묻는 거지... »

“그리고 나서요?” 바넷이 물었다. “플루트 레슨 받을 권리쯤은 있겠지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아쉽군요. 전 플루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단호히 반대합니다...”

“플루트요!”

바넷은 위압적인 태도로 걸어나갔다.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했다. 매우 불안한 심정이었던 베슈는 바넷이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십 분 후, 하벨린 씨와 무언가 합의가 이루어진 듯, 삼 층에서 내려오는 어설픈 플루트 음색이 들리기 시작했다.

“개자식!” 베슈가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은 열두 명의 아프리카인들 때문에 점점 더 초조해졌다. “이 녀석과 함께라면, 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그는 분에 겨워 다시 일에 매달렸다.

채용되지 않은 지상층과, 만약의 경우 서류 뭉치를 던져 넣을 수도 있는 문지기 부인의 방을 살살이 뒤졌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다.

그런데 오후 내내 위층에서는 피리가 불렸다. 짜증스럽고 비웃는 듯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다섯 시가 다 되어, Barnett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가볍게 뛰어나왔다. 손에는 큰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서류 가방!

베슈가 분노에 찬 외침을 지르며 그 물건을 grabbing 덮개를 뜯어냈다. 안에는 오래된 모형과 구더기에 갇힌 모피들이 들어 있었다.

“출신이 금지된 미스 하벨린이 저에게 이걸 모두 버리라고 부탁했습니다.” Barnett이 진지하게 말했다. “미스 하벨린은 정말 예쁘답니다. 알고 계셨나요? 플루트 실력도 일품이에요. 저에게 놀라울 만큼 재능이 있어,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교회 계단에서 맹인 연주자로 일할 자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 밤 내내 Béchoux와 Gassire는 경계를 섰다. 한 명은 내부에서, 다른 한 명은 외부에서 대기했다. 그들이 막아야 할 일은, 그 소포가 창문을 통해 동조자에게 던져지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작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그들의 집요함은 보답받지 못했다. 한쪽의 아프리카 여성 열두 명과 다른 쪽의 증권들은 고집스럽게도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세 시가 되자 짐 배넷이 다시 나타났다. 빈 상자를 든 채, 그는 시간 사용이 만족스러웠다는 듯 친절한 미소로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곧장 걸어나갔다.

플루트 수업이 시작되었다. 음계 연습, 기초 훈련, 그리고 어긋난 음들. 그러다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다. 그 침묵은 길게 이어졌고,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것이었다. 배슈를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도대체 저 녀석이 뭘 하고 있는 걸까?’

배슈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배넷이 어떤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그것이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았다.

그는 세 층을 올라가 귀를 기울였다. 플루트 교수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옆집, 주부법과 타자를 배우는 레고피에르 부인의 집에서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목소리다.’

베슈의 호기심은 한계에 도달했다.

참을 수 없었던 그는 종을 불렀다.

“들어오세요!”

안쪽에서 Barnett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열쇠는 문에 걸려 있어요.”

Béchoux가 방으로 들어섰다. Barnett의 책상 앞에는 아주 예쁜 갈색 머리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타자기 옆에 앉아서 Barnett의 말을 종이에 속기하고 있었다.

“수색하러 온 거죠?” Barnett이 말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이 아가씨는 숨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회고록을 쓰고 있는 중이니깐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Béchoux가 가구들 밑을 살피는 사이, Barnett은 계속 말했다.

그날, 나는 매력적인 메르 레고피에르 여사의 집에 있었다. 젊은 플루트 연주자가 나에게 그녀를 소개해 줬기 때문이다. 그때 가니마르의

동료인 베슈 형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도망치는 열두 명의 아프리카 인들을 쫓고 있었다.

베슈 형사는 소파 밑에서 먼지 알갱이 세 개를 주워 모았고, 찬장 밑에서는 구두 굽 조각을 발견했다. 베슈 형사는 어떤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정말 훌륭한 직업이다.

베슈 형사가 일어나 Barnett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욕을 했다. Barnett은 자신의 필기를 계속 이어 나갔다. 베슈 형사는 그 자리를 떠났다.

조금 후, Barnett은 서류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다. 경비를 서던 베슈 형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너무 겁이 났고, 결국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서류와 형견 조각들뿐이었다.

불행한 베슈의 삶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졌다. 바넷의 존재, 그의 비꼼과 장난은 베슈를 점점 더 격분시켰다.

매일 바넷은 다시 찾아왔다. 플롯 레슨이나 속기·타자 연습이 끝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상자를 드러내 보였다. 어찌해야 할까?

베슈는 이것이 또 다른 장난이고 바넷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번에는 바넷이 증서를 가지고 갈까? 아프리카 여인 열두 명을 데리고 달아날까? 그 기회를 틈타 약탈품을 옮기려 할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슈는 뒤졌다. 그는 상자를 비우고, 손가락을 떨며 잡동사니들 사이를 뒤졌다. 찢어진 행주, 헐벗은 천, 깃털 하나 없는 부채, 부러진 빗자루, 벽난로 재, 당근 껍질 같은 것들 사이를 말이다.

그 모습을 본 바넷은 배를 잡고 웃었다.

“찾았다! 못 찾았어? 헤헤, 이제야 알았네! …아, 바보 같은 베슈! 내게 얼마나 큰 웃음을 안겨주었는지!”

그 일은整整 일주일이나 이어졌다. 베슈는 힘겨운 싸움에서 자신의 휴가를 모두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는 온통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니콜라 가시르와 베슈는 세입자들이 몸수색과 소지품 검사를 받으면서도 각자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었다. 그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소문이 퍼졌다. 가시르의 그 사건은 화제가 되었다. 당황한 고객들이 그의 사무실을 에워싸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직 장관 출신인 두페몽 의원도 평범한 일상이 깨져버려 크게 성가셨다. 그는 하루 네 번,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 같은 소란을 다 지켜봐야 했다. 그는 니콜라 가시르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재촉했다.

이런 상황이 오래갈 리 없었다.

사건은 갑작스럽게 터졌다.

오후 늦게, 가시르와 베슈는 3층에서 들려오는 격렬한 다툼 소리를 들었다. 발구르는 소리, 여자들의 비명. 상황은 심각해 보였다.

두 사람은 서둘러 세 층을 올랐다. 복도에서 마브랭과 레고피에 부부는 사나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바넷의 간섭도 소용없었다. 오히려 바넷은 이 광경을 꽤나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모양은 엉망이 되었고, 블라우스는 찢어졌으며, 욕설이 난무했다.

두 사람은 결국 분리되었다. 타자기는 신경 쇠약 증세를 보였고, 바넷은 그녀를 집까지 모셔다줘야 했다. 한편 플루트 교수는 자신의 분노를 토해냈다.

“두 사람 다 목격했어요. 그녀와 그가요!” 하벨린 여사가 소리쳤다. “Barnett이 먼저 저에게 구애를 했다가는, 결국 그 여자를 입맞췄답니다. Barnett은 묘한 인물이에요. 베슈 씨, 그가 이곳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꾀하고 있는지, 왜 내내 우리를 추궁하며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셔야 해요.

저는 그에게서 단서를 얻었어요. 그는 도둑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관리인 아랭 씨예요. 그런데 왜 저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을까요? 게다가 그는 사건과 관련된 서류의 진위도 꿰뚫고 있어요. 그가 저에게 했던 말이 그 증거죠.

‘그들은 집에 있지만, 집에 있지 않은 존재야. 그리고 집에 있지만, 동시에 집에 없는 존재지.’

베슈 씨, 그에게 경계하세요…”

타이피스트와의 일을 마친 짐 바넷은 하벨린 여사를 붙잡아 힘차게 그녀의 방으로 밀어 넣었다.

“자, 친애하는 교수님, 수군거리는 건 그만두고 모르시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플루트(도둑) 말고는 당신 입에서 나오는 건 헛소리뿐 이잖아요.”

베슈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하벨린 씨가 짐 바넷의 심정을 밝힌 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단번에 사안을 명확히 해 주었다. 맞다. 범인은 알랭 부인이다. 왜 그걸 생각지 못했을까? 격분한 확신에 사로잡힌 그는 계단을 뛰어 내려가, 니콜라 가시르의 뒤를 이어 문지기의 집으로 돌진했다.

“내 아프리카 여인들! 어디 있소? 당신이 훔쳤소!”

니콜라 가시르도 이때야 겨우 도착했다.

“내 증서들은? 도둑놈, 그걸 어찌 했소?”

두 사람은 거대한 여자를 흔들었다. 팔을 하나씩 잡아당기며 질문과 욕설로 그녀를 괴롭혔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알랭 씨에게 그 밤은 끔찍했고, 이어진 이틀도 equally 고통스러웠다. 베슈는 짐 바네티 실수했을 리 없다고 단호하게 믿었다. 게다가 이 혐의가 제기되자, 모든 사실이 새로운 빛을 띠기 시작했다. 청소 중 밤 침대 위에 놓인 낫선 소포의 존재를 눈치챈 것은 오직 그 경비녀뿐이었고, 그녀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스씨르 씨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 증권을 훔쳐 도망친 뒤 자신의 경비실에 숨었을 가능성이 충분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니콜라 가스씨르가 그녀를 발견한 것이다.

베슈는 포기했다.

“물론이지. 저 간사한 여자가 범인일 거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 범인이 이 하녀이든 다른 사람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 ‘아프리카 여인’ 열두 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거야. 그녀가 그들을 하녀 숙소로 가져갔다고 치자. 그런데 어떻게 9시부터 우리가 하녀 숙소를 수색하기 전까지, 그 좁은 공간에서 사라질 수 있었던 말인가?”

이 의문에 대해, 그 거구한 여자는 어떤 협박과 심리적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해명을 거부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녀의 유죄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입을 다물었다.

“이제 일을 끝내야 합니다.” 아침, 가시르가 베쿠에게 말했다. “의원 투페몽이 어제 밤 내각을 무너뜨린 걸 보셨죠. 기자들이 그를 인터뷰할 겁니다. 우리도 그 기자들을 검색할 수 있을까요?”

베쿠는 그 상황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임을 인정했다.

“세 시간 뒤면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단언했다.

오후가 되어 그는 바넷 흥신소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네, 베쿠. 무슨 일이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감당해 낼 수 없어서요.”

정중한 고백이었다. 그 행보는 온전히 그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베쿠가 정정당당하게 항복한 것이다.

짐 바넷은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애정 어린 손길로 그의 어깨를 잡았고,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매혹적인 섬세함으로 그가 패배의 굴욕을 겪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는 승자와 패자의 대면이 아니었다. 두 동료가 화해하는 자리였다.

“진실로, 옛 친구 베슈,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작은 오해가 나를 끝없이 괴롭혔소. 우리 같은 두 친구가 적이라니! 그 얼마나 슬픈 일인가. 나는 잠들지 못했소.”

베슈는 눈썹을 찌푸렸다. 경찰로서의 양심은 그에게 Barnett과의 친절한 관계를 깊이 후회하게 했고, 자신이 자신이 사기꾼으로 여기는

남자의 협력자이자 은혜를 입은 자로 fate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하지만 슬프게도, 가장 정직한 사람들도 굴복하게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그리고 아프리카 여인 열두 명의 유실은 그러한 상황에 포함된다!

양심의 가책을 억누르며 그는 속삭였다.

“그건 분명히 경비 아가씨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많은 다른 이유 중에서도, 그건 그녀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신실해 보이던 여자가 어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소?”

“그녀에 대해 조사를 조금만 더 철저히 했더라면 알았을 텐데. 그 불쌍한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인 아들을 하나 두고 있소. 그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다 털어먹고 있는 거지. 그녀가 유혹에 굴복한 것도 바로 그 아들을 위해서였소.”

베슈는 몸을 떨었다.

“그녀가 내 ‘아프리카인’들을 훔쳐갔다는 말ियो?”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그건 아니야. 내가 허락하지 않았거든. 당신의 ‘아프리카인’ 열두 장은 성물ियो.”

“그럼 그건 어디에 있는 거요?”

“당신 주머니 속에 있소.”

“장난하지 마시오, 바넷.”

“진지한 일인데 장난이 아니라고, 베슈. 직접 확인해 보시오.”

베슈는 떨리는 손으로 지목된 주머니를 더듬었다. 그리고 큼직한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내 친구 베슈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그 안의 지폐를 세어 보았다. 열두 장.

베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려 거의 쓰러질 뻔했다. 바넷이 그의 코 밑에 향수병을 들이밀자, 그는 간신히 숨을 들이마셨다.

“숨을 쉬어라, 베슈. 쓰러지지 마라.”

베슈는 쓰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몰래 눈물을 닦았다. 기쁨과 감동이 그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물론 그는 바넷이 자기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서로 반가움을 나누는 사이사이에 그 봉투를 주머니에 넣어두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열두 장의 지폐가 그의 떨리는 손아귀에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제 바넷은 그에게 더 이상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힘을 되찾았다. 손에 보이지 않는 카스타네트를 들고 스페인 춤을 추며 가볍게 뛰었다.

“내가 찾았어! 아프리카 여인들, 우리 집으로 와! 아, 바넷, 너 정말 대단한 친구야! 세상에 바넷은 하나뿐이지. 바세를 구한 구원자라니, 바넷은 꼭 동상이 필요해! 바넷, 넌 영웅이야! 근데 대체 어떻게 해낸 거야? 말해 봐, 바넷!”

바넷이 상황을 어떻게 주도했는지, 그 모습은 다시 한번 가니마르 형사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직업적 호기심이 자극된 그는 물었다.

“그래서, 바넷?”

“그래서, 뭐라고?”

“어이, 대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풀어냈어? 그 소포는 어디에 있었지? ‘집 안에 있지만 집 안에 없는’ 곳에 있었다고 했지?”

“‘집 밖에 있지만 집 안에 있는’ 곳에 있었다고 했지.” 바넷이 농담조로 말했다.

“말해 봐, 빌어.” 베슈가 조르듯 말했다.

“혀를 깨물고 있는 거야?”

“뭐든 다 말해.”

“그리고 앞으로는 작은 실수 때문에 내게 그런 씩씩거리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거지? 그 태도가 나를 너무도 낙담하게 하고, 가끔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생각하게 만들거든.”

“말해, 바넷.”

“아!” 바넷이 외쳤다.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야! 미리 경고하지만, 베슈, 실망할 일은 하나도 없어. 난 지금까지 더 아름답고, 더 예상치 못하며, 더 자연스럽고, 더 교활한 일을 본 적이 없어. 동시에 더 인간적이고, 더 환상적이기도 하지. 그리고 너무도 단순해서, 베슈, 비록 너는 훌륭한 형사이면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지만, 그 단순함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

“자, 말해.” 베슈가 화가 나서 말했다. “그 증권 더미는 어떻게 그 집에서 빠져나간 거야?”

“당신의 눈앞에서, 경외할 바슈! 그는 단순히 집을 나간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왔죠! 하루에 두 번씩 나가고, 하루에 두 번씩 돌아왔다고요! 당신의 눈앞에서, 순진하고 착한 바슈의 눈앞에서 말입니다! 열흘 동안이나 당신은 그에게 존경스러운 절을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진짜 십자가의 조각이 당신 앞을 지나갔다는 거요! 조금만 더 됐으면 당신은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바슈가 외쳤다. “모든 걸 수색했는데 말이죠.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모든 곳을 뒤졌어, 베슈. 하지만 그건 아니야! 소포도, 상자도, 핸드백도, 주머니도, 모자도, 통조림과 쓰레기통도 다 뒤졌지. 하지만 그건 아니야. 국경 역에서는 여행자를 검색하지만, 외교용 가방은 검색하지 않아. 그래서 넌 다 뒤졌지만, 그건 뒤지지 않은 거야!”

“그게 뭐라는 거야?” 베슈가 성이 나서 외쳤다.

“당신이 천 번이나 추측해도 맞힐 수 없는 단서야.”

“제발 말해라, 미친놈 같으니라구!”

“전 장관의 지갑이야!”

베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바넷, 넌 의회 의원 투폐몽을 의심한다는 말이야?”

“미쳤나 봐! 의원을 고발할 수 있겠어? 기본적으로 의원, 전직 장관은 의심을 받지 않는 존재야. 게다가 수많은 의원과 전직 장관들 중——하느님 아시지만,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나로선 투폐몽이 가장 의심을 받지 않는 인물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는 알랭의 재물을 받아준 사람이 맞지.”

“그럼 공범이냐? 투폐몽 의원이 공범이라고?”

“그것도 아니야.”

“그럼 너는 누구를 고발한다는 거야?”

“누구를? 내가 고발하는 대상은.”

“그의 지갑이야.”

바넷은 차분하면서도 경쾌한 어조로 이렇게 설명했다.

“부총리의 지갑, 베슈, 이건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한 명의 인물입니다. 세상에 투페몽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와 함께 투페몽의 지갑이 있습니다. 둘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각자가 각자의 존재 이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투페몽을 지갑 없이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투페몽의 지갑을 그 주인 없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투페몽은 가끔 지갑을 옆에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일상적인 행동을 취할 때 말이죠. 그럴 때 투페몽의 지갑은 독자적인 생명력을 얻으며, 투페몽이 전혀 책임질 수 없는 행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발생한 도난 사건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베슈는 바넷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바넷이 다시 말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난 일이다. 당신의 ‘아프리카 여인 열둘’이 사라진 그 아침에 일어난 일이지.

집주인 아가씨는 도난에 패닉에 빠졌고, 다가오는 위기에 절망했다. 게다가 자신을 파멸시킬 재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신기하게도 화로 위에 ‘투페몽 씨의 지갑’이 혼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때 투페몽 씨가 우편물을 받으러 현관으로 들어왔다. 그는 지갑을 화로 위에 내려놓고 편지를 뜯기 시작했다. 그 사이 니콜라 가시르와 당신, 베슈는 그에게 유가증권이 사라졌다고 보고했다.

그때 알랭 씨에게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정말 천재적이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사라진 유가증권 더미 역시 화로 위에 있었다. 지갑 옆, 신문지 아래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아직 현관을 수색하지는 않았지만, 곧 수색이 시작되어 모든 것이 드러날 상황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이야기하는 그들의 등 뒤를 돌렸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다. 지갑을 열고, 안쪽 주머니 중 하나를 뒤집어엮었다. 그리고 그곳에 유가증권 더미를 쑤셔 넣었다.

작업은 끝났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투페몽 씨가 지갑을 팔에 끼고 현관을 나서자, 그는 당신의 ‘아프리카 여인 열둘’과 가시르의 모든 유가증권을 함께 가져가고 말았다.

베슈는 단 한마디의 항의도 하지 않았다. 바르네트가 확신에 찬 어조로 단정할 때, 베슈는 그 반박할 수 없는 진실에 순종했다. 그는 믿었다. 그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저도 그날 서류 봉치와 보고서 몇 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들은 뫼페몽 씨에게 돌려줘야 했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바르네트가 말했다. “자신에게 의심을 돌리기보다, 그녀가 그걸 불태웠을 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뫼페몽 씨가 그걸 요구하지 않았나요?”

“어떻게요? 그 서류 봉치가 사라졌다는 걸 뫼페몽 씨가 눈치채지 못했다는 말인가요?”

“그가 지갑을 열었을 때는요?”

“그 지갑은 열지 않았어. 절대 열지 않지. 뫼페몽의 지갑은 많은 정치인들이 그러하듯, 속임수에 불과해. 겉치레일 뿐이고, 위협이며, 경고를 주는 도구야. 만약 그가 열었다면, 자신의 문서를 요구했을 거고, 유가증권들을 돌려줬을 거야. 그런데 그는 어느 쪽도 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그가 일을 할 때는요?”

“그는 일하지 않아요. 지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해야 하는 건 아니죠. 심지어 전 장관의 지갑만 있으면 더 이상 일할 필요조차 없습니

다. 지갑은 곧 노동이자 권력,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와 전지전능함을 상징하니까요.”

“어제 밤, 하원의에서 투페몽이 연단에 전 장관의 지갑을 내려놓았을 때, 정부는 이미 망한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으니, 이 말은 다 아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노동자의 지갑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을까요? 수많은 숫자와 통계 자료들이요.”

“투페몽이 지갑을 펼쳤지만, 두툼하게 부푼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면서도 가끔 손으로 지갑을 두드렸죠. 마치 ‘모든 것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요.”

“하지만 실제로 들어 있던 것은 베슈의 아프리카 여인 열두 명에 대한 자료, 가시르의 증서, 그리고 낡은 신문들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투페몽의 지갑은 결국 내각을 무너뜨렸으니까요.”

“그게 어떻게 알았어?”

“방금 방을 나와서,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그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지. 그때 한 낯선 남자가 실수로 그를 툭 치더니, 툭 하고 보도에 털썩 넘어뜨렸어. 다른 동행자가 나타나서는 지갑을 훔쳐 갔고, 그 사이에 원래 증권 대신 낡은 종이 뭉치를 넣을 시간을 벌었지. 그리고 그 동행자의 정체가 궁금하단 말인가?”

베슈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의 주머니에는 아프리카 지폐 열두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사실 때문에, 투페몽의 그 사건은 그에게 한층 더 재미있고 달콤하게 느껴졌다.

바넷은 허둥지둥 몸을 돌리며 외쳤다.

“이제 모든 비밀을 다 말해 줘네, 오랜 친구. 이런 재미있는 진실을 밝혀내고, 그 집의 공기를 마시며, 자료를 모으기 위해 나는 자서전을 집필하고 플루트 레슨도 받았단다. 정말 매력적인 한 주였지. 3층에서는 연애를 하고, 지하실에서는 다양한 오락거리로 시간을 보냈어. 가시르, 베슈, 투페몽……. 내가 줄을 조종하던 작은 인형들이었지.”

“네가 가장 골치 아팠던 건, 투페몽이 자신의 지갑이 저지른 죄악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었어. 그리고 그 덕분에 그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네 아프리카 동전 열두 개를 들고 다녔단 말이야.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지.”

“그리고 집주인 아줌마는 어땠을까? 그녀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겠나? 속으로는 투페몽을 가장 큰 사기꾼으로 여기고 있을 거야. 투페몽이 ‘자기 몫’으로 아프리카 동전 열두 개와 나머지 돈까지 모두 챙겼다고 믿고 있으니까.”

“미친 투페몽이로군.”

“알려줘야 하죠?” 베슈가 물었다.

“왜요? 그가 낡은 신문을 나르고 지갑을 베고 자는 게 편한 거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입 밖으로 내지 마, 베슈.”

“물론 가시르에게는 알려야죠. 그가 자신의 증권을 가지고 오니까.”

“어떤 증권?” 바르네트가 물었다.

“당신이 뫼페몽 씨의 서류 가방에서 찾은, 가시르 씨 소유의 증권 말입니다.”

“아, 미쳤어, 베슈! 가시르 씨가 그 증권을 다시 되찾을 거라고 생각하니?”

“뭐, 당연하죠.”

바르네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리고는 갑자기 분노에 휩싸였다.

“너는 니콜라 가시르가 어떤 놈인지 알아? 베슈, 그건 하찮은 개새끼야. 현관 경비부인의 아들과 다를 바 없는. 그래, 진짜 개새끼라고! 니콜라 가시르는 고객들을 속여 돈을 갈취했어. 그들의 돈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지. 그걸로 그친 게 아니야. 그는 그 돈을 몽땅 털어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말야.

보라, 여기 브뤼셀행 1등 열차표가 있군. 날짜는 그가 금고에서 증권 뭉치를 꺼낸 바로 그 날짜야. 그는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하러 간다고 거

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도망치기 위해서였지. 어때, 너의 니콜라 가시르에 대해 뭐라고 할 거야?”

베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열두 명의 아프리카 여인’ 사건 이후, 니콜라 가시르에 대한 그의 신뢰는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렇게 말했다.

“그의 고객들이 모두 착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소. 그들이 파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불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가시르가 부자랍니다.”

“그는 파산했습니다.” 베슈가 말했다.

“틀렸어요! 제 정보에 따르면, 그는 고객들에게 변상할 돈이 충분합니다. 오히려 남을 정도죠. 만약 그가 첫날부터 고소하지 않은 것은, 사법 기관이 자기 일에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옥에 보내겠다고 압박하면, 그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낼 겁니다. 돈? 당신의 니콜라 가시르는 백만장자입니다. 그가 저지른 일은 그가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당신이 …?”

“증권을 그대로 두겠다는 뜻인가요? 절대요. 이미 팔렸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은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바넷은 경멸적인 분노에 휩싸였다.

“단 한 순간도요! 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 그럼 대체 그걸 어떻게 하나요?

— 나눠요.

— 누구한테요?

—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요. 제가 후원하는 의미 있는 자선 단체에도요. 아, 걱정 마세요, 베슈. 니콜라 가시르의 돈은 잘 쓰일 테니까요!”

베슈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번에도 사건은 바넷 흥신소가 ‘보물’을 손에 넣는 것으로 끝났다. 바넷은 유죄자를 징벌하고 무고자를 구했지만, 자신을 위한 몫은 잊지 않았다. 잘 정리된 자선은 먼저 자신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베슈 형사는 얼굴이 붉어졌다. 항의하지 않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머니 속에 든 열두 점의 아프리카 미술품이 든 소중히 싸인 꾸러미를 만지고 있었으며, 바넷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것들이 모두 사라졌을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지금 화를 내고 싸움을 걸 적절한 시기일까?

“무슨 일이야? 불만이라도 있는 건가?” 번넷이 물었다.

“아니, 전혀요. 정말 기쁩니다.” 불운한 베크수가 단언했다.

“그럼 다 잘된 거잖아. 미소라도 지어 봐.”

베크수는 비겁하게 웃었다.

“좋아,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너도 바쁠 테고, 나도 여자 한 명 만
야 하니까.” 번넷이 말했다.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기회를 줘서.”

“안녕히 가세요.” 베크수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또 만나!” 번넷이 대답했다.

베크수가 나갔다. 그는 말한 대로 기분이 좋았지만, 속은 불편했다.
그는 그 저주받은 인물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밖으로 나와 골목 모퉁이에 서 있던 그는, 번넷이 기다리고 있는 아
름다운 타자부가 있음을 눈치챘다.

이틀 뒤, 그는 영화관에서 Barnett을 보았다. 곁에는 피리 강사 M.
하벨린이라는 또 한 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함께였다.

제6장

구엘로 향하는 밤기차를 탄 벡슈 형사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챙긴 채, 구엘에서 마쥐슈 마을로 가는 마차를 타고 이튿날 아침에야 그곳에 도착했다. 그는 먼저 성을 찾았다. 크뢰즈 강이 굽이쳐 흐르는 절벽 위에 우뚝 선, 오래되고 넓은 저택이었다. 조르주 카제봉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부유한 산업가이자 일반 이사회 의장이었던 그는 정치적 인맥으로나 나이가 고작 사십에 외모도 준수한,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얼굴은 평범했고, 거만하게 굴며 존경을 강요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성이 자신의 영지 안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벡슈 형사를 그곳으로 바로 안내하려 했다.

먼저 밤나무가 우거진 아름다운 공원을 지나야 했다. 그러다 보면 폐허가 된 거대한 탑이 눈에 들어왔다. 중세 시대 마쥐르슈 성의 유일

한 흔적이었던 이 탑은, 크뢰즈 강이 무너진 바위 바닥 위에서 천천히 흐르는 협곡 깊숙이서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었다.

강 건너편은 알레스카르 가문의 소유지였다. 불과 열두 미터 떨어진 곳에 거대한 돌담이 우뚝 섰다. 축축하게 젖은 돌들이 담을 이루고, 그 위로는 다섯에서 여섯 미터 더 높은 곳에 발코니가 둘러진 테라스가 있었다. 그곳으로 이어지는 정원 길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wild한 풍경이었다. 바로 그곳에서 열흘 전, 아침 여섯 시경, 가장 큰 바위 위에 젊은 자작 장 드 알레스카르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시체에는 머리에서 낙하로 인한 상처 외에는 다른 상처가 없었다. 그런데 맞은편 테라스 나무 가지 중에는, 줄기 옆으로 새록새록 부러진 채 매달린 가지가 하나 있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의 경위는 이렇게 재구성되었다. 그 가지 위에 올라섰던 자작이 강으로 추락한 것이다. 그러니 사고였다. 매장 허가도 이미 내려졌다.

“하지만 대체 젊은 자작이 그 나무 위에서 뭘 하고 있었던 말인가?” 베슈가 물었다.

“알레스카르 가문이 시작된 지극히 오래된 성채를 더 높고, 더 가까이서 살펴보기 위해서였지.” 조르주 카제봉이 대답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형사님.”

그가 즉시 말을 이었다.

“형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찰청장이 제 간절한 청을 받아들여 그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사실 나쁜 소문이 돌고 있고, 제게 직접적으로 날아오는 악의적인 루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끝내야 합니다.”

“조사를 하십시오. 질문도 하십시오. 특히 젊은 백작의 누이이자, 이 가족의 마지막 생존자인 알레스카르 후작 부인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출국하는 날, 제게 와서 손을 꼭 잡아 주십시오.”

베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탑의 기슭을 두루 살피고, 층간 바닥과 계단이 무너져 쌓인 잔해 더미 사이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을 물었고, 신부와 시장도 찾았다. 그리고 여관에서 식사를 했다.

오후 두 시가 되자, 그는 테라스까지 내려가는 좁은 정원으로 들어섰다. 정원은 중간에 ‘마노르’라 불리는, 양식도 없고 낡은 작은 건물 하나에 반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는 오래된 하녀를 통해 알데스카르 부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곧바로 초대를 받아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천장이 낮고 가구가 소박했다. 그 안에서 부인은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부인이 일어섰다. 남자도 함께 일어났다.

베슈는 그 남자를 알아봤다. 짐 바넷이었다.

“아! 드디어 왔구나, 친애하는 친구여.” Barnett이 기쁜 목소리로 외치며 손을 내밀었다.

“오늘 아침 신문에 크루즈로 떠난다는 소식을 보고는, 곧장 내 40마력 차를 몰아 나왔소. 당신을 위해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었거든.”

그가 다시 말했다.

“미스, 이분은 상트 형무소 특별 조사관인 가니마르 형사입니다. 그와 함께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미 이 사건의 전모를 꿰뚫고 계실 테니까요. 것처럼 민첩한 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재주꾼이죠. 자, 가니마르, 말씀하십시오.”

베슈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경악한 나머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바넷이 나타난 것 자체가 그가 상상할 수조차 없던 일이라 당황스러웠고, 동시에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또 바넷이나, 매번 바넷이나. 그는 또다시 피할 수 없는 바넷과 부딪혀, 그 끔찍한 협력 관계를 감수해야만 하는 걸까.

그가 관여하는 모든 사건에서 바넷이 오직 속이고 사기치는 것만을 노린다는 것은 이미 명백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베슈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는 아직까지도 짙은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헤매고 있을 뿐, 단 한 가지라도 밝혀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베슈가 침묵을 지키자, 바넷이 다시 말을 이었다.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들모아젤. 신뢰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확신을 굳힌 베슈 형사가, 당신의 확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당신은 아직 몇 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만, 아레스카르 백작, 곧 당신의 오라버니가 당한 비극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옷을 입은 에리자베트 드 아레스카르는 키가 크고 창백했으며, 진지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엄숙한 얼굴에는 억누르던 통곡이 가끔씩 떨어 나오는 듯했다.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침묵을 지키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이 의무를 저에게 지우시니, 저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바넷이 다시 입을 열었다.

“친구이신 베슈 형사가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님을 뵈는 시각이 정확히 몇 시였는지요?”

“저녁 열 시였습니다. 평소처럼 즐겁게 저녁을 먹었죠. 저는 장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제보다 몇 살 아래였지만, 거의 저를 키워준 형이었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함께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가 밤중에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새벽 세 시 사십오 분쯤, 해가 뜨기 직전에야 나갔습니다. 우리 집 오래된 하녀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이전 날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테라스 위에서 낚시를 할 거라고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 시 사십오 분부터 시신이 발견된 순간까지의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섯 시 사십 분쯤 총성이 들렸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어떤 밀렵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결국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테라스에 나가니 이미 저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우리 쪽 경사가 너무 가파르자 그들은 성채의 공원으로 시신을 옮겨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폭발음은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관계가 있었다면, 시신 검시 과정에서 총알에 의한 상처가 발견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녀가 망설이자 Barnett이 재촉했다.

“제발, 대답해 주십시오.”

그녀가 말했다.

“현실이 어떠하든, 저는 그 연관성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일단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요…?”

“아니요. 장은 놀랄 만큼 민첩하면서도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토록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자신의 목을 맡길 리가 없죠.”

“하지만 그 나뭇가지는 결국 부러졌잖아요.”

“그 나뭇가지가 장 때문에 부러졌다는, 그리고 그날 밤에 부러졌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스, 당신의 솔직하고 단호한 의견은 결국 살인이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당신은 이미 증인들 앞에서 범인을 지목했잖아요.”

“그런데 가니마르 형사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입니다.”

엘리자베트는 몇 초 동안 생각에 잠겼다.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굳히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무 해 전의 일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 무렵, 제 아버지는 공증인의 도망으로 인해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채무 변제를 위해 그는 게레의 한 부유한 산업자로부터 도움을 청해야 했죠.

그 산업자는 이백만 프랑을 빌려주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오 년 후에 갚지 못한다면, 성채와 영지, 그리고 마쥐르슈의 토지 전체를 자신의 것으로 한다는 것이었죠.

— 그 산업자가 조르주 카제본의 아버지였습니까?

— 그는 그 성채에 집착했습니까?”

“매우 그렇습니다. 그분은 몇 번이나 그 집을 사려 했죠. 그리고 사십 사 년 십 일 달이 지난 뒤, 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는 우리 삼촌이자 후견인에게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버지는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장과 저는 쫓겨났고, 바로 그 삼촌이 우리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삼촌은 바로 이 저택에 살고 계셨지만, 연금도 아주 적으셨죠. 삼촌은 거의 즉시 돌아가셨고, 카제봉 씨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바넷과 베슈 형사는 경청했다. 바넷이 입을 열었다.

“친구인 베슈 형사는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드알레스카르 씨는 경멸이 섞인 놀란 눈으로 베슈 형사를 바라보며, 대답 대신 계속했다.

나와 장은 그 작은 저택에서 둘이서 살았다. 성채와 망루가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었다. 그곳은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땅이었다.

장은 해가 갈수록 그 고통이 커졌다. 그가 청소년으로서 지성과 감수성을 키워갈수록, 그 아픔은 더 깊어졌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그 땅을 자신의 영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놀이와 공부 틈틈이 하루 종일을 내어 우리 가문의 기록을 뒤졌다. 우리 가족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권의 책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그 종이는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 해에 적어둔 장부였다. 아버지는 절약과 땅 거래로 모은 돈의 액수를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그곳에는 은행 영수증도 끼어 있었다. 나는 곧장 그 은행으로 달려갔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죽기 일주일 전 예금 계좌를 정리하고 만 있었다. 그는 계좌에 쌓여 있던 천 프랑짜리 지폐 이백 장을 모두 인출해 간 뒤였다.

“바로 그 돈이었죠. 며칠 뒤 갚아야 할 금액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갚지 않은 걸까요?”

“모르겠어요.”

“수표로라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요. 아버지는 나름의 습관이 있으셨죠.”

“결국 그 이십만 프랑을 어딘가 안전한 곳에 숨겨두셨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어디에?”

에리자베트 드 알레스카르가 바넷과 베슈에게 두께 스무 장쯤 되는, 숫자로 가득 찬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답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에는 원의 사분의 삼을 나타내는 도형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작은 반원이 하나 붙어 있었다.

반원형 선을 가로지르는 네 개의 짧은 선. 그중 두 선 사이에는 작은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다. 처음엔 연필로 그렸다가, 나중에 잉크로 다시 꺾안듯 짙은 흔적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바넷이 물었다.

“우리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의 불쌍한 장이 이 그림이 바로 ‘구성(Old Keep)’의 정확한 평면도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바깥 윤곽만 줄인 것이죠.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원이 붙어 있는 구조도 같았습니다. 네 개의 짧은 선은 성벽의 네 곳 뚫린 곳을 뜻했지요.”

“그리고 십자는?”

바넷이 이어 물었다.

“알레스카르 백작이 만기일을 기다리며 이 지폐 두백 장을 숨겨둔 곳입니다.”

“네.”

젊은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바넷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다시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결론을 내렸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레스카르 백작은 자신이 정한 위치를 기록해 두었을 테고,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그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릴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카제봉 씨의 아들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탐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요? 우리가 그렇게 했죠. 조르주 카제봉은 평소 우리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도,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했습

니다. 하지만 성탑으로 어떻게 올라가야 할까요? 계단은 15년 전에 무너져 내렸어요. 돌들이 벌어지고, 꼭대기는 부스러져 가고 있었죠. 30미터 높이의 해자벽에 닿을 만한 사다리나 사다리를 이어 만든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무리하게 등반할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우리는 수개월 동안 수군수군 대며 구상안을 세웠지만, 결국…”

“불화였군요, 맞나요?” Barnett이 말했다.

“네.”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조르주 카제본이 당신에게 반해, 당신의 손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잔인하게 변했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섰습니다.

이 일로 장 다르스카르는 마쥐르슈 영토에 들어갈 권리를 잃었습니다.

“사실 그대가 말한 대로 일이 진행되었어요.” 젊은 여자가 말했다. “하지만 제 동생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 돈이 필요했어요. 가족 소유지의 일부를 되찾거나, 제게 결혼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지참금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에게 집착이 되었죠.”

그는 성탑 바로 맞은편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높은 탑 꼭대기를 바라보며 밤낮으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든 그 곳에 도달할 방법을 천 가지로 고안해 냈죠.

활쏘기를 연습했고,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줄이 달린 화살을 쏘아 올렸습니다. 화살이 특정 각도로 떨어지면, 그 줄에 밧줄을 매달아 탑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최대 60미터 길이의 밧줄까지 준비했지만, 결과는 늘 실패였습니다. 그 실패는 그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죽기 전날 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이렇게 매달리는 건,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야.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직감하고 있어. 옳은 일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하느님의 은총으로든, 세상의 이치로든 이루어지거든.”

바넷이 다시 입을 열었다.

“결국, 그는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죽었다고 보는 거요?”

“줄이 원래 있던 자리에 없단 말ियो?”

“그럼 대체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거요?”

“그 폭발음 말입니다. 조르주 카제본이 제 형을 발견하고 총을 쏘았죠.”

“오, 오!” 바넷이 외쳤다. “조르주 카제본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यो?”

“네. 그는 충동적인 성품입니다. 자제하긴 하지만, 본능이 격해지면 폭력적인 극단으로 치닫고, 심지어 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총을 쏘다는 거요? 형이 번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드알레스카르 씨가 말했다. “어떻게 살해가 자행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 가엾은 장의 시신에는 상처 자국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내 확신은 완전하고 절대적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보다 직관에 더 가까운 주장 아닙니까?” 바넷이 말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법정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르주 카제본이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말 드알레스카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는 가엾은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말한 게 아닙니다. 가해자의 처벌로 동생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만약 조르주 카제본이 저를 고소한다 해도, 그건 그의 자유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양심에 따라 답할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있을 겁니다. 그건 확신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면담은 끝이 났다. 짐 바넷은 더 이상 끈질기게 묻지 않았다. 알레스카르 여사는 위압하기 쉬운 여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스, 당신의 고요함을 방해해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규명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슈 형사가 당신의 말씀에서 필요한 교훈을 잘 이끌어 낼 것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가 인사를 하고 나갔다. 바슈 형사도 고개를 숙인 뒤 그를 따라 나섰다.

밖으로 나온 형사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침묵을 지켰다. 이는 점점 더 짜증을 내던 협력 관계에 대한 항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미궁 같은 사건이 자신에게 안긴 당혹감을 감추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바넷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당신 말이 맞아요, 베슈. 당신의 깊은 뜻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의 진술을 보면, 용서해 주십시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다 들어 있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진실과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뒤섞여 있어요.

젊은 알레스카르 후작의 수법은 정말 유치합니다. 만약 그 불쌍한 아이가 탑 꼭대기에 올랐다면—저는 당신의 속마음과 달리, 그것을 믿고 싶군요—그것은 그가 간절히 바랐지만,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 덕분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렇게 생깁니다. 이 젊은이가 두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등반 방법을 고안하고, 준비하고, 실행한 뒤 내려와 총알을 피해 공중으로 떨어졌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점이죠. 총알은 그를 맞히지 못했으니까요.”

짐 바넷이 생각에 잠겨 다시 말했다.

“총알이 맞지 않았다는 거죠… 맞지 않았다고. 베슈, 여기엔 기적이 숨어 있는 것 같군요…”

그날 저녁, 바넷과 베슈는 마을의 여관에 다시 모였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 혼자 저녁을 먹었다. 이틀 동안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들은 식사 시간에만 마주쳤다. 나머지 시간 동안 베슈는 수사와 심문을 계속했고, 바넷은 저택의 정원을 돌아 terrace보다 조금 더 떨어진 곳, 구성당과 크레즈 강이 보이는 초원 언덕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낚시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기적을 발견하려면 그 흔적을 쫓기보다 그 본질을 직관해야 한다. 장 달라스카르는 상황의 호의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

하지만 그는 사흘째 되는 날 기꺼이 게레로 향했다. 그는 이미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미리 정해둔 사람처럼 당당했다.

드디어 사흘째 날, 그는 베슈와 마주쳤다. 베슈가 말했다.

“수사를 마쳤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베슈.”

“그럼 파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도 그래요, 베슈. 차에 태워 드릴게요.”

“좋습니다. 하지만 사십오 분 뒤 카제봉 씨와 약속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겠습니다.” 바넷이 말했다. “이 시골 마을은 정말 지겹군요.”

그는 여관 값을 치르고 성으로 향했다. 공원을 둘러본 뒤, 조르주 카제본에게 명함을 건넸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니마르 형사의 협력자, 베슈”

그는 넓은 홀에 안내되었다. 홀은 건물의 한쪽 날개를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 벽에는 사슴 머리와 갖가지 무기가 걸려 있었고, 유리장 안에는 총과 사격·사냥 자격증이 진열되어 있었다. 조르주 카제본이 그곳에서 그를 맞았다.

“제 친구인 베슈 형사가 곧 여기서 저를 만나게 됩니다. 바넷이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 사건을 조사해 왔고, 이제 함께 출발합니다.”

“베슈 형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르주 카제본이 물었다.

“명확합니다, 선생님. 이 사건을 달리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알레스카르 공작은요?”

“베슈 형사에 따르면, 알레스카르 공작은 슬픔으로 인해 정신이 흐려져 있습니다. 그의 말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것도 바넷 선생님의 의견입니까?”

“아, 저는 그저 보잘것없는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제 생각은 베슈의 의견에 달려 있죠.”

그는 홀을 거닐며 진열장을 바라보았다. 그 컬렉션에 흥미를 느꼈던 것이다.

“총이 정말 멋지네요, 그렇죠?” 조르주 카제본이 말했다.

“아주 훌륭하군요.”

“당신은 수집가이십니까?”

“저는 특히 그 정교함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격증과 인증서들. ‘생뒤베르의 제자들’, ‘크뢰즈의 사냥꾼’ 등등. 이걸 보면 당신이 장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게레에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게레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많이 떠들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의 사격 실력은 거기서 이미 입에 오르내릴 정도죠.”

그가 총 한 자루를 들어 손에 쥐고 무게를 재어 보았다.

“조심하십시오.” 조르주 카제본이 경고했다. “이건 전쟁용 총입니다. 총알이 장전되어 있죠.”

“악당들을 상대하기 위한 건가요?”

“오히려 밀렵꾼들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죠.”

“정말, 선생님, 그걸 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다리 하나를 확 끊어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창문 중 하나에서 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사냥꾼들이 그 근처까지 다가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정말 재미있겠군요. 왕족 같은 즐거움이라니요…….”

바넷이 구석에 자리 잡은 반쯤 열린 좁은 창문을 열었다.

“자, 보세요.” 그가 외쳤다. “나무 사이로 구 성탑의 일부가 보입니다. 대략 이백오십 미터쯤 떨어져 있네요. 크루즈 강 위로 돌출된 부분 일 테죠, 맞습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정확히 맞습니다. 보세요. 두 돌 틈에 레빈델 꽃덤불이 있네요. 저 충구 끝에 있는 노란 꽃, 보이시죠?”

그가 총을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재빨리 방아쇠를 당겼다. 꽃이 떨어졌다.

조르주 카제본이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겸손한 조력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 기막힌 숨씨로 어찌 이토록 시끄럽게 굴 수 있는 것인가?

“가신들은 성의 반대편에 살고 계시죠, 바르네트 씨?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을 수 없을 겁니다.”

바르네트가 말했다.

“하지만 아레스카르 후작에게 가혹한 추억을 심어준 건 아쉽군요.”

조르주 카제본이 미소를 지었다.

“아레스카르 후작은 여전히 다른 날의 충격 사건과 그의 동생이 겪은 사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고집하는군요?”

“그 연관성을 어떻게 파악한 겁니까?”

“제가 방금 스스로 파악한 방식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이 창문에 숨어 있던 누군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성탑 옆으로 매달려 있던 그의 동생이 있었죠.”

“하지만 그의 동생은 추락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두 손으로 잡았던 돌기나 돌조각이 해체되면서 추락한 것이죠.”

조르주 카제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드알레스카르 씨의 진술이 이렇게 명확한 성격의 것이라니, 그리고 그것이 명백한 고발로 이어진다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명백하죠.” 바넷이 되풀이했다.

상대방이 그를 바라보았다. 겸손한 조력자의 당당함과 어조, 그리고 결단력 있는 태도가 조르주 카제본을 점점 더 놀라게 했다. 그는 이 형사가 공격적인 의도로 찾아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었다.

결국 산만하게 시작된 대화가 양측 모두에게 공격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 카제본은 맞서야 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그 높은 곳을 오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두십만 프랑을 아버지가 숨겨두셨다는 건, 그분에게 보여준 그림의 작은 십자 표시가 가리키는 장소에 말입니다.”

“그건 제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은 해석입니다.” 조르주 카제본이 항의했다. “설령 그분이 그 돈을 모았다고 해도, 왜 숨겨두셨을까요? 그냥 제 아버지께 바로 돌려드렸어야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 반박도 일리 있습니다.” Barnett이 인정했다. “다만 숨겨둔 것이 꼭 돈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던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가정부터 세워봐야죠.”

조르주 카제본은 어깨를 으쓱했다.

“엘리자베트와 장 달레스카르가 모든 가능성을 따져봤다는 건 확실합니다.”

“모르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저처럼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라 해도, 없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때때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게레에서 신문 판매점을 운영하며 예전에 귀사의 공장에서 회계 일을 했던 그레오 씨를 아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네요.”

“그레오 씨는 장 백작의 아버님이, 백작의 아버님이 은행에서 20만 프랑을 인출한 다음 날, 귀사의 아버님을 방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요?”

“그 방문 중에 20만 프랑이 전달되었고, 그 영수증이 성탑 꼭대기에 임시로 숨겨졌다고 보는 건 어떨까요?”

조르주 카제봉이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하지만 선생님, 당신의 그 추측이 제 아버님의 명성에 얼마나 모욕적인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Barnett이 무심한 듯 물었다.

“만약 그 돈을 받았다면, 제 아버지는 솔직하게 밝혔을 겁니다.”

“왜요? 개인적으로 해준 빚을 갚았다고 남들에게 알릴 의무는 없잖아요.”

조르주 카제본이 책상 위에 주먹을 내리쳤다.

“하지만 그는 채무자가 죽은 지 며칠 뒤, 즉 이를 뒤에도 마주르슈 영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미쳤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런 주장을 하려면 논리가 필요해요, 선생님. 설령 제 아버지가 이미 받은 돈을 또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영수증을 들이밀까 봐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 특히 상속인들이 상환 사실을 모른다는 점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Barnett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그가 이 땅을 매우 아끼고, 반드시 손에 넣겠다고 맹세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혹에 빠진 것이죠.”

이렇게 Jim Barnett의 교묘하고 끈질긴 암시가 이어질수록 사건의 양상은 서서히 달라졌다. 문제의 중심에 선 Cazévon 부인은 배신과 사기죄로 몰리게 되었다. 분노에 떨며 얼굴이 창백해진 Georges Cazévon은 주먹을 짝 쥐고, 차분한 어조로 끔찍한 사실을 늘어놓는 이 하급 직원을 경악한 눈초리로 지켜보았다.

“당신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당신은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추측이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은 완전히 사실입니다.”

이 예기치 못한 상대가 쌓아 올린 추측과 가설의 벽을 깨고, 조르주 카제본이 외쳤다.

“거짓말입니다! 당신에게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으려면, 구성(구성) 꼭대기로 올라가야 합니다.”

“장 달스카르가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제30미터 높이의 탑을 오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두 시간 만에 끝내다니요.”

“장 달스카르가 그 일을 해냈다고요.” Barnett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요? 어떤 마법이라도 썼단 말입니까?”

Barnett은 짧게 한 마디 던졌다.

“밧줄을 이용했습니다.”

카제본은 폭소를 터뜨렸다.

“줄? 그건 미친 짓이야! 그렇지만, 나는 정말로 백 번은 그를 보았어. 그는 자신이 준비해 둔 줄에 걸리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희망으로 화살

을 쏘아 올렸지. 불쌍한 아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게다가, 내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단 이 시간 안에? 그리고 그 줄은 사고 직후에 성탑 위나 크레즈 강가의 바위들에 있었어야 해. 그런데 말이지, 그 줄은 성채에 있는 거야, 말이야.”

짐 바넷은 여전히 차분하게 반박했다.

“그건 그 줄이 아니야.”

“그럼 대체 무슨 말입니까?” 조르주 카제봉이 긴장한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도대체 그 이야기가 진지한 건가요? 장 백문이 마법 같은 로프를 손에 쥐고 새벽녘 정원의 테라스로 내려와 마법 주문을 외우자, 로프가 혼자서 성탑 꼭대기까지 내려왔다는 말씀이십니까? 힌두스탄의 요기들이나 할 법한 기적이라는 건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바넷이 말했다. “저도 기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 달레스카르가 마지막 희망으로 믿었던 기적이었고, 제 확신도 그 아이디어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상상하신 것과 정반대로 일어났습니다. 통상적인 상식이나 가능성에 따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카제봉이 농담조로 물었다.

“그렇다면 천의 Providence, 즉 신께서 자신의 선택한 자에게 구조 부표를 던져주신 것일까요?”

Barnett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신성한 개입, 즉 자연의 법칙을 왜곡하는 기적을 기대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기적은 오늘날의 단순한 우연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우연이라니!”

“그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는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기발하며,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가장 기묘한 힘이다. 우연은 서로를 가깝게 모으고, 가장 이질적인 조합들을 무수히 만들어낸다. 그리고 가장 서로 다른 요소들을 모아 매일의 현실을 창조한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우연뿐이다. 그리고 내가 상상하는 그 우연은, 하늘에서 운석이나 먼지 말고는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 우리 시대에 그렇게 특이한 것일까?”

“밧줄이요!” 카제봉이 비웃었다.

“밧줄이든, 뭐든 상관없어. 바다 밑바닥에는 배들이 떨어뜨린 것들이 널려 있거든. 그 배들은 바다를 가로지르고 다니는 배들이지.”

“하늘에 배는 없어.”

“물론 있습니다. 다만 이름이 다를 뿐이죠. 풍선, 비행기, 또는 dirigible(비행선) 같은 것들요. 이들은 바다를 오가는 배들처럼 하늘을 자유자재로 누비며, 그 아래로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떨어지거나 던져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 중 하나가 밧줄 말린 것이었다면, 그리고 그 밧줄이 성탑의 뾰족한 장대에 걸렸다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죠.”

“간단한 설명이군요.”

“당연한 추리입니다. 지난주 나온 지방지들을 제가 어제처럼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장 자크 백작이 죽기 전날 밤, 자유로운 풍선이 그 지역을 지나갔다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풍선은 게레에서 북쪽으로 15킬로미터 지점에서 모래주머니 여러 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풍선이 밧줄 한 뭉치도 던졌을 것이라고 필연적으로 추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밧줄의 한쪽 끝이 테라스의 나무들 중 하나에 걸렸고, 장 자크 백작이 그걸 풀기 위해 나뭇가지를 부러뜨렸으며, 테라스에서 내려와 두 끝을 손에 쥐고 서로 묶은 뒤 등반했을 것이라고요.

어려운 기예지만, 그의 나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카제봉이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 전체가 경직되었다.

“그리고 나서, 바넷이 결론을 내렸다. ‘창문 근처에 있던 아주 손재주가 뛰어난 사격수가 그 공중에 매달린 남자를 보고, 밧줄을 쏘아 끊어 버린 거죠.’

‘아, 카제봉이 낮게 말했다. ‘그렇게 사고라고 보시는군요?’

‘그리고 바넷이 계속했다. ‘그 사람은 강가까지 달려가 시신을 뒤져서 영수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매달려 있던 케이블 끝을 재빨리 잡아당겨 케이블 전체를 자신 쪽으로 당겼죠. 그런 다음 증거물로 사용

할 그 조각을 어딘가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법정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곳이에요.”

이제 기소의 방향이 바뀌었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논리적 연결고리가 분명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카제본은 몸부림치며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상대방의 말보다는 그 사람 자체에게 분노했다.

“이런 일관성 없는 변명과 터무니없는 추측은 이제 질렸소! 당장 여기서 꺼져! 당신 같은 험박꾼을 문전에서 쫓아냈다고 베슈 씨에게 알리겠소.”

“제가 당신을 험박할 생각이었으면, 먼저 증거를 내보였을 텐데요.” Barnett은 웃으며 말했다.

카제본은 격분한 나머지 소리쳤다.

“증거가 뭐냐? 너는 증거가 있냐? 말뿐이지, 헛소리일 뿐이다. 하지만 단 하나의 증거만 있어도…… 설마 그런 게 있겠냐? 증거라니, 우리 둘을 끝장낼 수 있는 증거는 단 하나뿐이다. 그걸 못 보여주면, 네가 쌓아 올린 그 바보 같은 추측은 모두 무너져 내린다. 너는 그냥 장난치는 놈일 뿐이야.”

“그게 뭐지?”

“영수증이지, 뭐! 내 아버지가 서명한 영수증.”

Barnett이 구겨지고 누렇게 변한 접힌 자국들이 뚜렷한 인지용지를 펼쳐 보였다.

“이거 맞지? 내 아버지의 필체야? 내용도 명확해?”

나는 카제본 오귀스트가 이 문서로, 알레스카르 백부로부터 내가 그에게 빌려준 20만 프랑을 받았음을 확인한다. 이 상환금으로 그는 내게 자신의 성채와 토지에 설정한 담보권에서 아무런 이의도 없이 해방된다.

“이 날짜는 그레오 씨가 지목한 날과 일치합니다. 서명도 있죠. 그러니 이 문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도 이 문서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자백을 통해였거나, 그가 남긴 비밀 문서를 통해였거나 말요. 이 문서를 발견하는 것은 곧 당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당신을 유죄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아버지가 끝까지 고집하던 성채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당신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 영수증을 되찾았을 텐데.”

“당신은 시체에서 그것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조안 백작은 조심성 있게 그걸 돌에 묶어 탑 꼭대기에서 던졌고, 나중에 주워 올 계획이었죠. 저는 강가에서, 이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돌을 찾아냈습니다.”

Barnett은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조르주 카제본이 그 문서를 빼앗으려 했기 때문이다.

두 남자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넷이 입을 열었다.

“그런 제스처는 자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빛에 담긴 그 황홀함! 알레스카르 백작이 말했듯이, 당신은 그런 순간이면 무얼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일이 어제 밤, 당신도 모르게 일어나버린 거죠. 자,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정문에서 종소리가 납니다. 베통 형사가 왔네요. 그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는 게 당신에게 유리할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마침내, 여전히 어지러운 눈빛을 가진 조르주 카제본이 속삭였다.

“얼마야? 이 영수증에 얼마를 줄 거야?”

“이것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그럼 당신이 보관하는 건가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베통 형사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을 거부하면요?”

“당신을 고발하겠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조르주 카제본은 자신의 적수가 지닌 압도적인 힘과 돌이킬 수 없는 의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바로 하인이 베슈를 들였다.

바넷이 성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가니마르 형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대체 저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말인가? 이 끔찍한 바넷이 이미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말을 건넸을까 봐?

그런 두려움이 그의 증언을 한층 더 단호하게 만들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조르주 카제본의 손을 짝 쥐며 말했다.

“선생님, 제가 떠나기 전에 조사 결과와 제가 작성할 보고서의 요지를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사건을 바라보던 관점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는 바넷이 썼던 표현을 그대로 빌려 덧붙였다.

“마르키스 드 알레스카르 씨가 퍼뜨린 소문은 전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바넷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좋습니다. 바로 그 말이 제가 카제봉 씨에게 했던 말입니다. 제 승이시며 친구이신 베슈 씨가 또다시 평소와 다른없는 통찰력을 보여주시는군요. 한편으로는, 카제봉 씨가 자신에게 날조된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 가장 관대한 태도로 대응하셨다는 점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영지를 드 알레스카르 씨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베슈는 마치 해머로 머리를 강타당한 듯 멍해졌다.

“뭐라고요?... 정말로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Barnett이 단정했다. “이런 일들이 겹치자 Cazévon 씨는 이 나라에 대해 다소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Guéret 공장과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을 눈여겨보고 있죠. 제가 들어갔을 때 Cazévon 씨는 이미 기부금 증서 초안을 작성할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Alescar 씨에게 위자료로 지급할 수표 10만 프랑을 증서에 추가하고 싶어 했습니다. 맞죠, Cazévon 씨?”

Cazévon 씨는 주저하지 않았다. Barnett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의 뜻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증서를 작성하고 수표에 서명했다.

“자, 이제 제가 공증인에게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바넷은 두 장의 문서를 받아 들고 봉투를 하나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문서를 넣은 뒤 베슈에게 말했다.

“이걸 드 알레스카 부인에게 가져다주시오. 카제봉 씨의 그 수법을 부인이 얼마나 높이 평가할지, 나는 확신하오. 안녕히 계십시오, monsieur. 베슈와 저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 결말에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재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베슈가 뒤를 따라왔지만, 그는 점점 더 당혹스러운 표정이 되어 공원을 거닐며 중얼거렸다.

“그래, 도대체 누가 총을 쏜 거야?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는 거야?”

“그건 신경 쓰지 마, 베슈.” 바넷이 말했다. “이 일은 이제 손 떼어라. 이미 해결됐고, 보듯 공동의 이익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말이야. 그러니 드 알레스카 부인에게 당신의 임무를 다하고… 침묵과 잊힘을 요청한 뒤 여관으로 오시오.”

15분 뒤, 베슈가 돌아왔다. 드 알레스카르 백작 부인은 유증을 수락했다. 대신 그녀의 변호사가 조르주 카제본의 변호사와 연락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일절 받지 않았다. 그녀는 화가 나서 수표를 찢어버렸다.

바넷과 베슈는 떠났다. 짧고 침묵 가득한 여정이었다. 가니마르 형사는 헛된 추측만 일삼으며 지쳐갔다. 그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바넷 친구도 자문을 구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후 3시쯤 파리에 도착한 그들은 바넷이 베슈를 보르세 근처에서 점심을 먹자고 권했다. 베슈는 멍하니, 그 멍함에서 벗어나려 하지도 못한 채 받아들였다.

“주문하세요. 제가 잠시 용무를 보겠습니다.” 바넷이 말했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그들은 배부르게 식사를 했다.

커피를 마시던 베슈가 입을 열었다.

“저는 카제봉 씨에게 수표 조각들을 돌려보내야겠군요.”

“그런 수고까지 하지 않아도 되네, 베슈.”

“왜요?”

“그 수표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알레스카르 백작이 거절할 것을 예상하고, 증여 계약서와 함께 만료된 낡은 수표를 봉투에 넣었던 거야.”

“하지만 진짜 수표는요?” 베슈가 비명처럼 탄식했다. “카제봉 씨가 서명한 진짜 수표는요?”

“방금 은행에서 받아왔네.”

짐 바넷은 재킷 단추를 풀고 주머니에서 한 뭉치의 지폐를 꺼내 보았다.

베슈의 커피 잔이 손에서 떨어졌다.

그들은 오랫동안 담배를 피웠다. 서로를 마주 보고 앉아.

마침내 짐 바넷이 말했다.

“정말, 베슈. 지금까지 우리 협력은 꽤 잘됐어. 출장을 갈 때마다 성공이 따랐고, 그 덕분에 내 작은 저축도 불어났지. 내가 직접 돈을 건네고 있으니, 너에게 미안할 지경이야. 우리 함께 일하는데 내가 모든 돈을 다루고 있으니까. 자, 베슈, 어떻게 생각해? 파트너 자리를 제안해. ‘바넷 & 베슈 흥신소’라니, 이름도 괜찮지 않나?”

베슈는 증오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토록 한 남자를 싫어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서를 내기 위해 지폐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가, 떠나면서 이를 갈았다.

“때때로 나는 이 인간이 악마 그 자체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어.”

“나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곤 해.” 바넷이 웃으며 말했다.

제7장

베슈가 택시에서 뛰어내려 허리케인처럼 흥신소로 돌진했다.

“아, 참 좋군!”

Barnett이 달려오며 외쳤다. “그때는 서로 냉정하게 헤어졌잖아. 네가 화가 나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뭐, 내가 필요해?”

“그래, Barnett.”

Barnett은 그의 손을 힘껏 흔들었다.

“그래서 더 좋군. 그런데 무슨 일이야? 네 얼굴이 완전히 붉어졌잖아. 성홍열이라도 걸렸나?”

“장난치지 마, Barnett. 이 일은 만만치 않아. 나는 명예를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무슨 일이야?”

“내 아내 문제야.”

“아내? 네가 결혼을 했었나?”

“6년 전에 이혼했지.”

“성격 차이였나?”

“아니야. 그녀가 자신의 소명을 따랐을 뿐이야.”

“그 소명이라니, 너를 떠나는 거였나?”

“그녀는 배우가 되고 싶었어. 네가 상상할 수 있겠어? 경찰
Inspecteur의 아내라니!”

“그리고 그녀는 성공했나?”

“네, 노래를 해요.”

“오페라극장?”

“폴리에르제르 극장이요.”

“이름이 뭐예요?”

“올가 보반.”

“그 아크로바틱 가수?”

“네.”

짐 바넷이 열렬한 박수를 치며 감탄했다.

“축하합니다, 베슈! 올라 보반은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비틀린’ 가사로 새로운 양식을 개척했죠. 거꾸로 매달려 부르는 마지막 곡, ‘이시 다르… 나를 사랑해. 하지만 제임스… 내가 사랑하는 건’을 들으면 큰 예술이 주는 전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그녀가 보내온 편지입니다.” 베슈가 아침에 도착한 연필로 대충 쓴 편지를 꺼내 읽었다.

‘침실 도난. 어머니가 거의 살해당함. 와요. — 올라’

“‘거의’라는 표현이 참 신박하네요.’ 바넷이 말했다.

베슈가 다시 말을 이었다.

“바로 그제야 경찰청에 전화를 걸었소. 사건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동료 형사들 중 한 명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뭘 두려워한다는 거요?” Barnett이 물었다.

“다시 그 여자를 보는 게 두렵습니다.” Béchoux의 목소리는 초췌해 보였다.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건가?”

“그녀를 보면 전부터의 감정이 다시 찾아와요. 목이 조여오고, 말도 더듬거려요. 그런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는 게 가능하나요? 저는 멍청한 짓만 할 게 뻔해요.”

“그렇다면, 그녀 앞에서는 체면을 세우고 자신의 명성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뜻이요?”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나를 믿고 기대한다는 말이요?”

“네, Barnett.”

“奧가(奧가)라는 부인의 행실은 어떤가?”

“결점 하나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 재능을 가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Olga Béchoux 부인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건 예술을 위한 손해겠군요.” Jim Barnett이 진지한 표정으로 모자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잠시 후 그들은 룩상부르 정원을 둘러싼 거리 중 가장 고요하고 한적한 곳 중 하나에 도착했다. 올가 보방은 중산층 주택의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층의 높은 창문들은 철창으로 단단히 막혀 있었다.

“한 마디만 더 하죠, 바넷.” 베슈가 말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작전을 치욕으로 물들이는 이런 약탈 행위는 그만두세요.”

“제 양심에…” 바넷이 반박했다.

“양심은 놔두고, 제 양심과 그 양심이 저에게 하는 질책을 생각하세요.”

“제가 올라 보방을 털어먹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당신에게 아무도 털지 말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 사람도요?”

“그들을 처벌하는 일은 법에 맡기세요.”

바넷이 한숨을 쉬었다.

“정말 재미가 없군요! 하지만 어쨌든 당신이 원하시니…”

경찰 한 명이 문지기를 서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사건으로 심통이 난 concierges 부부와 함께 현관 로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베슈는 구청장과 형사국 소속 형사 두 명이 방금 집을 나섰으며, 조사판사가 간단한 수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사람이 없는 틈을 타자.” 베슈가 바넷에게 말했다.

그는 계단을 오르면서 설명했다.

“여기는 옛날 가옥이라 예전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어. 예를 들어 문은 항상 잠겨 있고, 열쇠를 가진 사람은 없어. 올려야만 들어갈 수 있지. 1층에는 성직자가 살고, 2층에는 법조인이 산다. 그리고 이 집주인

이 그들의 집안일을 봐주지. 올가는 어머니와 자신을 키워준 두 노파와 함께 가장 단정하고 respectable한 생활을 하고 있어.”

문을 열어주었다. 베슈가 설명을 덧붙였다. 옷장 뒤쪽 오른쪽으로 가면 올가의 방과 부두아르로 이어지고, 왼쪽으로는 어머니와 두 노파의 방이 있다고 했다. 정면에는 그림 공방을 운동실로 바꾼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철봉과 트라페즈, 링이 놓여 있었고, 여러 가지 운동 기구들이 안락의자와 소파들 사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들이 이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가 위에서 떨어졌다. 천장에 난 유리창으로 햇빛이 들어오던 곳이었다.

그것은 한 소년이었다.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머리 위로 훑날리는 붉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 아래로 사랑스러운 얼굴이 드러났다. 허리까지 조이는 파자마를 입은 그를 보고 Barnett은 올가 보방임을 알아챘다. 그녀는 곧장 구어체로 된 특유의 억양으로 외쳤다.

“알고 있어, 베슈. 엄마는 잘 지내셔. 지금 주무시고 계지. 내 사랑스러운 엄마! 운이 좋았어!”

그녀는 두 팔을 쭉 펴고 몸을 일으켰다. 발은 공중으로 향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감미롭지만 약간 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이지도르… 나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자미에.”

“나도 너를 좋아해, 친애하는 베슈.”

일어선 그녀는 말했다.

“너 이렇게 빨리 와줘서 고마워. 정말 멋져.”

“짐 바넷, 친구입니다.”

베슈가 소개했다. 그는 애써 침착하려 애썼다. 하지만 눈가는 붉어졌고, 신경질적인 떨림이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

“완벽해요. 당신 둘이서 이 일을 싹 정리해서 제 침실을 돌려놓으세요. 당신들 일이니까요. 아, 제 차례입니다. 델 프레고를 소개할게요. 제 체조 교사이자 마사지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연고와 미용 제품 상인입니다. 이 뮤지컬 극장 여배우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죠. 그 사람만큼 당신을 젊어지게 하고 몸을 풀 줄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인사하세요, 델 프레고.”

델 프레고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넓고 피부는 구리빛을 띠었으며, 활짝 핀 얼굴에 전 마당쇠 같은 풍채였다. 회색 옷에 흰 부츠를 신고, 장갑도 하얗게 끼고 있었다. 손에는 연한 색 펠트 모자를 쥐고 있었다.

그는 곧장 팔을 휘저으며, ‘르’ 발음을 거칠게 섞어 쓰며, 프랑스어에 스페인어와 영어, 러시아어 단어를 섞어 자신의 ‘점진적 분리법’을 설명하려 했다.

올가가 그의 말을 끊었다.

“시간이 없어. 뵈슈, 네가 필요한 정보는 뭐야?”

“일단, 방을 좀 보여주세요.”

“자, 빨리 가자!”

올가는 단숨에 트라페즈에 매달렸다. 흔들리는 힘으로 두 개의 고리를 타고 내려와, 문 앞에 쿵 하고 떨어졌다.

“여기입니다.”

방은 완전히,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다. 침대도, 가구도, 커튼도, 그림도, 거울도, 카펫도, 소품도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 이사꾼들이 모든 것을 가져간 방보다 더 허전할 수는 없었다.

올가는 비명을 지르며 웃었다.

“어때? 정말 깨끗이 털었어! 내 상아 빗세트까지 싹 가져갔다고! 먼지까지 가져갔나 봐!”

그녀가 신이 나서 말했다.

“내가 그 방에 얼마나 애정을 가졌는지 모르겠어. 순수한 루이 15세 스타일이지. 하나하나 모은 거야. 폼파두르가 잠자던 침대도 있었고! 뵈슈의 판화 네 점도 있고! 서명이 있는 서랍장도 있고! 정말 보물 같은 것들이었어. 내 미국 순회 공연 수익이 모두 그 방에 들어갔다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공중제비를 돌며 머리를 흔들고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하, 또 하나 사면 되지. 내 고무 같은 근육과 쉰 목소리라면 걱정할 것 없어… 그런데 왜 그렇게 나를 노려보니, 베슈? 네가 내 발치에 쓰러질 것 같아 보여. 어서 와, 내가 너를 껴안고, 질문을 털어놓자. 검찰 측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 일을 끝내자고.”

베슈가 말했다.

“일어난 일을 말해 봐.”

“아니, 그다지 길지 않아요.”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어제 밤, 열 시 반이 막 울렸을 때의 일입니다. 엄마 대신 제가 몰래 폴리에르베르로 나가야 했는데, 델 프레고가 저를 데려다주기로 했죠. 엄마는 그 시간쯤이면 뜨개질에 빠져들곤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제 방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달려가서 보니, 전등 불빛이 깜빡이며 꺼지는 사이, 한 남자가 침대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다른 남자가 천장에서 툭 떨어지듯 내려와 엄마를 쓰러뜨렸죠. 첫 번째 남자는 곧바로 식탁보를 엄마 얼굴에 뒤집어썼습니다.”

“그들은 방 안을 털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가구를 하나둘씩 나르고, 다른 한 명이 뒷받침했죠.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고 소리도 지르

지 않았습시다. 거리에서 대형 자동차가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엄마는 의식을 잃고 말았답니다.”

“결국, 베슈가 말했다. ‘당신이 필리-베르제르에서 돌아왔을 때…?’”

“아래쪽 문이 열려 있었어. 이 아파트 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엄마는 기절해 계셨지. 내 당황스러움은 상상이야!”

“관리인은?”

“그들 알잖아. 서른 년째 여기서 산 두 노부부야. 지진이 와도 안 일 어날 정도지. 밤중에 초인종 소리만 나면 모를까.”

“그런데 그들은 밤 열 시, 잠들었던 시각부터 아침까지 아무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고 장담해.”

“그리고 당연히, 베슈가 말했다. ‘열쇠 구멍을 돌려 문을 연 일도 없 겠지?’”

“맞아.”

“다른 세입자들은?”

“들린 것도 없어.”

“결론은?”

“결론이 뭐라고?”

“오르가, 너의 생각은 어때?”

젊은 여자는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 말도 안 돼요! 제 의견이 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당신도 검찰청 사람들만큼이나 뻔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당황한 듯 말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방금 한 말, 다 이해 못 하세요? Barnett이라는 놈이 당신만큼이나 멍청하다면, 제 폰파두르 침대는 영원히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때 Barnett이라는 남자가 다가와 물었다.

“폰파두르 침대, 언제 필요하신가요, 마담?”

“뭐라고요?” 그녀는 다소 초라해 보이는 이 남자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는 친근한 어조로 설명했다.

“파마두르 침대와 방 전체를 언제 돌려받으실지,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날짜를 정해봅시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다음 화요일이 괜찮으니까?”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이 턱 막힌 듯했다. 뜻밖의 제안을 무슨 뜻일까? 농담일까, 아니면 큰소리일까?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참 재미있는 놈이네! 베슈, 그 친구 어디서 구했어? 어쨌든, 바넷이라는 자는 배가 참 크군. 일주일? 내 파마두르 침대가 내 주머니 속에도 있는 줄 아나 봐. 너도 그런 놈들과 시간을 낭비할 줄 알다니!”

그녀는 두 사람을 현관까지 밀어냈다.

“제발 물러서세요.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세요. 제 머리를 장난감 삼는 건 싫습니다. 저런 장난꾸러기들이라니!”

문은 두 사람의 등 뒤에서 요란하게 닫혔다. 베통수는 절망에 찬 신음을 터뜨렸다.

“도무지 십 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바넷은 평정심을 잃지 않은 채 현관을 살피며, 한 노파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온 뒤, 바넷은 문지기 방으로 들어가 그곳 사람 역시 심문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 바넷은 지나가던 택시 한 대를 잡아타고 라보르드 거리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반면 베통수는 발걸음을 멈춘 채, 여전히 어리둥절해하며 인도에 서 있었다.

바넷이 베슈에게 어떤 위신을 세웠든, 올가는 그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했다. 올가는 바넷이 어찌어찌 위기를 넘겼다고 보았다. 그 방법이 약속이었던 농담이었던, 결국은 속임수였을 것이라고 말이다.

다음 날, 베슈는 그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바넷의 사무실로 향했을 때였다.

바넷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발을 책상 위에 올린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히 이 물음에 갇혀 헤매게 될 거야!” 베슈가 격분하며 소리쳤다. “저쪽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 봐도, 검찰 측 형사들은 단 한 방울도 알아내지 못해. 나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몇 가지 점에서는 이미 의견이 일치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가짜 열쇠를 쓰더라도 그 집에 침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내부에 공모자로 의심할 만한 사람이 없었으니,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첫째, 두 도둑 중 한 명이 전날 저녁 무렵 이미 집에 숨어 있었고, 동료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 둘째, 그 집 현관문은 항상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경비원 중 한 명이 보는 앞에서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들어왔을까? 누구를 안내자로 삼았을까? 신비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찌 된 일인가?”

바넷은 침묵을 지켰다. 그 사건과는 무관한 척했다. 베슈가 계속 말했다.

“어제 온 손님 몇 명을 추려 봤어. 관리인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단호하게 말했지.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나갔다고. 그래서 단서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절도는 여러 단계로 진행됐는데, 수단이 간단하고 대답하기 그지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도의 기원 자체는 절대 설명할 수 없지. 어때, 이 사건 어때?”

바넷은 몸을 쪽 펴며 현실로 돌아온 듯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 사건은 정말 맛있다.”

“누가? 뭐가? 누가 맛있다니?”

“네 아내 말이야.”

“뭐?”

“무대 위나 일상에서나 그토록 매력적이군. 활기 넘치고, 에너지가 폭발하지! 진짜 파리 소년 같아…… 그런데도 감각과 섬세함이 있어. 저축한 돈으로 팜파두르 식 침대를 산다는 발상, 정말 사랑스럽지 않니? 베슈, 너는 운이 따라주지 못해.”

베슈가 투덜거렸다. “운이라니, 그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

“얼마나 지속됐지?”

“한 달.”

“그리고 불평이야?”

토요일, 베슈가 다시 찾아왔다. 바넷은 담배를 피우며 멍하니 앉아 있었을 뿐, 대답이 없었다. 결국 월요일, 베슈는 낙담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안 되네.” 그가 투덜거렸다. “이런 놈들은 다 바보야. 그 사이 포마 두르 침대와 올가의 방은 어딘가 항구로 옮겨져서 해외로 보내지고, 언젠가는 팔려갈 거야. 내가 올가 앞에서 경찰 검사관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 같아? 바보보다 못한 존재지.”

그는 Barnett을 바라보았다. Barnett은 담배 연기가 천장으로 휘감겨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가니마르는 격분했다.

“우리는 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적들과 싸우고 있어. 특별한 방법을 쓰고, 아주 정교한 수법을 구사하는 자들이야. 이미 그 수법을 여러 번 쓰고 다듬었을 거야. 그런데도 너는 차분하기만 해? 그들 안에 내부자가 들어왔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 음모를 밝히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거야?”

“그녀 안에는 내 마음을 더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어.” 바넷이 말했다.

“무엇이?” 베슈가 물었다.

“그녀의 자연스러움, 솔직함. 과장된 연기 따위는 없어. 올가는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본능에 따라 행동하며, 기분에 따라 살아. 다시 말하지만 베슈, 그녀는 정말로 매력적인 존재야.”

베슈가 주먹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

“너는 그녀 눈엔 뭐로 비쳐? 멍청이로 말이지. 델 프레고와 함께 있을 때 너를 두고 둘이 얼마나 배꼽 잡고 웃는지 알아? ‘바넷이라는 멍청이… 바넷이라는 속임수꾼…’”

바넷이 한숨을 쉬었다. “참으로 불쾌한 수식어군. 이제 더 이상 그 말에 어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내일은 화요일이야. 약속했잖아. 폼파두르 침대는 돌려줘야 해.”

“젠장, 불행히도 내가 그 침대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군. 조언 좀 해다오, 베슈.”

“강도범들을 체포하게 하시오. 그들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건 더 쉽군요.” Barnett이 말했다. “체포장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당신 편으로 쓸 사람도 있겠지요?”

“경찰청에 전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전화해서, 오늘 오페라 극장 지하 갤러리 근처, 룩셈부르크 공원 쪽에 두 명을 보내게 하세요.”

베슈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장난하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올라 보방 앞에서 바보처럼 보일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제가 한번 한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까?”

베슈는 몇 초 동안 생각에 잠겼다. 바넷이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문득 들었다. 지난 여섯 날 동안, 그는 자신의 안락의자에 누운 채로 이 수수께끼를 놓고 끊임없이 고민해 온 것이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지 않았던가. 어떤 경우에는 모든 수사를 다하는 것보다 사색이 더 낫다고.

더 이상 묻지 않은 채, 베슈는 전화기로 사법경찰서의 수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알베르라는 친구를 불렀다. 오데온 극장 쪽으로 형사 두 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바넷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세 시였다. 그들은 떠났다.

“올가의 동네로 가는 겁니까?” 베슈가 물었다.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녀의 집은 아닌가요?”

“관리인의 방으로요.”

바넷은 경비원들에게 입 밖으로 새지 말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그 뒤 두 사람은 방 깊숙한 곳, 커튼 뒤로 숨어들었다.

커튼이 침대까지 가려져 있어 두 사람은 완전히 은밀해졌다. 커튼 양쪽으로는 코드를 당겨 들어오거나 나가는 모든 사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1층에서 신부가 지나갔다. 이어 올라가 노종녀 하나가 장바구니를 들고 외출하듯 지나쳤다.

“도대체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야?” 베슈가 속삭였다. “목적이 뭐야?”

“네 실력을 가르쳐 주려는 거지.”

“알았어.”

세 시 삼십 분, 델 프레고가 들어왔다. 흰 장갑, 흰 부츠, 회색 정장, 밝은 색 모자. 그는 현관 경비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넌 뒤 계단을 올랐다. 바로 매일 오후 두 시간마다 시작되는 체조 시간이었다.

사십 분 뒤,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담배 한 갑을 사 들고 돌아왔다. 흰 장갑… 흰 부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세 명 지나갔다. 그러자 베쿠가 속삭였다.

“어이, 저 또 들어오네. 세 번째야. 도대체 어디로 나갔던 거지?”

“그 문으로 나갔겠지.”

“그건 아닌 것 같아.” 베쿠는 자신감 없는 어조로 말했다. “아니면 우리가 잘못 본 걸까? 바넷, 너 생각은 어때?”

바넷은 커튼을 젖히며 대답했다.

“이제 행동할 때야. 가서 동료들을 불러, 베슈.”

“그들을 데리고 올까요?”

“너는?”

“나는 올라갈 거야.”

“나를 기다릴 거야?”

“왜요?”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보게 될 거야. 세 분 모두 2층에 숨어 있어라. 우리가 부르거든.”

“그러니까 너는 감행하겠다는 거야?”

“물론이지.”

“누구를 상대로?”

“눈이 시리도록 차가운 녀석들을 상대하는 거야, 내 말 믿어. 서둘러.”

베슈는 떠났다. Barnett은 예고했던 대로 3층까지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다. 그는 체조실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Olga는 Del Prego의 감시 아래 마지막 수업 시간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어머, 대담한 Barnett 씨!” Olga는 밧줄 사다리 위에서 외쳤다. “전능한 Barnett 씨라니! 자, Barnett 씨는 제 팡파두르 침대라도 가져다준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마담. 하지만 제가 방해가 되지는 않나요?”

“전혀요.”

그녀는 놀랄 만큼 민첩하게 움직였다. 위험 따위는 아랑곳없이, 델 프레고가 짧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하는 동작들을 마치 장난감처럼 가볍게 해냈다.

교수는 그녀의 움직임에 승인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했다. 때로는 본인이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는 이미 숙련된 곡예사였다. 다만 유연함보다는 힘에 더 무게를 두는 듯했다. 마치 자신의 기가 막힌 힘을 과시하려는 듯했다.

수업이 끝난 뒤, 그는 조끼를 입었다. 하얀 부츠덮개를 채우고, 하얀 장갑과 밝은 색 모자를 챙겼다.

“오늘 저녁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올가 마담.”

“오늘은 저를 기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델 프레고?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데려다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안 됩니다, 올가 마담. 저녁 식사 전에 한 번 더 연습해야 하거든요.”

그가 출구 쪽으로 걸어가려 했지만, 곧 발걸음을 멈췄다. 바넷이 문과 그 사이에 가로막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잠깐 말씀만 드리죠, 친애하는 선생님. 운이 좋게도 당신을 마주쳤으니.”

바넷이 말했다.

“정말 유감입니다만, 하지만...”

“다시 소개해야 할까요? 짐 바넷입니다. 바넷 앤 컴퍼니 소속 사립 탐정이고, 베슈의 친구죠.”

델 프레고가 한 발짝 다가섰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시간이 좀 촉박한데요.”

“아, 일 분만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을 조금만 일깨워드릴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떤 터키 사람 말입니다.”

“터키 사람?”

“네, 벤발리라는 이름을 가진 자요.”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벤발리? 그 이름은 처음 들어봅니다.”

“아베르노프라는 이름은 어때요? 혹시 그쪽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누구셨습니까?”

“살인자 두 명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텔 프레고가 웃으며 말했다.

“저런 종류의 인물과는 자주 어울리고 싶지 않군요.”

“오히려, 그분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바넷이 말했다.

텔 프레고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바넷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당장 설명해라. 수수께끼 같은 말은 지겹다.”

“앉으십시오, 텔 프레고 씨. 더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텔 프레고는 불쾌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다. 올가는 두 남자 곁으로 다가가 있었다. 운동복을 입은 작은 몸매가 예쁘고 호기심에 찬 눈빛이 돋보였다.

“아아, 텔 프레고. 내 폼파두르 침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넷이 말했다. “텔 프레고 씨, 제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강도 사건 이후 제가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당시 큰 화제가 되었던 두 가지 사건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들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바넷은 더 이상 평범한 하인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올가 보방은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고, 텔 프레고도 굴복하듯 중얼거렸다.

“빨리 하시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넷이 입을 열었다.

삼 년 전 일이다. 파리의 한복판에 있는 큰 아파트 건물에 살던 보석상 소아르 씨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소아르 씨는 벤발리라는 인사와 거래를 했다. 벤발리는 터번을 쓰고 풍성한 바지를 입은 터키식 차림새를 하고 다녔다. 그는 정교하지 않은 보석, 즉 동양 토파즈, 바로크 진주, 자수정 등을 거래했다.

어느 날 밤, 벤발리가 그날 몇 차례나 소아르 씨를 방문한 뒤였다. 소아르 씨는 극장에서 돌아와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아버지가 칼에 찔려 죽어 있었고, 보석함이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수사는 뜻밖의 결과를 내놓았다. 범인은 벤발리가 아니었다. 그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범인은 벤발리가 오후에 데려온 누군가였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물론 벤발리 자신도 결국 잡히지 않았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기억나지?

“파리에 온 지는 이제 겨우 이 년째입니다.” 델 프레고가 반박했다. “게다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짐 바넷이 계속했다.

“그로부터 열 달 전, 또 다른 동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메달 수집가인 다불 씨였죠. 이 사건의 범인은 러시아 귀족 아베르노프 백작이 집으로 유인해 숨겨준 것이 분명합니다. 아베르노프 백작은 아스트라칸 모피 모자를 쓰고 긴 외투를 입은 사나였죠.”

“기억나네요.” 올라 보방트가 말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번넛이 다시 말을 이었다. ‘저 두 가지 사건과 품파두르 방 도둑맞은 사건 사이에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유사성보다는 어떤 가족 같은 인상을 느꼈습니다. 살인자 벤발리가 보석상 사로이시에게 저지른 절도와, 수집가 다불에게 저지른 절도는 모두 두 명의 외국인에 의해 자행되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즉 일을 맡은 일이나 두 명의 공범을 미리 들여보내는 방식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요하고 외로운 곳에서 그 문제에만 매달렸습니다. 제가 가진 두 가지 요소, 즉 벤발리 사건과 아베르노프 사건을 바탕으로,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상황에서도 적용되었을 시스템의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내셨나요?” 올가가 열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맞아요. 그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하죠. 예술입니다. 저는 식견이 있으니 알겠어요. 남에게 빌리지 않은, 새롭고 독창적인, 그런 위대한 예술이라고나 할까요.”

“반면 보통 도둑이나 살인자들은 조용히,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먼저 공작이나 배달부 같은 동료를 보내 집 안으로 숨어들게 하죠. 하지만 저들은 정면으로, 낮에, 당당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더 많이 눈에 띄는 게 더 좋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단골손님처럼 공개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는 데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정해진 날이 되면, 그들은 나가서… 또 들어가고… 다시 나가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리의 두목이 집 안에 있을 때, 누군가가 또 찾아옵니다. 오가던 그 사람이 아니라, 겉모습이 똑같아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착각할 만한 누군가가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넷은 텔 프레고에게 말을 돌리며 열정적으로 던졌다.

“정말 천재적이에요, 텔 프레고. 네, 천재라고요. 다른 사람이 같은 수를 쓰려 한다면, 눈에 띄지 않으려 할 겁니다. 호텔 쥐처럼, 중립적인 색상의 옷을 입고, 시선을 끌지 않는 복장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눈에 띄는 거죠.

만약 모피 모자를 쓴 러시아인이나 풍성한 바지를 입은 터키인이 하루에 네 번씩 계단을 오르내린다면, 누가 그가 들어온 횟수와 나온 횟수를 일일이 세겠습니까? 그런데 다섯 번째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공범이었을 테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바로 그 수법입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자는 분명 대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런 실력의 대가는 두 번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어요. 제 생각에 벤-발리와 아베르노프 백작은 같은 인물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사건에서, 그가 세 번째 모습을 드러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러시아인이었고, 다음에는 오스만 제국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가, 같은 이방인의 기질을 풍기며 특이한 복장을 하고 나타났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올가는 분노에 찬 몸짓을 했다.

바넷이 처음부터 자신의 설명을 통해 도달하려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그녀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즉각 항의했다.

“안 됩니다. 그런 암시는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텔 프레고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올가 마담. 바넷 씨는 그냥 장난을 치는 거예요…”

“물론이지, 텔 프레고.” 바넷이 말했다. “저는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제가 쓴 이 작은 모험 소설을 결말을 알기 전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맞아요.”

“물론 당신은 외국인이지요. 눈에 띄게 차려입고 있죠. 하얀 장갑에… 하얀 구레나불 부츠까지요.”

“물론 당신은 변장이 가능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 마스크는 당신을 러시아인에서 터키인, 다시 라스타쿠아레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물론 당신은 이 집의 단골이고, 여러 가지 직책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여기로 오가죠.”

“하지만 결국, 당신의 정직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올가 보방트가 당신을 보증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떡하죠? 제가 당황하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범인은 당신 뿐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범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죠, 올라 보방트?”

“아니요, 아니요.” 그녀는 열과 불안으로 빛나는 눈으로 말했다. “그럼 누구를 고발해야 하지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내가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함정? 하지만 어떻게?”

짐 바넷이 물었다.

“그저께 로랭 백작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그 백작이 어제 직접 찾아왔고요?”

“네... 네...”

“그리고 포마두르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무거운 은제 상자를 가져다 준 이는 누구였습니까?”

“상자가 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파산한 로랭 백작은 에티올에서 대대로 내려온 이 상자를 팔려고 했지만, 내일까지 화요일까지 당신에게 맡겨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것을 알았습니까?”

“내가 백작입니다. 당신은 이 놀라운 은식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감탄하게 했습니까?”

“게다가, 당신의 어머니는 지방에서 온 전보를 받았지. 아픈 누나 곁으로 오라고 간곡히 청하는 내용이었어?”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보 내가 보낸 거야. 그래서 아침에 어머니가 떠나면, 이 방에 놓인 상자는 내일까지 그대로 남게 되지. 네 방을 털었던 그 친분이 다시 한번 대담한 도전을 해볼 유혹을 느끼기 딱 좋은 상황이야. 그 상자를 가져가는 건 훨씬 쉽거든.”

올가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그 도둑질이 오늘 밤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야.”

“세상에, 무서워 죽겠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뜬 기색 없이 경청해오던 델 프레고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무슨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올가 부인. 이미 경고를 받았으니까요. 경찰에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허락하신다면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Barnett이 반박했다. “제가 당신, 델 프레고 씨가 필요합니다.”

“제가 무슨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당연하죠. 공범을 체포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사기가 오늘 밤에 일어나니까요.”

“그렇지만 공범은 미리 잠입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이미 들어와 있다는 말인가요?”

“한 시간 전부터요.”

“말도 안 되네요. 제가 도착한 이후부터요?”

“두 번째로 도착하신 이후부터요.”

“상상할 수 없군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당신 눈앞에서 본 것처럼요.”

“그럼 이 아파트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건가요?”

“어디에?”

Barnett이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저기요. 현관 쪽 옷장에는 옷과 드레스가 쌓여 있어요. 오후에는 거의 들어갈 일이 없죠. 그가 바로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지 않았나요?”

“도대체 누가 문을 열어주었던 말인가?”

“바로 당신이에요, 델 프레고 씨.”

물론 대화 초반부터 바넷의 모든 말은 체조 교수를 겨냥한 것이었고, 그 말속에는 점점 더 정교한 함의가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공격은 델 프레고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감추어 왔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드러났다. 분노, 불안, 그리고 무언가 행동을 취하려는 간절함. 바넷은 그의 망설임을 간파하고, 현관으로 달려가 옷장에서 남자를 꺼내 공방 쪽으로 밀어냈다.

“아! 정말이었군요!” 올라 외쳤다.

그 남자는 델 프레고와 키가 똑같았다. 옷도 회색이고, 발목 부츠도 하얗고, 얼굴도 기름지고 표정이 풍부했다.

“신부님, 모자와 장갑을 잊으셨네요.” 바넷이 말했다. 그는 밝은 색 페트 모자를 남자의 머리에 눌러써워 주고, 흰 장갑을 건넸다.

올가는 놀란 나머지 뒤로 물러섰다. 두 남자를 눈에서 떼지 못한 채, 그녀는 사다리의 계단을 뒤로 물며 올라갔다. 그제야 그녀는 델 프레고 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았다.

“재미있지 않소?” 바넷이 웃으며 말했다. “쌍둥이처럼 닮지는 않았지만, 키가 같고, 전 코미디언 같은 얼굴에, 무엇보다 옷차림이 똑같이 니 형제처럼 보이지 않소?”

두 공범자는 비로소 당혹감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어쨌든 그들의 맞서는 상대는 강하고 위력적인 존재들이었지만, 정작 맞서 싸워야 할 적수는 단 한 명뿐이었다. 그 남자는 좁은 레딩코트를 걸치고 작은 상점 직원 같은 모습으로, 보기엔 별로 위협적이지 않았다.

델 프레고는 외국어로 한 마디 중얼거렸다. 바넷이 곧바로 통역했다.

“러시아어로 말해봐야 소용없어. 동료가 권총을 챙겼는지 묻는 거지?”

델 프레고는 분노에 떨며 또 다른 언어로 몇 마디 내뱉었다.

“운이 없군!” 바넷이 외쳤다. “터키어도 내 주머니처럼 잘 알아! 그리고 미리 경고해 두마. 계단 아래에 네가 아는 베슈가 있어. 올가의 남편이지. 그리고 그의 동료 두 명도 함께야. 총성이 한 번 울리면 그들은 곧바로 나타나겠지.”

델 프레고와 상대가 서로를 흘끗 보았다. 둘은 이미 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 붙잡으면 어깨까지 닿을 때까지 결코 놓지 않는 타입이었다. 겉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듯했지만, 미세한 움직임으로 점차 바넷 쪽으로 다가갔다.

“좋아!” 바넷이 외쳤다. “정면 승부군. 끝까지 붙들고 떨어지지 않는 싸움. 그리고 내가 쓰러지면, 바로 베슈를 향해 도망치려고 하지?”

“올가 여사님, 주의하세요! 정말 멋진 장면을 보실 거예요. 거인 두 명이 작은 아이를 상대하는 거죠. 골리앗 두 명이 다비드를 상대하는 셈이네요. 가자, 델 프레고! 더 빨리 와! 그래, 조금만 용기를 내봐. 내 목을 조르라고!”

그들은 세 걸음 차이로 가까웠다. 두 도둑은 손가락을 짝 쥐었다. 단 한 순간만 더 지나면, 그들은 돌진할 참이었다.

바넷이 그들을 미리 막아섰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몸을 날려, 두 사람의 다리를 각각 잡아끌어 인형처럼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들이 방어할 틈도 채 주지 않은 사이, 그들은 자신의 머리가 철제 갈고리보다 더 냉혹한 손에 단단히 고정되는 것을 느꼈다. 곧 숨이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팔에 힘을 쓸 수조차 없었다.

“올가 보방, 말씀드립니다.” 바넷은 놀라울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디 문을 열고 베슈를 불러주시시오.”

올가는 사다리를 내려 힘없이 쓰러질 뻔하면서도, 남은 기운을 짜내어 문 쪽으로 달려갔다.

“베슈! 베슈!” 그녀가 외쳤다.

그리고는 형사와 함께 돌아왔다. 그녀는 열정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에게 말했다.

“드디어 끝났군! 혼자서 저들을 ‘torpedo’ 해버렸어! 내가 저렇게 할 줄 알았으면 믿지 못했을 텐데!”

“자, 보시오.” Barnett이 Béchoux에게 말했다. “당신의 두 의뢰인이 여기 있습니다. 이 가엾은 자들이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손목에 사슬을 채워주십시오. 하지만 너무 팍 조이지 마시오, Béchoux! 제가 장담하건대, 그들은 합리적인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델 페그로? 불평할 생각은 없죠?”

그는 일어나 Olga의 손을 입맞췄다. Olga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신나게 외쳤다.

“아, Béchoux, 오늘 정말 멋진 사냥이었군! 두 마리 큰 맹수, 그중에서도 가장 크고 교활한 놈들을 잡았어. 델 페그로, 당신의 작업 방식에 박수를 보냅니다.”

땀뻘해진 손가락 끝으로 그는 교수의 가슴을 살며시 툭툭 찔렀다. 베슈는 교수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큰 기쁨으로 말을 이었다.

“정말 천재적이라니, 내가 몇 번이고 말했잖아. 방금 전,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던 관리인실에서도 그랬어. 네 수법을 내가 잘 알기에,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내가 아님을 분명히 보았거든. 하지만 베슈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함정에 빠졌지. 흰 부츠에 흰 장갑, 밝은 색 모자에 회색 재킷을 입은 그 남자가, 그가 여러 번 목격했던 델 프레고 자신이라고 믿어버린 거야. 덕분에 ‘두 번째’ 델 프레고는 차분히 올라와, 네가 달지 않은 문틈으로 슬며시 빠져나와 찬장 속으로 숨어들 수 있었지.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침실의 밤과 정확히 같은 수법이었어. 그런데도 네가 천재가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나?”

결국 바넷은 더 이상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힘차게 점프해 트라페지움 위에 올라타더니, 고정된 기둥을 빙글빙글 돌며 바람개비처럼 회전했다. 이어 밧줄 매듭, 고리, 사다리까지 차례로 잡았다. 그 모든 동작은 마치 우리 안에서 구르기 하는 원숭이의 소용돌이 같은 회전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의 낡은 레딩코트 밑단도 더없이 코믹했다. 단단하게 굳은 밑단이 그의 뒤로 펄럭이며 우스꽝스럽게 날아다녔다.

점점 더 당황한 올가는, 그가 갑자기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제 심장을 만져보세요, 아름다운 아가씨… 숨이 차지도 않았죠? 그리고 제 이마는요? 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 들고 번호를 불렀다.

“경찰청, 부탁드립니다…… 조사과…… 보안과로…… 아! 알베르? 내가 베슈다. 목소리도 못 알아듣나? 상관없어! 감시원 베슈가 올라 보반트의 절도 사건의 범인 두 명을 체포했다고 전해라.”

그는 베슈oux에게 손을 내밀었다.

“모든 영광은 네 몫이야, 친구. — 부인, 안녕하십니까. — 델 프레고, 내게 낯을 찌푸리는 것 같은데?”

델 프레고는 투덜거렸다.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아르센 뤼팽.”

Barnett이 외쳤다.

“좋아, 델 프레고. 정말 통찰력 있는 심리 분석이군. 아, 넌 ‘머리를 잃지’ 않는 한, 언제든지 활약할 여지가 있어! 하지만 문제는, 그 머리가 이제 너의 어깨에 잘 맞지 않는다는 거야.”

그는 크게 웃으며 올라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흥얼거리며 나갔다.

“이지도르 보트를레는 나를 사랑해.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자메야.”

다음 날, 델 프레고는 끊임없는 질문과 압도적인 증거 앞에 무너졌다. 그는 올라 보방의 침실을 잠금해 둔 교외의 창고를 가리켰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다. 바넷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며칠 동안 베슈는 업무 때문에 지방으로 다녀야 했다. 돌아왔을 때 그는 바넷의 쪽지를 발견했다.

“내가 얼마나 멋졌는지 인정해 봐! 이 사건으로 내 수익은 단 한 푼도 없어! 너를 괴롭히는那种 수수료도 받지 않았지. 하지만 그 대신, 네가 나를 여전히 존중해 준다면 그만한 보상이 어디 있겠어!”

오후, 베슈는 바넷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심하고 라보르드 거리에 있는 사무실로 향했다.

문은 닫혀 있었고, 한 장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베슈가 중얼거렸다. 속으로는 이미 불안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는 올라 집으로 달려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다시 불리 베르제르 극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큰 예술가가 막대한 위약금을 내고 여행길에 올랐다는 말을 들었다.

“젠장, 세상에!” 거리로 나온 베슈가 어눌하게 중얼거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겠나? 돈 인출이 안 되자,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다가 그녀를 유혹이라도 했단 말인가?”

끔찍한 의심이었다. 더할 나위 없는 절망이었다.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그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을까? 베슈가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던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넷은 사냥감을 놓지 않았다.

베슈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엽서를 받았다. 엽서에는 열정적인 필체로 낙서가添쳐어져 있었다.

“아, 베슈! 로마의 달빛을 보라! 베슈, 만약 네가 사랑을 한다면 시칠리아로 오라...”

베슈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역적아! 너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했다. 하지만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곧 복수를 보라!”

제8장

베슈는 상테 형무소 아치 아래로 쏜살같이 들어갔다. 안뜰을 가로질러 계단을 올랐다. 심지어 두드리지도 않고 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직속 상사 쪽으로 돌진했다. 얼굴이 감정의 격변으로 일그러진 채 더듬거렸다.

“짐 바넷이 데스룩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데스룩 의원의 집 앞에서 봤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짐 바넷?”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탐정입니다, 상사.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자취를 감췄던 사람요.”

“춤추는 올가와 함께?”

“네, 제 전처요!” 베슈가 분노에 휩싸여 외쳤다.

“그리고 어떻게 된 거지?”

“제가 그를 미행했습니다.”

“그가 눈치채지 못한 채로?”

“제게 발각된 남자는 절대 눈치채지 못합니다, 형사님. 하지만 그 도적, 걸으로는 유유히 거닐 것 같으면서도 제법 조심했더군요.”

“에투알 광장을 빙 돌아 클레베르 대로로 들어섰고, 트로카데로 광장 한복판에서 멈춰 섰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던 한 여성 걸으로 다가갔는데, 색색의 샤를 두르고 검은 머리에 투구처럼 단장한, 어딘지 보헤미안 같은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말을 나눴습니다. 입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눈짓으로 클레베르 대로와 광장 모퉁이에 있는 한 건물을 여러 차례 가리켰죠. 그러곤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당신에게 발각된 상태였나요?”

“네. 하지만 아쉽게도 열차가 지나갔고, 저는 제때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광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여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들이 감시하고 있는 그 집에, 당신도 가봤소?”

“방금 그쪽에서 왔습니다, 형사님.”

베슈가 장중하게 말을 이었다.

“그 집 4층, furnished apartment에 살던 사람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데스룩 장군입니다. 사흘 전부터 그곳에 머물고 있죠. 아들이 납치, 감금, 살인 혐의로 기소되자, 지방에서 상경해 아들을 변호하러 온 거죠.”

이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형사가 다시 물었다.

“데스룩 장군 집을 직접 방문했소?”

“그가 직접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러자마자 제가 목격한 그 소동을 그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째서죠?”

“사실 전날에 한 보헤미안 여인이 그를 찾아와 손금과 타로 점술을 보아주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3천 프랑을 요구했고,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답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호만 보내면 바로 올라올 예정이었죠.”

“그녀가 뭘 제안했다는 거죠?”

“그 유명한 사진을 찾아내서 가져오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애써도 찾지 못했던 그 사진이요?” 수장이 탄식했다.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의회 의원 데스룩을 몰아세울지 아니면 그의 아버지라는 변호인이 변호할지 결정되는 결정적 증거죠.”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두목이 속삭였다. 속삭임은 신뢰를 바라는 목소리였다.

“알다시피, 베슈. 그 사진에 우리가 얼마나 큰 가치를 두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지. 들어라, 베슈. 그 사진은 검찰에 넘기기 전에 반드시 우리 손을 거쳐야 해.”

그리고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경찰이 먼저……”

베슈가 똑같은 엄숙한 어조로 되받았다.

“받으실 겁니다, 두목. 동시에 바넷 탐정도 넘기겠습니다.”

한 달 전, 파리 금융계의 거물 베랄디는 아내를 점심 시간에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막강한 재산과 정치적 인맥,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과감함과 성공으로 파리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날 저녁에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밤새도록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부유한 Bois de Boulogne 근처에 거주하며 매일 아침 그곳을 산책하던 크리스티안 베랄디가 한적한 산책로에서 낯선 남자에게 접근당해 납치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남자는 그녀를 폐쇄된 자동차 안으로 끌어당겼고, 그는 곧장 시냇물 쪽으로 빠른 속력으로 달아났다.

범인의 얼굴은 아무도 보지 못했고, 외모는 젊어 보였다. 그는 짙은 파란색 코트를 입고 검은색 망토를 쓰고 있었다. 그 외에는 단서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이틀이 지났다. 소식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었다. 한낮이 지나갈 무렵, 파리에서 샤프트르로 가는 길 근처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한 대의 자동차를 보았다. 그 차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비명이 터졌다. 농부들은 차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차 밖으로 던져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들은 곧장 달려나갔다.

그와 동시에 자동차는 독을 올라 초원으로 들어갔고, 나무에 부딪힌 뒤 뒤집혔다. 기적처럼 다치지 않은 한 남자가 차에서 빠져나와, 곧장 그 여성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돌무더기에 부딪혀 있었다.

그들은 시신과 의식을 잃은 여자를 인근 마을로 옮겼다. 그리고 헌 병대에 신고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을 대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다. 바로 의회 의원 장 드로크였다. 그는 당파에서 중요한 입지를 가진 인물이며, 야당의 수장이었다.

죽은 이는 바로 베랄디 부인이었다.

사건 직후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남편의 분노는 뜨거웠고, 형사들의 추궁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드로크 의원의 몰락을 노리는 일부 장관들이 검찰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강간 미수 혐의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드로크 의원이 입었던 푸른 옷과 검은 망토는, 크리스티안 베랄디를 습격한 범인의 복장과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이다.

살인 혐의 역시 명확했다. 목격한 농민들의 증언은 단호했다. 그들이 본 것은 남자가 여자를 내몰던 팔이었다.

이제 드로크 의원의 의회 면책 특권을 박탈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장 데로크의 태도는 기소를 한층 더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 그는 주저 없이 납치와 감금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농부들의 증언에는 단호히 반대했다. 베랄디 부인이 스스로 차에서 뛰어내렸고, 자신은 그걸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것이었다.

그가 왜 자살을 선택했는지, 납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졌는지, 이틀 동안의 부재 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비극적 결말을 앞두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그는 그 모든 질문에 끝내 입을 다물었다.

베랄디 부인이 그를 알고 있었는지, 더구나 금융가 베랄디가 그와 약속할 기회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으니 그가 베랄디 부인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조차 규명할 길이 없었다.

그가 질문을 쏟아부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원하시면 믿으십시오. 저에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는 하원의 특별 위원회 앞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날, 베슈를 비롯한 경찰들이 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찾아왔을 때, 그는 직접 문을 열고 나섰다.

“저는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各位.”

신중하고 철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서재 벽난로 속에는 재더미가 쌓여 있었고, 수많은 문서가 불태워졌음을 말해주었다. 서랍들을 뒤지고 가구를 비웠다. 서고의 책들을 털어냈다. 그리고 문서 더미를 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장 데로크는 이 지루한 수색을 무관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하지만 매우 격렬하고 의미심장한 사건이 장면을 흔들었다.

베슈가 동료들보다 더 능숙하게, 주머니를 뒤지다가 우연히 놓여 있는 듯 보이는 얇은 종이 뭉치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장 데스록는 벌떡 일어나 그것을 빼앗았다.

“보시잖아, 이건 아무런 중요성도 없어! 사진 한 장일 뿐이야… 판지에서 떨어졌구린 오래된 사진이지.”

베슈는 데스록의 동요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일수록 더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는 다시 그 두루마리를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의원은 달아나 버렸다. 그는 뒤에서 문을 닫고, 경비원이 지키고 있던 옆 복도로 들어갔다. 베슈와 동료들은 곧이어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그들은 장 데스록의 주머니를 수색했다. 사진이 들어 있던 종이 두루마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경비원을 심문했다. 그는 도망자의 길을 막았을 뿐, 찾고 있던 문서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데스록 의원은 즉시 체포되어 끌려갔다.

이것이 사건의 핵심 줄거리다. 이 일이 당시(대전쟁 직전)에 얼마나 큰 소동을 일으켰는지는 굳이 상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상태 형무소에서의 조사가 뤼팽의 개입 없이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만 짚고 넘어가자.

여기서 우리는 데스룩 사건을 다시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건이 공개적인 결말을 맞게 만든 비밀스러운 한 장면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동시에 뤼팽과 탐정 바넷 간의 결투도 이 장면을 통해 종지부를 찍는다.

이번에는 베슈가 적어도 한 장의 큰 카드를 쥐고 있었다. 바넷의 수법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바넷이 어떤 식으로 공략할지 미리 눈치채고 있었으며, 경기는 베슈가 이미 장악한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경찰청장의 직접적인 안내를 받아 드로크 장군 댁을 찾았다.

배가 나온 하인이 문을 열었다. 그는 검은 레딩코트를 입은 시골 공증인처럼 보였다. 하인은 베슈를 안으로 들인 뒤, 베슈는 두 시에서 세 시 사이, 트로카데로 광장 쪽 창문 뒤에 숨어 상황을 엿보았다.

보헤미안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아마 바넷이 경계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베슈는 데로크 장군과 뜻을 같이하며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데로크는 키가 크고 마른 사내였다. 얼굴에는 단호한 기운이 서려 있었고, 회색 재킷을 걸친 채로까지도 구식 장교의 위엄을 잃지 않았다. 평소에는 말이 많지 않지만, 어떤 열정에 사로잡히면 격렬하게 흥분하며 설교를 늘어놓는, 그런 냉철한 타입의 인간이었다.

그의 가장 큰 열정은 바로 아들이었다.

장군에게 있어 장남 장 드로크의 무죄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인터뷰를 통해 그 무죄를 선포했고, 그것은 여론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장이는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장이의 단점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지나칠 정도로 정직하다는 점뿐이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는 자신을 완전히 잊고, 자신의 이익도 외면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저는 감방에서 그를 만나거나 그의 변호사와 대화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호소도 전혀 듣지 않았죠. 저는 그와 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방어하러 왔습니다.

각자 자존심이 있죠. 그의 자존심이 침묵을 지키라는다면, 제 자존심은 우리 가문의 명성을 더럽히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끊임없는 질문을 받자 그는 외쳤다.

“내 의견을 묻는 거지? 솔직하게 말해 주마. 장은 아무도 납치하지 않았다. 자기가 따라간 거다. 그는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고 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장은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찾아보면 반드시 찾을 수 있다.”

그는 열정적으로 수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베통에게 말했다.

“저도 여기저기에 이 수사를 돕는 유력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형사님, 저희의 수사는 형사님의 것과 마찬가지로 좁은 범위입니다. 우리에게도 형사님께도 부족한 것은 단 하나, 그 유명한 사진이라는 증거뿐이니깐요. 사건은 그 사진 한 장에 달려 있습니다.”

“일종의 음모가 꾸며졌습니다. 형사님도 아시겠지만, 금융가 베랄디와 제 아들의 정치적 적들, 그리고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联手해 제 아들을 파멸시킬 그 문서를 찾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는 뒤집어놓았고, 집 안 구석구석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베랄디는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게 거금을 약속했죠.”

“지금은 기다릴 뿐입니다. 목표가 달성되는 그날, 제 아들이 무죄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어 것입니다.”

베슈에게 그 무죄가 입증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임무는 사진을 가로채는 것이었다. 베슈는 생각했다. 만약 여기에 데스록 의원을 옹호하는 증거가 있다면, 그의 적들이 그 증거를 잘 숨기거나 없앨 것이라고. 그래서 베슈는 의무에 얽매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오지 않는 로마니 여자를 기다렸다. 보이지 않는 바넷을 엿보

았다. 그리고 데스록 장군의 말을 적어냈다. 장군은 자신의 발자취와 좌절, 그리고 희망을 털어놓았다.

어느 날, 생각에 잠긴 듯하던 노장교관이 베슈를 불렀다.

“새로운 일이 생겼네.”

“형사님, 저와 제 친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이 사라진 일에 대해 단서라도 줄 수 있는 사람은, 체포 당일 제 아들을 막아섰던 파리의 순경뿐이라는 사실ைய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경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그 경찰서는 보충 인력이 필요해 그 순경을 급히 불러냈던 거죠. 그 후 그 순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사님 동료들 사이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층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형사님, 우리는 그 순경이 심문을 받았고 매일 감시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의 집도 수색당했고, 가족들도 조사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옷과 가구까지도 샅샅이 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시를 맡았던 형사 중 한 명의 이름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베슈 형사입니다.”

베슈는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다. 이에 장군이 외쳤다.

“베슈 씨, 당신의 침묵은 제 정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 정보가 가져야 할 다음 단계를 밟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이 형사를 저에게 인도해 주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알리십시오. 만약 거절한다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베슈는 기꺼이 그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바넷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는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바넷은 가만히 앉아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와 마주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는 상사들로부터 전권을 얻어냈다. 이틀 후, 하인 실베스트르가 베슈와 평온한 표정의 공무원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 공무원은 제복 차림에 권총과 하얀 지팡이를 허리에 차고 있었다.

면담은 길게 이어졌으나,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림부르는 단호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덕분에 장군은 왜 이 남자를 감시해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림부르의 직위는 데스룩 의원의 보호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군대에서 함께 복무한 사이였다.

장원은 간청했다. 화를 냈다. 협박했다. 아들의 이름을 내세워 호소했다. 하지만 림부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진조차 보지 못했다. 당황한 데스룩 의원은 림부르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장원은 더 이상 매달릴 힘이 없었다. 결국 양보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을 믿고 싶지만, 당신과 제 아들의 관계에서 우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아 의심이 견히지 않습니다.”

그가 종을 눌렀다.

“실베스트, 림부르 씨를 모셔다 드리시오.”

종업원과 순경이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베슈는 데로크 장군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듯했다. 아무 이유도 없는 기묘한 기쁨이었다. 하지만……

몇 초가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베슈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장군은 분명히 미소 짓고 있었다.

문이 열린 채로 남아 있던 방 문턱에서, 기이한 형체가 다가오고 있었다. 머리 아래로 동그란 공처럼 둥근 몸통이 있고, 그 양옆으로 팔이 움직이며 걷고 있었다. 그리고 천장을 향해 허우적거리는 가느다란 다리가 두 개.

그 형체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한 발끝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다른 발로 그 발끝을 지탱한 채였다.

가난한 하인 실베스트르였다. 그는 갑자기 미친 듯이 돌고 있었다. 수피파 수도사처럼 몸을 비틀며, 입이 깔때기처럼 크게 벌린 채 배를 흔들고 있었다. 그 배는 폭소를 터뜨리며 요동쳤다.

하지만 정말로 실베스트르가 맞는가?

이 기이한 광경을 본 베슈는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정말로 실베스트르일까? 살찐 외모에 지방 관공서 서기 같은 풍채의 그 하인이 맞을까?

그는 갑자기 발을 멈췄다. 눈동자를 동그랗게 부릅뜬 채 베슈를 응시했다.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던 가식적인 미소를 벗겨내듯, 그는 턱수염을 다듬은 뒤 재킷과 조끼 단추를 풀었다. 그리고 고무로 만든 배를 풀어주었다.

장군 데스룩스가 건네준 조끼를 입은 그는 다시 베슈를 바라보며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베슈는 그저 한 개의 배다.”

베슈는 분노하지 않았다. 처참한 태도로 그는 가장 모욕적인 말에도 동의하는 체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Barnett ... ”

“Barnett ”

장군 데스룩스는 큰 소리로 웃었다. Barnett은 말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성공하면 기쁨이 넘쳐서,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작은 체조나 춤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럼, Barnett 씨는 성공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슈라는 오랜 친구 덕분에 가능했죠. 하지만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시작부터 해봅시다.”

바넷이 자리에 앉았다. 장군과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그는 경쾌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자, 이제 말하지, 베슈. 스페인에서 한 공통 지인에게서 전보를 받았어. 데스룩 장군을 돕기 위해 내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지. 그때 나는 사랑에 빠진 여행 중이었어. 기억나지? 매력적인 부인과 함께였지만, 서로의 사랑은 다소 시들해져 있었지.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유를 되찾았고, 그라나다에서 만난 사랑스러운 집시 여자와 함께 귀국했어.

문제는 네가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바로 내 마음에 들었지. 그래서 나는 아주 빨리 결론에 도달했어. 만약 데스룩 의원이나 그를 위해 어떤 증거라도 있다면, 그 길목을 막았던 순경에게서 그걸 구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지.

자, 베슈,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진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도 그 착한 사내의 이름을 알아내지 못했어. 어떻게 할까? 날은 흘러갔고. 장군과 그 아들에게는 고통이 되어갔지. 유일한 희망은 너뿐이었어.”

베슈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그는 가장 악랄한 속임수의 희생자임을 느꼈다. 해결책은 없었다.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다. 이미 손쓸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너, 베슈. 짐 바넷이 되뇌었다. 너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는 경찰 순경에게 ‘설득’을 가하라는 임무를 맡았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그를 여기로 유인했느냐? 간단했다. 어느 날 내가 너의 길목에 나타났거든. 너는 나를 따라와서 트로카데로 광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내 아름다운 집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지. 낮게 몇 마디 수군거린 뒤, 그 집안을 향해 몇 번의 눈짓을 보냈을 뿐이야. 그랬더니 너는 함정에 걸려들었지. 나를 붙잡거나, 아니면 내 동료를 붙잡으려는 생각에 너는 불타오를 만큼 열정적이었어.

너의 전초기지는 여기였어. 드스로크 장군과 그의 하인 실베스트르 근처, 다시 말해 나 근처였지. 덕분에 나는 매일 너를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으며, 드스로크 장군을 매개로 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

짐 바넷이 그에게로 몸을 돌렸다.

“장군, 축하합니다. 베슈와 함께하신 수완과 기지가 놀라웠습니다. 그 덕분에 의심을 피하고, 잠시 동안이나마 그 알 수 없는 순경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네, 맞아요. 베슈에게 몇 분이면 충분했죠.

목표는 무엇이였을까요? 당신의 것이었나요? 경찰의 것이었나요? 검찰의 것이었나요? 아니면 모두의 것이었나요… 사진의 행방을 찾는 것, 맞죠?

당신의 총명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당신의 조사가 완벽한 경지까지 이어졌으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수없이

밭길에 밟힌 길에서 찾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남다른, 그야말로 기이한 무언가를 상상해야 했죠. 그리고 그 무언가를 미리 준비해서, 그 남자가 이곳에 왔을 때 그가 모른 채 순식간에 털리게 해야 했습니다.

옷, 주머니, 안감, 밑창, 속이 빈 굵… 문서 숨기기에 쓰이는 흔한 수법들입니다. 하지만 필요했던 것은… 베슈, 제가 간파한 바로 그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하면서도 평범한 것, 신화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것, 상상할 수 없는 동시에 자연스러운 것, 그리고 이 남자의 직업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직업을 대변하는 것이었죠.

순경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그를 특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를 경관, 세관원, 역장, 혹은 평범한 경찰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베슈… 비교해 보세요.

삼 초만 드리죠. 그것도 충분할 만큼 명확하니까요. 하나… 둘… 셋…

자, 답을 찾았나요? 아시겠나요?”

베슈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 상황의 우스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을 수습하고 현직 순경의 모습을 떠올리려 애썼다.

“자, 이 늙은이야.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군. Barnett이 말했다. ‘너는 항상 날카로운데 말이지. 내가 직접 설명해 줘야 하나?’”

바넷은 코 위에 무언가를 올렸다. 그는 방을 뛰쳐나갔다 다시 돌아왔는데, 코 위에 경찰봉을 균형을 맞춰 올린 채였다. 흰색 봉이었다.

파리나 런던, 그리고 전 세계의 경찰들이 군중을 지배하고, 명령하고, 통치하는 그 흰봉이었다. 보행자들을 지시하고, 차들의 흐름을 막으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통제했다. 한마디로 거리의 왕이자 시간의 주인이었다.

바넷은 그 봉을 병을 다루듯 재주껏 놀렸다. 다리를 통과시키고, 등 뒤로 돌렸고, 목 둘레를 감았다. 그리고는 앉아서 엄지와 검지로 봉을 쥐며 그를 향해 말했다.

“하얀 지팡이여, 권력의 상징이시여. 리무르 순경의 허리춤에서 훔쳐, 당신과 똑같은 무수한 형제들 중 하나로 위장했던 그 하얀 지팡이여. 진실이 감춰진 열쇠고리라 의심한 내가 틀리지 않았죠? 맞죠?”

“마법사 머린의 마법봉이시여. 우리들을 쫓던 금융가의 괴수나, 우리의 적인 모씨오 내각의 각료나, 그 어떤 자동차도 당신 앞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의 비결을 쥐고 계신 분 역시 당신이었죠?”

그는 왼손으로 흙이 파인 지팡이 손잡이를 쥐었다. 오른손으로는 리폴린 페인트로 칠해 단단해진 마름나무 조각을 꼭 잡았다. 그리고 지팡이를 풀기 위해 힘을 주었다.

“맞습니다. 제가 짐작한 대로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걸작이죠. 손재주가 남다르고 세심한 사람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기적 같은 작업입니다. 림보르그 형사가 보통이 아닌 회전 공예가 친구를 두고 있었나 봅니다. 어떻게 하면 물푸레나무 지팡이 속을 빈틈없이 파내고, 터지지 않게 구멍을 뚫으며, 완벽한 나사산을 새기고, 뚜껑을 밀봉하

듯 단단히 닫아, 지팡이가 손잡이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Barnett이 지팡이를 돌렸다. 손잡이가 풀리며 구리 고리가 드러났다. 장군과 베슈는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지팡이는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긴 부분 안쪽에는 끝까지 들어갈 듯한 구리 튜브가 잠깐 보였다.

얼굴들이 굳어 있었다. 숨을 죽인 채 모두가 움직이지 않았다. 바넷도 모르게, 그의 태도에는 어느새 엄숙함이 감돌았다.

그는 튜브를 뒤집어 책상 바닥에 툭 치며 두드렸다. 종이 한 뭉치가 떨어졌다.

창백해진 베슈가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사진이군요… 제가 알아봅니다.”

“당연히 아시죠. 가로 약 십오 센티미터. 판지에서 벗겨져 있고, 살짝 구겨졌네요. 장군님, 직접 펼쳐보시겠습니까?”

데스록 장군은 평소처럼 단호하지 않은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들였다. 그 위에는 네 통의 편지와 한 통의 전보가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잠시 사진을 응시한 뒤, 두 동료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끝없는 감동과 기쁨이 담겨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불안도 섞여 있었다.

“여성과 어린아이가 무릎 위에 앉아 있는 초상화입니다. 사진에 나온 베랄디 부인의 표정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확실히 그녀입니다. 아마도 아홉, 열 해 전쯤일 겁니다. 날짜도 적혀 있죠. 여기 아래쪽을 보세요. 제 추측은 맞았네요. 정확히 열 한 해 전입니다. 서명은 크리스틴. 베랄디 부인의 이름입니다.”

데스룩 장군은 중얼거렸다.

“무슨 뜻일까요? 내 아들이 그녀를 알고 있었던 말인가? 그녀가 결혼하기 전부터?”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장군.”

바넷이 첫 장의 종이를 건넸다. 접힌 자국이 많아 있었으며, 여성 특유의 필체가 눈에 띄었다.

데스룩 장군은 편지를 읽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마치 꿈쩍하고도 아픈 사실을 깨달은 사람처럼 비명을 삼켰다.

그는 집요하게 다음 편지를 읽었다. 바넷이 차례차례 건네는 다른 편지들과 전보를 훑어보며 읽었다. 그러다 그는 말을 멈췄다. 얼굴이 절박한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장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끝내 그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요, 제가 범인입니다… 열두 해 전, 제 아들 장은 평민 출신의 한 젊은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단순한 공장 여공이었죠. 그 여자에게서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작은 소년이었어요. 장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만하고 어리석게도, 저는 그녀를 만나기를 거부했고 그 결혼에 반대했습니다. 장은 제 뜻에 거스르려 했죠. 하지만 그 젊은 여자가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녀의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예요.”

‘안녕, 장. 네 아버지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니, 네가 거역해서는 안 돼. 우리 귀여운 아들에게 불운이 닥칠 테니까. 우리 둘의 사진을 보내. 항상 간직하고 우리들을 너무 빨리 잊지 마.’

“실제로 잊은 건 그녀였어요. 그녀는 베랄디와 결혼했습니다. 장은 소식을 듣고 아이를 샤르트르 근처의 한 노교수에게 맡겼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비밀리에 그곳을 여러 차례 찾아갔죠.”

베슈와 바넷이 몸을 기울였다. 장군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듯했지만, 목소리는 너무 낮아 들리기도 힘들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편지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편지들 속에는, 너무도 당혹스럽게도, 그의 과거가 모두 담겨 있었다.

“가장 마지막 편지는 다섯 달 전 것이야.” 장군이 말했다. “짧은 몇 줄이었지. 크리스틴이 자신의 죄책감을 고백하는 내용이었고,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적혀 있었어.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지.”

“하지만 전보가 있었어.” 장군이 계속했다. “옛 스승이 보낸 전보였지. 장에게 보낸 것이었어. 내용은 ‘아이가 매우 아파요. 오세요.’였어. 그리고 그 전보 뒤에, 내 아들이 나중에 적은 끔찍한 결말이 적혀 있었지.”

“우리 아들이 죽었어. 크리스틴이 자살했어.”

장군은 다시금 침묵을 지켰다. 사실은 이미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었다.

전보를 받은 장은 크리스티안을 찾아내, 기운 빠진 채로 자동차 쪽으로 이끌었다. 샤르트르에서 돌아오는 길, 죽은 아들과 작별의 키스를 나눈 뒤, 크리스티안은 절망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장군?” 짐 배럿이 물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장이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는 죽은 여자를 비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테고, 또 이 비극적인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저를 비난하는 일도 피하고 싶었겠죠.

물론 샤르트르의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확신합니다. 리므부르 경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장은 그래도 그 진실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운명이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를 바랐던 거죠.

바넷 씨, 이제 그 일을 성사시켜 주셨으니...”

“성사시킨 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장군님. 베슈 형님을 잊지 마셔야 해요. 베슈 형님이 리므부르 경위와 그의 하얀 지팡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패배했을 테니까요. 장군님은 베슈 형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덕분에 아들을 구했습니다. 이는 마땅히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베슈는 데로크 장군의 말에 동의했다. 일어난 일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경찰이 찾고 있던 문서를 가로채려는 시도를 포기했다. 그는 직업인으로서의 양심보다 한 사람으로서의 양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장군이 자신의 방으로 물러나려 할 때, 베슈는 Barnett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갑자기 말했다.

“짐 바넷, 당신 체포합니다.”

그는 아주 순진하고도 확신에 찬 어조로 그렇게 말했다. 마치 자신의 위협이 무용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양심상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자신의 임무인 Barnett 체포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 위협을 던지는 사람처럼 보였다.

“잘했다, 베슈! 바넷이 손을 내밀며 외쳤다. 정말 잘했다. 이제 나는 잡혔고, 꿈쩍도 못 하며 패배했다. 네게는 탈할 데가 전혀 없다. 이제 네가 허락한다면, 나는 탈출하겠다. 그것이 너의 내 친구애에 대한 모든 만족이 될 테니까.”

베슈는 억지로라도, 그를 친근하게 만드는 그 순수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그들 모두를 능가하네, 바넷. 머리 하나 더 돌아가는 구나. 오늘 당신이 해낸 일은 정말 기적에 가까워. 그런 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아무런 단서도 없었는데, 경찰관 지팡이처럼 믿기 힘든 곳에 숨겨둔 곳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바넷은 연기를 했다.

“하! 금전적 이득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법이지.”

“어떤 이득?” 베슈가 걱정스럽게 지적했다. “데스록 장군이 당신에게 줄 그런 건 아니잖아.”

“그리고 거절할 거야! Barnett 흥신소는 무료란 점, 잊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지?”

짐 배럿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래, 베슈. 네가 네 번째 편지를 흘깃 훑어본 걸 보고 깨달았어. 크리스틴 베랄디는 처음부터 남편에게 정중하게 경고했더군.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과거 사랑과 아이의 존재를 알면서도, 진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사법을 속인 셈이야. 그 목적은 장 데스록을 복수하기 위해서였고, 가능한 한 그를 교수대에 보내려는 거였지. 정말 끔찍한 계산이야, 인정하지?”

베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생각하건대, 엄청난 부자 베랄디가 이런 치명적인 편지를 사들일 의향이 없을 거라고? 만약 새로운 스캔들을 묻히려는 착한 사람이 그 편지를 부드럽게 제안한다면, 베랄디는 결코 좋은 값을 치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어쨌든 나는 그 편지를 주머니에 넣어뒀어.”

베슈는 한숨을 쉬었지만 항변할 힘조차 없었다. 무고한 사람이 승리하고, 악이 바로잡히며, 죄가 어쨌든 응분의 벌을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작은 ‘인출’들이, 결국 항상 유죄자나 과실자의 뒤편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일까?

“안녕, 바넷. 우리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 내가 결국 직업운리를 완전히 잃어버릴 테니까. 안녕.”

“그렇지, 베슈. 네 양심을 이해해. 그것은 네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지.”

며칠 후, 베슈는 바넷으로부터 한 통의 서신을 받았다.

“잘 됐어, 친구. 바넷이라는 놈을 잡지 못한 건 아쉽지만, 네가 약속했던 대로 말이야. 사진도 못 가져왔지. 명령대로요. 하지만 내가 네 편을 잘 서줬어. 이 일에서 네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설명했지. 그 결과, 네가 부서관으로 승진하게 됐어.”

베슈는 분노에 찬 제스처를 취했다. 바넷에게 은혜를 입는다? 도대체 용납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베슈의 공로는 이미 베슈 자신에게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그가 속한 사회가 가장 뛰어난 직원 중 한 명의 공로를 치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는 편지를 찢어 버렸지만, 승진 소식은 받아들였다.